



2013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보고서







2013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CONTENTS

원정화보 4

축사 15

제1장 원정추진 및 준비 17

1–1. 원정추진 배경 및 경과 19
1–2. 훈련일지 20
1–3. 발대식 30

제2장 원정개요 31

2–1. 원정결과 및 대원소개 33
2–2. 운행결과 34
2–3. Yosemite 국립공원 개요 35
–Yosemite 날씨 및 등반 당시 날씨 36
–Camp4 사용 및 셔틀버스 안내도 38
2–4. Zodiac 개념도 43
–등반 피치별 특징 48

제3장 운행기록 53

3–1. 운행기록(기록자 강민준) 55
3–2–1. 대원별 등반기(문석민) 75
3–2–2. 대원별 등반기(임도균) 88

제4장 분야별 보고 99

4–1. 행정 101
4–2. 회계 103
4–3. 장비 105
4–4. 식량 111

제5장 부록 119

5–1. 원정에 도움주신 분 121
5–2. 편집후기 124

2013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2013. 6. 25. 11:30, 문석민 등반대장(右), 강민준 대원(左) 조디악(Zodiac) 정상 등정





귀국 직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조규상 회원(24기, 左에서 두 번째), 한규성 회원(29기, 左에서 세 번째)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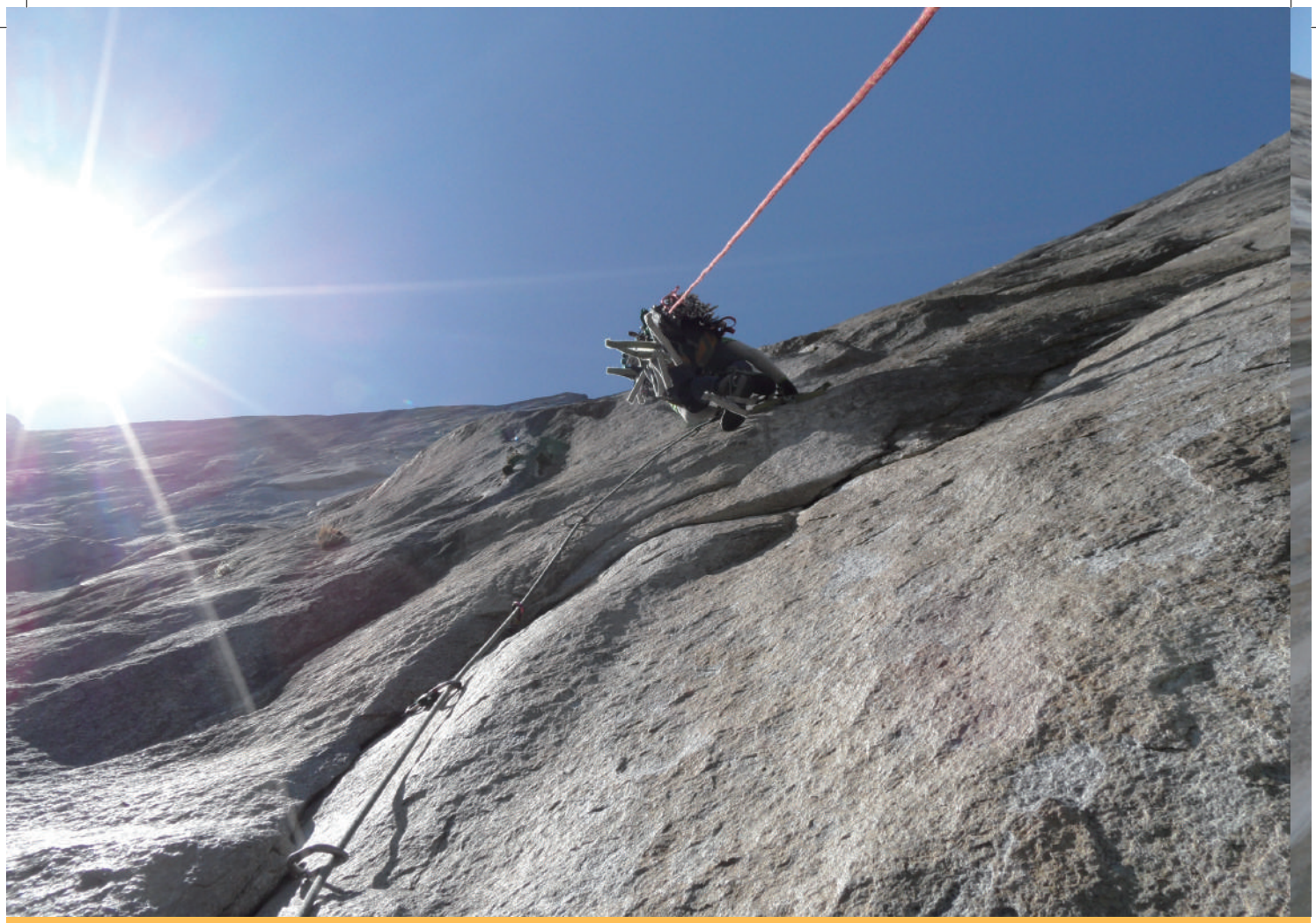
Zodiac

3피치에 물, 식량 장비를 데포시키는 날.
강민준 대원이 선등을 한다



1피치 중간부분, 스카이 훅으로 트래버스하는 강민준 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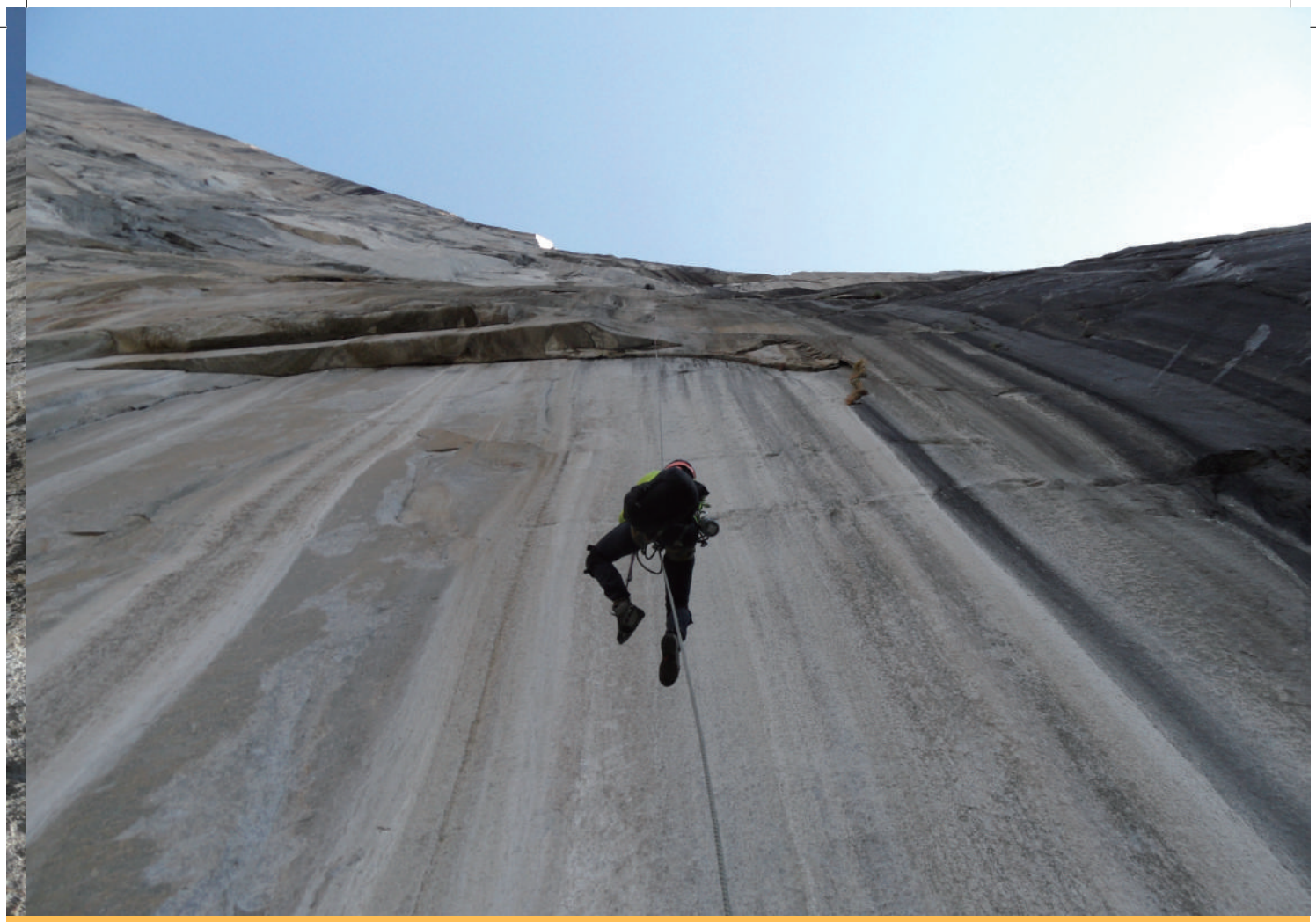
3피치 문석민 등반대장 등반, 스카이훅 연속 두번 쓰는 구간은 공포가 엄습한다.
12피치에서 강민준 대원이 스카이훅을 연속 4번 썼다

3피치 데포후 밤이 되서야 하강. 렌턴을 바닥에 두고와서 고생했던 아픈기억.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장비중 하나 렌턴!



체력보충을 위해 하루 예비일을 가져본다. 캠프장 바로 옆 볼더링 바위, 멋진 커플들이다





드디어 3피치까지 저깅 시작

앨캡 여신에게 키스하는 강민준 대원





4피치 초입 선등하는 강민준 대원. 난이도 5.7이지만 체감 난이도 5.11

Zodiac

Zodiac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막영하라, 여차 싶으면 새벽까지 등반하게 된다. 과감히 막영하라



첫날밤, 일찍 막영하니 여유가 있다. 등반 속도가 너무 느려 걱정이 되었다



5피치 어제 하강지점까지 저강하는 문석민 등반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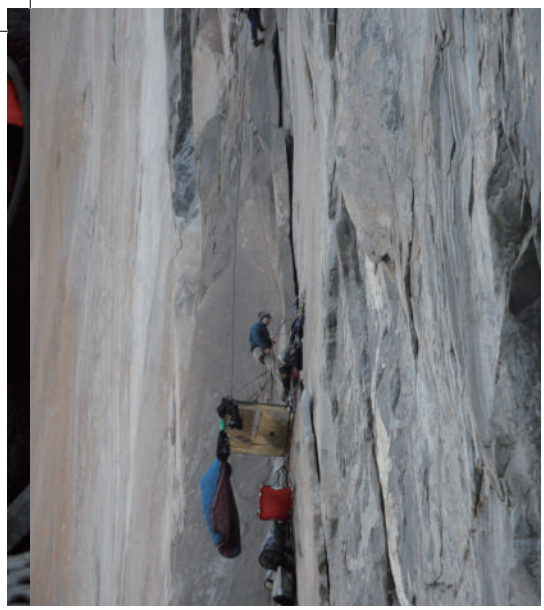


피치 시작점과 종료지점에서만 만날수 있다. 무지 반갑다



그 유명한 조디악 블랙타워 초입, 쉬워보이지만 자유등반 엄두가 절대 나지 않는다





익스트림라이더팀. 평균연령 약 50세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넘친다



7피치 이후로는 하산 불능. 올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시점



마크오브조로 구간, 대천장이라 장비 회수 때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트래버스는 필수



홀백, 조디악은 전 구간이 오버행이라 홀링이 노즈에 비하면 아주 쉬우며, 회수자가 오르기 전에 홀링이 끝난다.



오랜만에 만난 넓은 테라스. 이 좁은 공간에서도 무지 행복하다. 7피치에서 11피치까진 테라스 전혀 없다



당초 3박 4일로 예상했지만 벽상에서 5박, 정상에서 1박, 총 6박 7일이 걸렸다



안선희 회원(42기)이 후원해준 알파미, 정말 딱이다. 조리하기가 간편하고 아주 잘 먹힌다



장비는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사야한다. 어려운 부분에서 꼭 한몫은 한다



우리를 바짝 추격하는 외국팀, 여기서 슬립을 먹는다

14피치 초입, 정상을 한피치 남겨둔 구간



p. 48 하산로 부연 설명 사진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눈물이 날려고 하지만 서로 애써 참는 모습이 안쓰러워 말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다.
후배들에게 쓴 엽서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 달라는 강민준 대원

The Nose

출국 전 공항에서 촬영



저 멀리 하프돔이 보인다. 사진상으로는 작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크다





엘캡의 The Nose. 밑에서 보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막상 붙어보면 거리가 좁혀지지 않음

그늘이 있어서 아직은 얼굴에 웃음이 남아있다



작렬하는 태양 아래 문석민 등반대장과 강민준 대원,
이날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8도, 엄청난 갈증을 느낀 하루였다



The Nose



4피치를 향해 등반중인 문석민 등반대장



즐겁게 홀링중인 강민준 대원



4피치를 향해 주마 등반 중인 강민준 대원



1피치에서 만난
외국인 노장
클라이머



4피치에 몰린
수많은 등반팀의
자일

8피치 포타렛지에서 맞이하는 아침(임도균 등반대장)



눈물의 후퇴 중인 문석민 등반대장



Special Thanks to



박상규(전남대학교OB산악회 미주지회) 회원 가족



류호성(전남대학교OB산악회 미주지회) 회원 가족



박상규 회원과 류호성 회원 가족



왼쪽부터 류하린, 류해빈, 류환

정상등정 후 Camp4에서 박상규 회원과 함께



조디악 등반하러 가기전에 류호성 회원과 함께



축 사



55년 역사의 전남대학교산악회가 1,000m에 이르는 요세미티 대암벽 도전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획을 긋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의 준비와 고된 훈련 끝에 우리 모두의 꿈인 요세미티 정상에 올랐습니다. 순수하게 선후배들의 후원금과 대원들의 분담금이라는 우리의 힘만으로 원정대를 꾸리겠다는 쉽지 않은 과정과 힘든 훈련을 거쳐서 우리의 꿈을 성취했기에 더욱 더 알차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OB회원 2명과 더불어 재학생이 포함되어 더욱 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행위였습니다. 많은 준비와 훈련을 했음에도 조디악은 쉽지 않은 루트였습니다. 4박5일 계획했던 등반이 2일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이틀 분의 식량이 부족해 악전고투를 했지만 많은 회원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등반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톰 아저씨의 홈페이지를 통해 등반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슴 졸이며 응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요세미티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앞으로 전남대학교산악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을 보여준 쾌거입니다. 이번 원정에서 얻어진 값진 경험과 성장을 바탕으로 고산 거벽등반의 꿈을 이루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학산악회의 침체기를 뚫고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선구자적인 등반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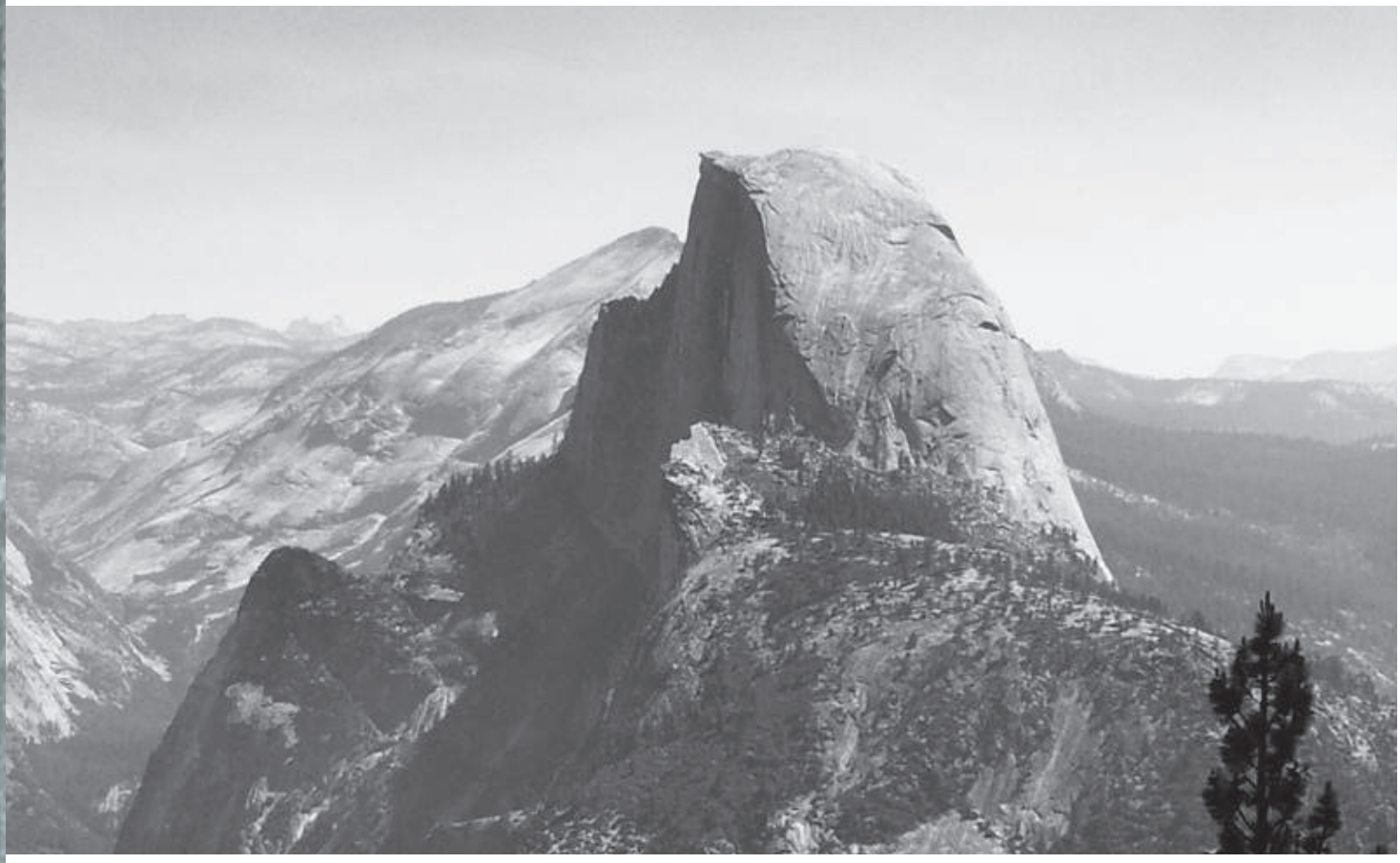
이번 등반을 위해 헌신하신 회원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지면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산악회 OB회장
오 성 개



1

원정 추진 및 준비



2013년 전남대학교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1-1. 원정 추진배경 및 경과

연 도	월	구 분	비 고
2012	8월	임도균(39기), 문석민(42기) 요세미티 원정 의기투합	
	10월~11월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 교육 수료(5주)	
	12월	강민준(53기), 김수룡(56기) 원정대 참여	
	12. 8	1차 훈련(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등), 무등산 선비바위	
	12. 15~16	2차 훈련(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등), 무등산 선비바위	
2013	1. 5~1. 6	3차 훈련(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등), 구례 용서폭	
	2. 1	OB정기총회 – 2013년 OB산악회 정식 사업계획 확정	
	3. 4	제2차운영위원회의 – 지원방향, 지원금 금액 등 확정	
	3. 2~3. 3	4차 훈련(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등), 영암 월출산	
	3. 16	5차 훈련(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등), 무등산 선비바위	
	4. 13~14	7차 훈련(신입생 환영등반), 영암 월출산	
	5. 4~5. 5	8차 훈련(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등), 무등산 선비바위	
	5. 16~5. 19	9차 훈련(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등), 설악산	
	5. 31	발대식(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2호관 1층 레드룸 대강의실)	
	6. 3	최종 점검모임(장비점검 등)	
	6. 5	출국(임도균, 문석민, 강민준)	
	9월	보고서 편집	
	10월	보고서 발간 및 발송	

1-2. 훈련일지

■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 수료**

일 시	2012. 10. 27. ~ 11. 24.(5주간 매주 토, 일요일)
장 소	도봉산 부엉이바위, 덕정리 채석장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박지순
훈련내용	● 인공등반 선, 후등법 ● 등반기술(펜들럼 등) ● 홀링기술, 포타렛지 설치 ● 멀티피치 등반 등



수료식 후(左로부터 임도균, 문석민, 박지순)



지금은 훈련중(등반자–임도균)



등반중인 박지순 회원(44기)

■ **제1차 훈련**

일 시	2012. 12. 8. (토)
장 소	무등산 선비바위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박지순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원정등반에 대한 회의 등



눈 쌓인 도로에서(左 임도균, 右 문석민)



등반중인 박지순



등반자-박지순, 확보자-문석민 등반대장



장비 정리중인 박지순

■ 제2차 훈련

일 시	2012. 12. 15. (토) ~ 16. (일)
장 소	무등산 선비바위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박지순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원정등반에 대한 회의 등



등반시스템에 대한 논의



문석민 등반대장



등반자(임도균), 확보자(박지순)

■ 제3차 훈련

일 시	2013. 1. 5. (토) ~ 1. 6. (일)
장 소	전남 구례군 용서폭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박지순, 강민준, 김수룡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홀링 시스템 설치 및 연습



용서폭에서 단체사진



하강중인 임도균 원정대장, 강민준 대원



등반자-강민준, 박지순 확보자-임도균, 김수룡

■ **제4차 훈련**

일 시	2013. 3. 2. (토) ~ 3. 3. (일)
장 소	● 3. 2. (토) : 영암 월출산 매봉 일원 ● 3. 3. (일) : 광주 무등산 선비바위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강민준, 박지영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홀링 시스템 설치 및 연습



확보지점에서(강민준, 박지영)



선등준비 중인 강민준 대원



주마링 훈련 중인 박지영 회원(53기)

■ 제5차 훈련

일 시	2013. 3. 16. (토)
장 소	무등산 선비바위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홀링 시스템 설치 및 연습



등반중인 문석민 등반대장



우리는 형제(문석민, 강민준)



등반자–강민준, 확보자–문석민



등반중인 강민준 대원

■ 제6차 훈련

일 시	2013. 3. 23. (토) ~ 24. (일)
장 소	무등산 선비바위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구철수(우암산악회)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홀링 시스템 설치 및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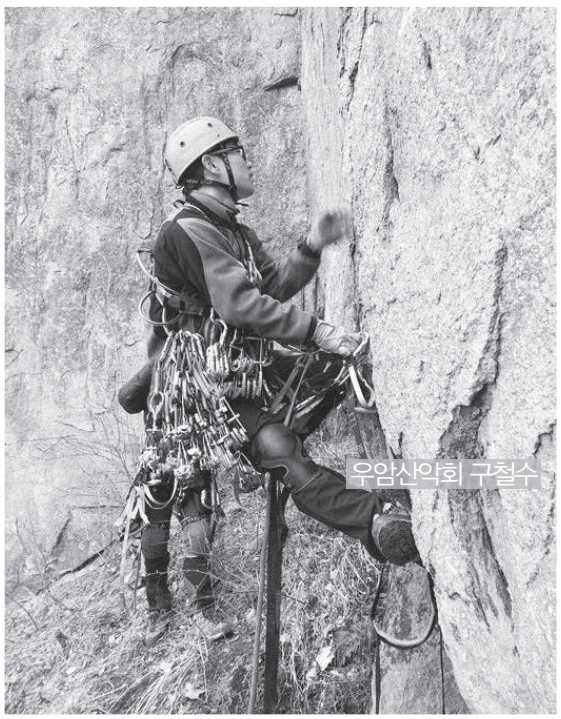
포타렛지 위에서(임도균, 문석민)



고생하는 문석민 등반대장



등반중인 임도균 원정대장



■ **제7차 훈련**

일 시	2013. 4. 13. (토) ~ 14. (일)
장 소	영암 월출산 매봉 일원
참 석 자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홀링 시스템 설치 및 연습 ※ 특기사항 : 신입생환영등반 겸해서 실시



신입생 환영등반 단체사진



매봉 등반중인 문석민 등반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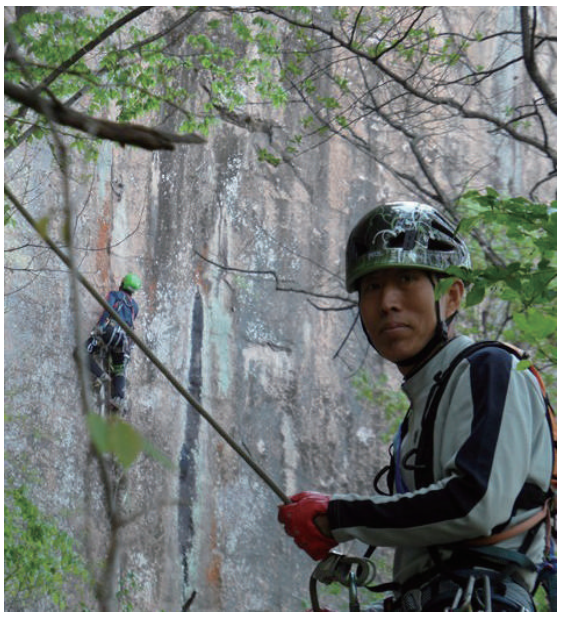
시루봉 정상에서(문석민, 강민준)

■ 제8차 훈련

일 시	2013. 5. 4. (토) ~ 5. (일)
장 소	무등산 선비바위 일원
참 석 자	오성개(OB산악회 회장), 임도균(원정대장), 김가영,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윤상화, 김수룡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홀링 시스템 설치 및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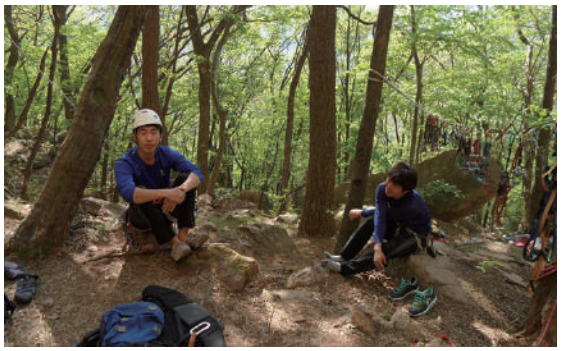


포타렛지 위에서(左부터 강민준, 문석민, 임도균)





확보중인 김가영 회원(46기)



위–오성개 전남대학교OB산악회 회장님
아래–윤상화 회원(55기, 왼쪽), 김수룡 회원(56기, 오른쪽)

■ 제9차 훈련

일 시	2013. 5. 16. (목) ~ 19. (일)
장 소	설악산 적벽 일원, 삼형제봉
참 석 자	오성개(OB산악회 회장),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구철수(우암산악회)
훈련내용	● 장비설치 및 등반훈련 ● 후등자 장비회수 및 주마링 훈련 ● 홀링 시스템 설치 및 연습



설악산 적벽에서



적벽 크로니길 확보지점에서(오성개, 구철수)



삼형제봉에서(오성개, 문석민, 임도균)



오성개 전남대학교OB산악회 회장님, 문석민 등반대장

1-3. 발대식

일 시	2013. 5. 31. (금) 19:00	사 회 : 김영필
장 소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2호관 1층 레드룸 대강의실	
참 석 자	■ 대 원 :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 조선대학교 산악회OB : 서상진 ■ 혜초여행사 : 정오승 ■ 전남대학교 OB산악회 – 제갈호일, 송희태, 김인주, 오성개, 장 희, 박 현, 이은수, 윤성룡, 강미라, 정숭룡, 한규성, 백두인, 박헌주(박찬솔), 김영필, 김태중(지도교수) ■ 재학생 : 이재국, 심우담, 윤상화, 박성향, 박두리, 이나원, 윤장환, 이선우	
식 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내외빈소개 4. 격려사 : 제갈호일(전남대학교 OB산악회), 오성개(OB산악회 회장), 박 현(서울지회OB산악회 회장) 5. 인사말 및 대원소개 : 임도균(원정대장) 6. 원정개요 소개 : 임도균(원정대장) 8. 꽃다발 및 격려금 전달 9.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발대식 후 기념촬영

2
원정개요



2013년 전남대학교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2-1. 원정결과

1. 명　　칭 : 2013년 전남대학교산악회 Yosemite 원정대

2. 대 상 지 : Yosemite El capitan

– The Nose(**더노즈**) V1 5.10 A2, 등반길이 1,040m(34피치)

– Zodiac(**조디악**) V1 5.7 A2 or C3F 등반길이 593m(16피치)

3. 원정기간 : 2013. 6. 5. ~ 6. 29. (25일간)

4. 원정대원 : 임도균(원정대장),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원정대장 | **임도균(95학번, 39기)**

- 1995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하계 및 동계 장기등반 4회
- 2013년 Yosemite 원정
- 전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사무국장

現 ■ 전남대학교OB산악회 부총무
■ 광주광역시청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등반대장 · 장비 | **문석민(05학번, 49기)**

- 2005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하계 및 동계 장기등반 4회
- 2008년 전남대 가셔브룸 Ⅰ, Ⅱ 등반
- 2013년 Yosemite Zodiac 등정



촬영 · 행정 | **강민준(09학번, 53기)**

- 2009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입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
  하계 및 동계 장기등반 2회
- 2013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1위
- 2013 Yosemite Zodiac 등정

現 ■ 전남대학교 산악회 2013년도 회장
■ 전남대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재학

5. 등반목적

– 거벽등반을 통한 등반기술 및 능력 향상

– 고산거벽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 축적

– 도전과 모험정신 고취

6. 등반결과 : 현지시각 2013. 6. 25. 11:30 문석민(등반대장), 강민준 대원 Zodiac 등정 성공

2-2. 운행결과

일 자	일 차	일 정	비 고
6/5	1일	출국(인천공항)	
6/6	2일	샌프란시스코 도착, 요세미테밸리 도착	
6/7	3일	캠프설치, 짐정리, 식량(식수), 장비 등 포장	
6/8	4일	The Nose 1피치 완료지점에 데포 후 철수	
6/9	5일	The Nose 4피치 완료지점에 데포 후 철수	
6/10	6일	휴식	
6/11	7일	The Nose 6피치 완료지점에 데포 후 철수	
6/12	8일	The Nose 4피치 완료지점에 데포 후 철수	
6/13	9일	The Nose 9피치에서 비박	
6/14	10일	The Nose 10피치에서 하산 결정	
6/15	11일	캠프사이트 재배정 및 장비점검, 휴식	
6/16	12일	Zodiac 출발점에 장비, 식수 등 데포	
6/17	13일	Zodiac 3피치 등반 및 홀링	
6/18	14일	휴식	임도균 원정대장 귀국
6/19	15일	박상규, 류호성 미주지회 회원과 상봉	
6/20	16일	Zodiac 4, 5피치 등반	
6/21	17일	Zodiac 6, 7피치 등반	
6/22	18일	Zodiac 8, 9피치 등반	
6/23	19일	Zodiac 10, 11피치 등반	
6/24	20일	Zodiac 12, 13피치 등반	
6/25	21일	Zodiac 14, 15, 16피치 등반	
6/26	22일	하산 및 휴식	
6/27	23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광	
6/28	24일	샌프란시스코 출국	
6/29	25일	인천공항 도착	

2-3. Yosemite 국립공원 개요

* 한국에서는 로스엔젤레스(LA) 공항을 통해서 오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SF)를 통해서 오는 것이 거리상 훨씬 가깝다. LA에서 요세미테 국립공원 까지 자가용으로는 대략 7시간정도(497.6km)가 소요되고, SF에서는 대략 4시간정도(307.2km)가 소요된다.

샌프란시스코 동쪽으로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1,000피트의 폭포와 웅장한 바위, 울창한 삼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연간 4백만명 관광객이 요세미티의 대자연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1851년 인디언 투사들이 요세미티에 도착한 후, 요세미티의 대자연 풍경에 감탄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후 한 작가는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요세미티의 대자연을 내 눈으로 보았을 때, 내 눈에는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고 자신의 존재를 채워주는 것 같다고…"

요세미티는 다양한 야생생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질 무렵에는 야생동물이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슴은 초원지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특히 야생곰과 고요테는 숲속이나 초원에서 사람을 피해 생활하고 있어 발견하기 쉽지는 않다. 그리고, 요세미티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을 하는 행위, 꽃을 꺾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차량운전자는 지정된 도로 외는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의 등뼈라 할 수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중간에 위치한 1,200 제곱 마일의 수려한 땅이다. 약 1백50만년 전 빙하에 의해 화강암의 약한 부분들이 깍이면서 형성된 거대한 조각품 같은 바위가 공원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특히, 엘케피탄(Elcapitan, 1,095m)은 세계 최대 높이의 수직으로 솟아 있는 바위로써 빙하침식에 깍여 나간 바위표면은 차돌처럼 미끄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암벽등반 루트 중 대표적인 루트로는 노즈를 비롯해 조디악, 사라테월, 트리플 다이렉트,로스트 인 아메리카, 탠저린 드립, 레티슨트월 등등이 있다. 그리고 요즘은 몇 몇 코스는 인공등반이 아닌 전코스의 프리화가 시도되고 있다.

신은 "요세미티라는 예술품 만들기를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다. 지나온 시간처럼 수십, 수백만 년이 또 지났을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무튼, 우리는 오늘 신의 예술품을 바라보며 함께 존재한다는 행운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요세미티는 웅장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높은 산과 폭포와 거목, 우거진 숲과 초원, 사방에서 들리는 새 소리와 물 소리, 잡힐 듯 낮게 깔린 구름 모두 웅장하고 아름답다.

또한, 요세미티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조화가 특징이다. 튀는 것이 있다면 단지 단일 화강암 바위로는 지상에서 제일 큰 거대한 암벽이 있다는 것과 천혜의 요새라 생각했던 이 계곡에 갇혀 인디언들이 전멸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정도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많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이 요세미티를 특히 아끼고 사랑한다. 그 중에는 요세미티를 아예 신앙처럼 우러르는 사람까지 있다. 정부는 물론 요세미티를 아끼는 민간 단체의 보살핌이 극성스러울 만큼 세심하다.

요세미티에는 거대한 바위와 거대한 폭포, 거대한 나무가 있다. 크게 구분한다면 빌리지와 앨 캐피탄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 지역인 요세미티 밸리, 만년설의 고원 지대인 투얼룸 매도우(Tuolumne

Meadow), 수령 2천년 이상의 거목들이 즐비한 남쪽의 마리포사 지역 등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다. 거의 모든 방문객들이 요세미티 밸리를 중심으로 돌아보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붐비는 시즌은 6월~8월까지이며, 한산한 때는 역시 겨울인 12월~2월이다.

요세미티에는 크고 작은 많은 폭포가 있고, 또 저마다 독특한 풍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이며, 세계에선 다섯 번째이다. 모두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윗 단이 1,430피트, 중간 폭포가 675피트, 맨 아랫단이 320피트이다. 이 높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홉 배에 해당한다.

매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눈 녹운 물과 빗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므로 이때 더욱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 들러 눈앞의 전경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왜 이곳을 '영감의 장소'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다. 겨울에 폭설로 인해 글레이서 포인트 길이 막힌다면 이 지점에서 요세미티 밸리의 경관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요세미티는 미국의 대자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장대한 규모와 아름다움은 대자연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켜 온 전설의 계곡은 방문객의 기대를 결코 져버리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예술적이다. 방문시기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그 장관을 보여주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여름 시즌인 6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여름 시즌에는 덥고 뜨거운 기후이며, 오후에는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자주 내리기도 한다.

5월과 6월에는 높은 지역에서 겨울 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흐르면서 요세미티 폭포는 장관을 이루며, 5월부터 요세미티는 백합을 비롯한 야생화들이 피기 시작한다.

10월부터 11월 가을에는 단풍을 물든 요세미티의 장관을 볼 수 있으나, 변화가 심한 날씨로 인해 관광객은 줄어드는 시점으로 요세미티 곳곳이 폭설로 인해 폐쇄 되기도 하고,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시즌 요세미티는 많은 눈과 관광객 발길이 뜸한 시즌이다.

요세미테의 날씨

요세미테는 지구상 거벽중에서 최고로 날씨가 좋으나 종종 강력한 태풍(storm)이 몰아치고는 한다. 등반중 최악의 날씨를 대비해 적절한 비박장비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요세미테를 등반하기 최적의 계절은 봄과 가을이다.

- 11월 15일~3월 : 비교적 등반자도 관광객도 많지 않다. 온화한 겨울중에는 1주~2주정도 아주 날씨가 좋다. 그러나, 겨울철 등반을 위해서는 최악의 악천후에 대비해야 한다. 1주 또는 그이상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올수 있다.
- 4월~5월 15일 : 등반자도 관광객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날씨가 좋을지 않좋을지는 반반씩이다. 습한 Pacific storm이 올수도 있다.
- 5월 16일~6월 : 날씨가 아주 좋아서 등반자도 관광객도 매우 많다.
- 7월~8월 : 관광객은 여전히 많지만 등반자는 많지 않다. 요세미테 계곡의 바닥은 온도가 32도~38도 정도지만 계곡으로부터 150m 이상되는 벽상의 온도는 항상 21도~27도 정도로 쾌적하다. 그러나, 등반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양의 물을 준비해야 한다.
- 9월~11월 15일 : 요세미테 계곡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벽은 클라이머들로 붐빈다. 대부분은 서늘한 날씨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덥기도 하다. 겨울철 폭풍우는 항상 10월 말에서 11월초에 불어온다.

※ 사무소(kisok) 벽면에서는 1주일의 날씨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요세미테 계곡의 강수량과 기온(최고/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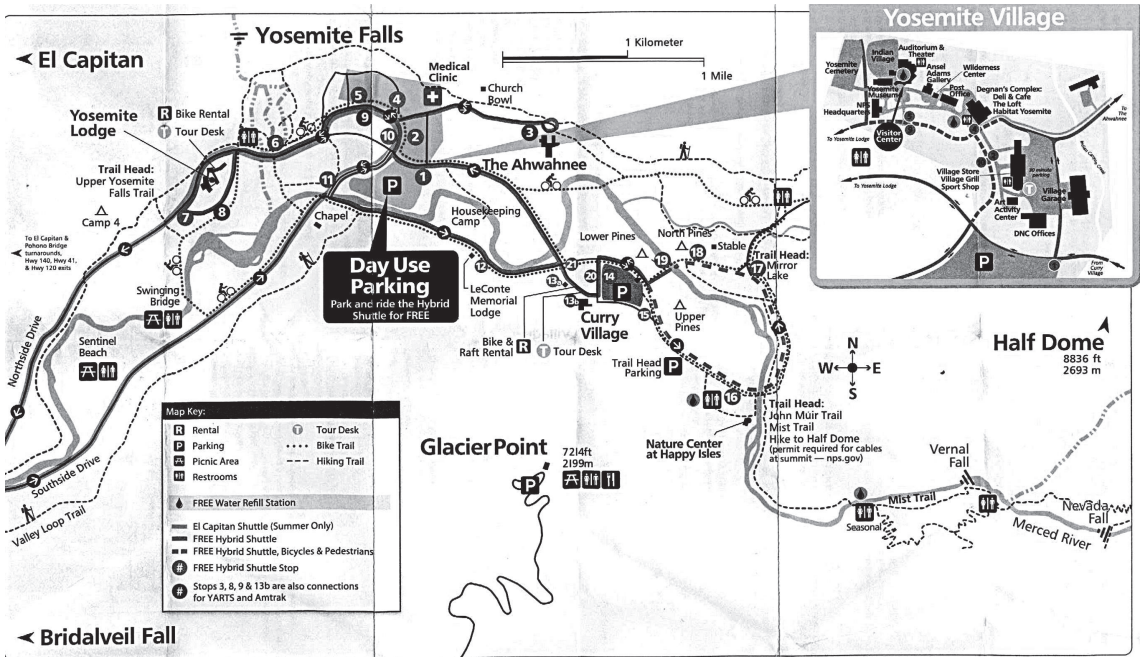
달	평균강수량(mm)	최고/최저 기온(℃)	달	평균강수량(mm)	최고/최저 기온(℃)
1월	157	9.4/–3.3	7월	10	32.2/12.2
2월	154	12.8/–2.2	8월	7	32.2/11.7
3월	132	15/–0.6	9월	22	30.6/8.3
4월	76	18.3/1.7	10월	53	23.3/3.9
5월	33	22.8/5.6	11월	139	14.4/–0.6
6월	17	27.8/8.9	12월	142	8.9/–3.3

우리가 등반했을때의 날씨(최고/최저℃)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34.4/11.7	36.1/15	38.3/15	40.0/9.4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35/17.2	26.7/16.1	31.1/11.7	32.8/11.7	31.7/8.9	30.6/11.1	32.2/10.6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31.1/11.7	32.2/12.2	28.9/12.2	26.7/7.2	29.4/10	30.0/9.4	32.8/10.0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27.2/11.7	16.7/12.8	25.0/13.3	33.3/11.1	37.2/13.3	38.3/16.1	40.0/18.9



Yosemite National Park 셔틀버스 안내도



■ Shuttle Bus : 아래 표 Shuttle Stop Key에서 보면 버스정류장 번호는 달라도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은 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맞은편 버스정류장이라 보면 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정류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셔틀버스(무료)


정류장 표시판

■ Camp4 야영장은 ⑦번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Camp4 야영장이 어디있는지 모르면 무조건 ⑦번 정류장을 찾으면 된다.

■ Shower는 ⑫번 Housekeeping Camp에서 할 수 있다. 1인당 5달러이며 수건은 무료로 지급된다. 샤워 룸 안에 옷이나 가방 등을 걸어놓을수 있고, 샴푸 등도 비치되어 있다. 빨래는 동전 투입 후 세탁기에 넣으면 된다.

■ ⑬번 Curry Village 내에는 등산장비점(Mountain Shop), 식료품점이 있으며 Wi-Fi(무료)가 된다.

■ ②,⑩번 Yosemite Village내의 상점에서도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	비 고	버스정류장	비 고
① Yosemite Village	Day Use Parking	⑫ LeConte/ Housekeeping Camp	LeConte Memorial, Seasonal Grocery, Landry Facilities & Shower
② Yosemite Village	Food Service, Gifts & Grocery. Sports Shop (등산장비점 아님)	⑬ a Recreation Rentals	Seasonal Bike & Raft Rentals Winter Ice Skating
③ The Ahwahnee	Lodging, Food Service, Gifts	⑬ **b Curry Village (* Wi-Fi됨)**	Lodging, Food Service, Gifts & Grocery Tour & Activity Desk, ATM **Mountain School (이곳이 등산장비점)**
④ Degnan's Deil	Food Service, Gifts & Grocery. Post Office Wilderness Permits	⑭ Curry Village Parking	
⑤ Valley Visitor Center	Visitor center, Museum, Gallery, Auditoriums	⑮ Upper Pines Campground	
⑥ Lower Yosemite Fall	Hiking	⑯ Happy Isles	Nature Center, Seasonal Food Service, Hiking
⑦ Yosemite Lodge at the Falls	Camp 4, Hiking	⑰ Mirror Lake Trailhead	Hiking(Dry in Summer)
⑧ Yosemite Lodge at the Falls	Lodging, Food Service, Gifts & Grocery Shopping, Tours, Bike Rentals, ATM	⑱ Stable	Trail Rides, North Pines Campground
⑨ Vally Visitor Center	Visitor center, Museum, Gallery, Auditoriums	⑲ Pines Campground	
⑩ Yosemite Village	Food Service, Gifts & Grocery. Sports Shop	⑳ Curry Village Parking	Lodging, Food Service, Gifts & Grocery Tour & Activity Desk, ATM **Mountain School (등산장비점)**
⑪ Sentinel Bridge	Views of Half Dome & Yosemite Falls, Closest Stop to Yosemite Chapel	㉑ Recreation Rentals	Seasonal Bike & Raft Rentals Winter Ice Skating

Camp4 Regulations

* 캠프사이트 예약은 할 수 없으며, 성수기(5월~10월)에는 캠프사이트를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사용료는 개인당 1일 5달러이다. 레인저는 관리사무소(kiosk)에 아침 8:30분에 출근하나, 캠프사이트를 잡기 위해 종종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으며,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캠프사이트를 잡기 전에 텐트사이트 배정이 끝나버린다. 관리사무소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등반파트너, 친구 또는 중고 등반장비를 구할 수 있다.

1. 각 구역에 6명을 배정하고 모든 사이트는 공유되며 캠핑은 지정된 장소에서 허락됨.
오직 등록된 캠퍼들만 장비와 음식을 보관할수 있음, 텐트와 홀백에는 반드시 레인저가 볼수 있게끔 태그를 부착해놔야 한다.
* 정해진 구역외에서의 캠핑에는 75달러에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벽 밑이나 정상에서의 캠핑도 불법이다.

2.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최소한 하루전에 재등록해야 하며 텐트에 부착했던 태그와, 영수증 그리고 차량허가증(car pass)을 가지고 사무소(kiosk)에서 와서 재등록 해야함

3. 요세미테 벨리에서는 여름시즌(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에는 단지 7일간만 캠핑이 허용되고, 1년에는 총 30일만 허용된다

4. 음식은 반드시 하루 24시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음식, 음료수, 아이스박스, 세면도구(비누, 치약 등)는 각 사이트에 배치된 철제박스에 넣어둬야 한다. 이런 물건들(먹을거리, 세면도구 등)은 차에 놓아두지 마라!
식사후에는 즉시 설거지를 해라(텐트 사이트에서 설거지통을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지마라). 쓰레기를 텐트싸이트에 놔두지 말고 화장실(텐트싸이트 7과9)앞에 있는 쓰레기통과 재활용통에 버려라.
* 차 안에는 먹을거리나 쓰레기를 놓아두면 안된다. 만약, 곰이 당신의 차를 부수면 차량은 몰수될 뿐만아니라 벌금이 부과된다. 곰은 맥주를 좋아한다. (곰은 차안에 있는 껌한조각이나 빈 사이다캔만으로도 차를 부수기도 한다.) 곰은 배가고프며, 똑똑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5. camp4 안의 캠프싸이트에는 차량은 들어올수 없다.차량허가증(car pass)을 잘 보일수 있게 차량 앞유리쪽에 항상 배치해라. 차량허가증이 있는 등록된 캠퍼들만 camp4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 캠프4에서 차량허가증(car-pass)없이 주차해 놓으면 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레인저들은 종종 이것을 체크한다. 또한, 차량에서 잠을 자서는 안되며 적발시에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6. 캠프파이어는 5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저녁 5시부터 저녁 10시사이에 허용된다. 요세미티 벨리의 바닥에 있는 나무, 솔방울, 또는 솔잎을 모으는 것은 금지된다. 장작은 요세미티 벨리 외부에서 구입해야 한다.(요세미티 벨리 내의 상점에서 판매중).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피워놓지 마라.- 물로 완전히 불을 꺼라.

7. 땅을 파는 것은 금지된다. 나무에 상처를 줘서는 안되고, 해먹, 슬렉라인(줄타기)을 설치할때는 나무에 패드를 대고 설치하여야 한다. 사이트 철거전에 모든 로프를 제거하라.

8. 애완동물은 camp4에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9.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는 방문객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은 낮 12시이다. 다음 사용자를 위해 사이트를 깨끗하게 남겨둬라. 당신이 떠날 때 철제박스와 사이트에 있는 모든 물품을 치워라. 남겨진 물품은 임의처분 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등반을 위한 유용한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1. 긴급전화 911

2. 요세미테 암벽등반 정보와 규제내용

   www.nps.gov/yose/planyourvisit/climbing.htm or call 209/372-0360

3. 암벽등반 루트 최근 정보

   www.supertopo.com/climbingareas.html

4. Supertopo 클라이머 포럼

   www.supertopo.com/climbing/forum.html

5. 요세미테 날씨, 웹캠, 최근 상황

   www.nps.gov/yose/planyourvisit/conditions.htm

6. 요세미테 도로 상황

   call 209/372-0200(press 1, then 1)

7. 캠핑정보

   www.nps.gov/yose/planyourvisit/camping.htm

8. 캠핑예약

   www.recreation.gov

* 참고로, Camp4 야영장은 예약이 안되고, 현장에서 줄서는 순서대로 텐트사이트 배정

Zodic 소개

조디악 코스는 홀링이 쉽고, 어프로치가 간단해서 인공등반을 하기위한 엘켑을 찾는 많은 클라이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대상지로 인기가 있는 코스이다.

기술적인 난이도는 The Nose나 Lurking Fear보다는 훨씬 어렵지만, 16피치여서 좀 덜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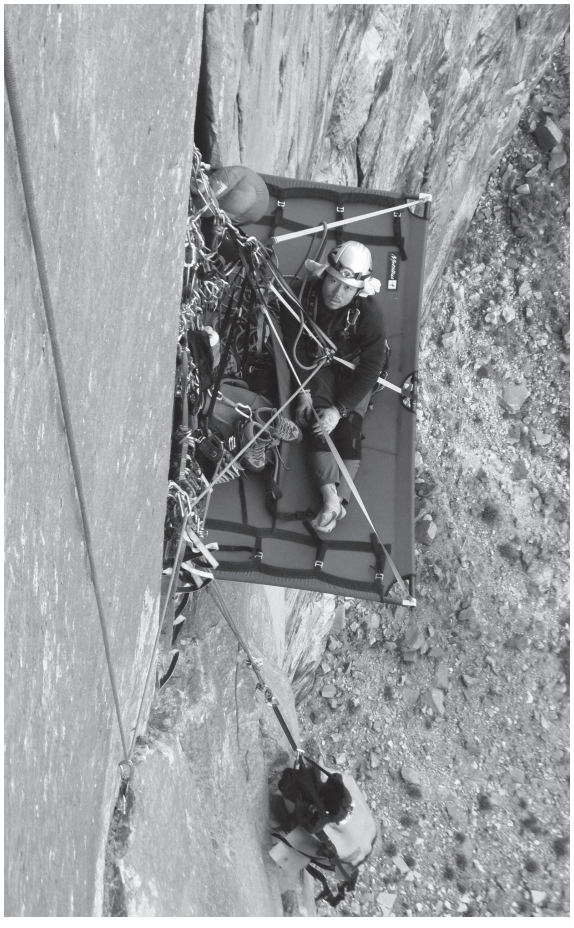
5월부터 9월사이에는 Zodiac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틀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대부분 등반팀은 첫날은 3피치까지 로프를 픽스시킨 후 3일정도(7, 10, 13피치)를 벽상에서 보낸다. 모든 확보지점에는 많은 볼트가 박혀있고, 최소한 2개의 포타렛지를 설치할 수 있다.

Zodiac은 빗물에 노출될수 있는 처음 네피치와 마지막 세피치를 제외하고는 악천우나 비바람을 피할수 있다. 8,9,10,13피치에는 좋은 피신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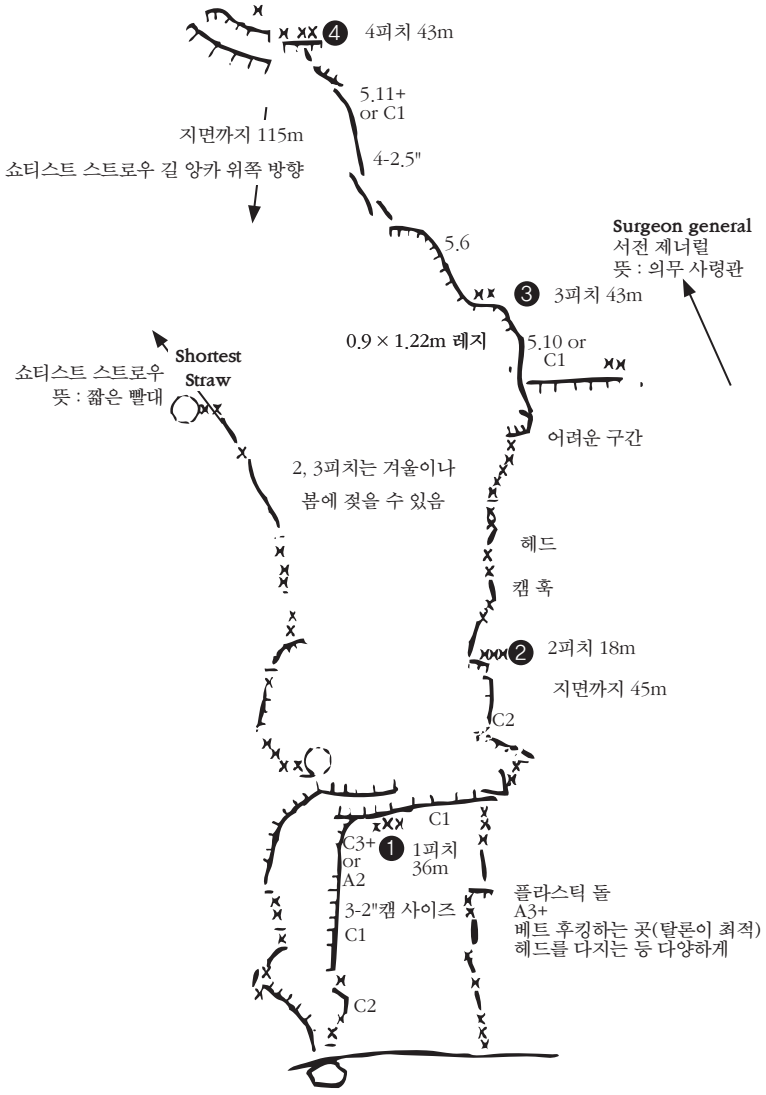
겨울이나 이른봄에는 해가 뜰때부터 오전 10시까지 벽상에서 물이 떨어진다. 10시이후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물이 동쪽으로 날린다.

10피치에서 13피치는 약간의 down-aiding이 요구된다. 로프가 심하게 꺽이는 부분이 많으니 하강 후 로프꺽임을 풀어준후 등반을 해야한다. 4피치에서 3개의 50미터 로프로 바닥까지 하강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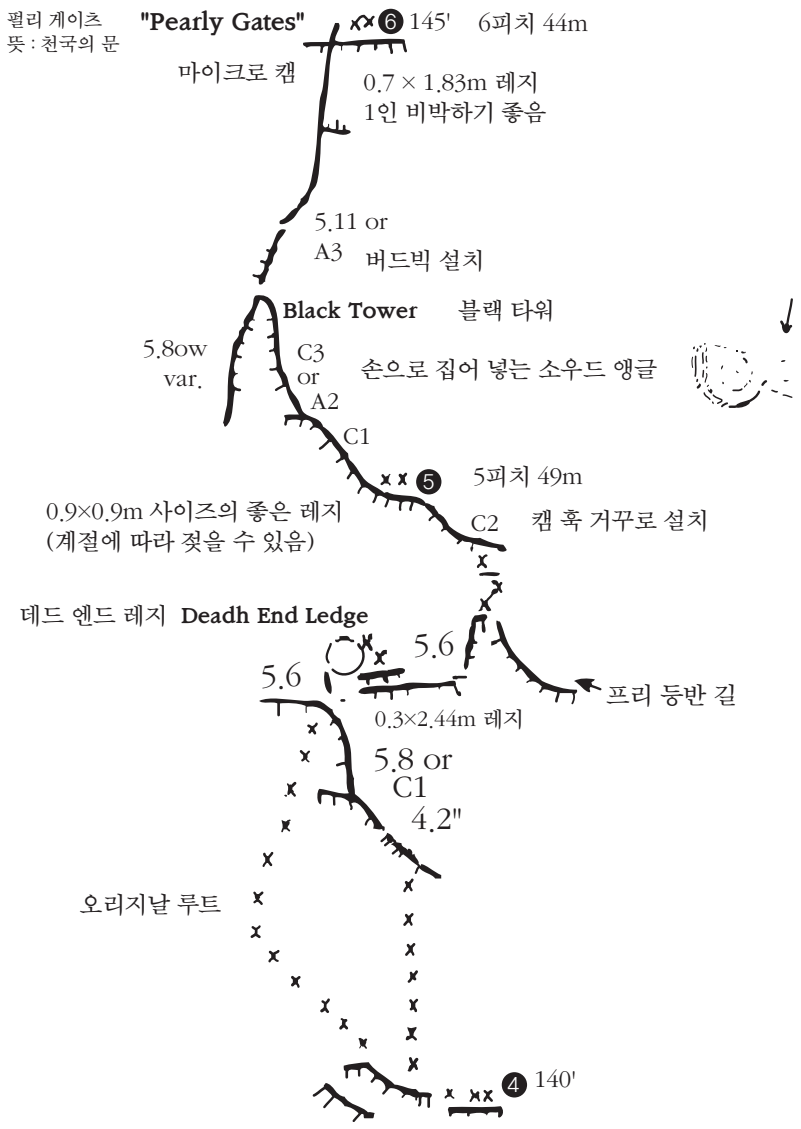


2-4. Zodiac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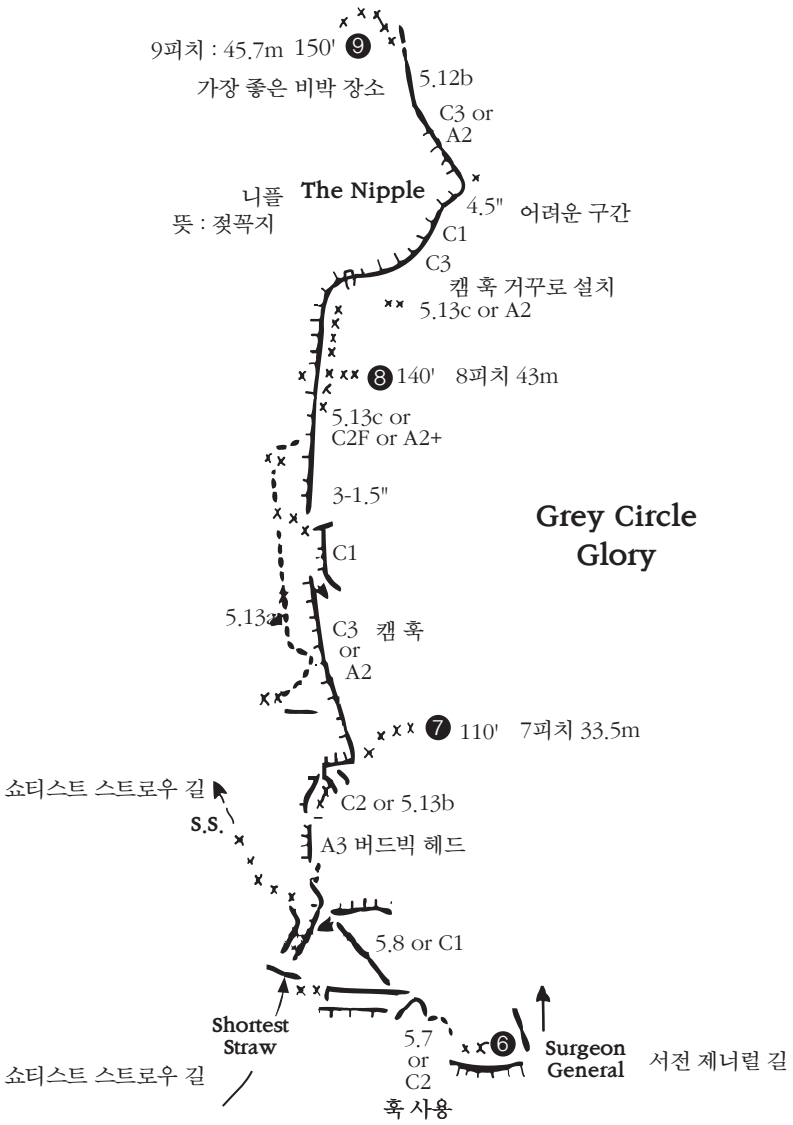
피치	길이	난이도	홀링	숙박	등반제원 및 참조 사항
1	36m	C3+	2피치 홀링		–하단부(헤드, 리벳, 훅, 탈론) –중상단(소형캠, 마이크로캠–난이도 중급) –스틸너트 2, 스토커 1호 2호, 로우볼
2	18m	C2+			
3	43m	A2+	3피치 홀링		Deadh Bird Ledge –하단은 캠훅, 마이크로너트 등 사용 –중단은 리벳, 헤드, 스카이 훅 트래버스 –상단은 C1정도의 쉬운 크랙(1~3호 캠) (어려운 구간→캠훅+훅 or 치터스틱 사용)
4	43m	A3+	4피치 홀링	하산 캠프 숙박	시작 부분은 자유등반 가능(물기 조심) .6~2.5 캠들과 작은 사이즈 캠 많이 사용 루트가 좌측사선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홀백 뛰을 때 주의 요망

※ 출처 : 익스트림라이더 31기 3.1만세팀(엄태홍, 장천달, 정옥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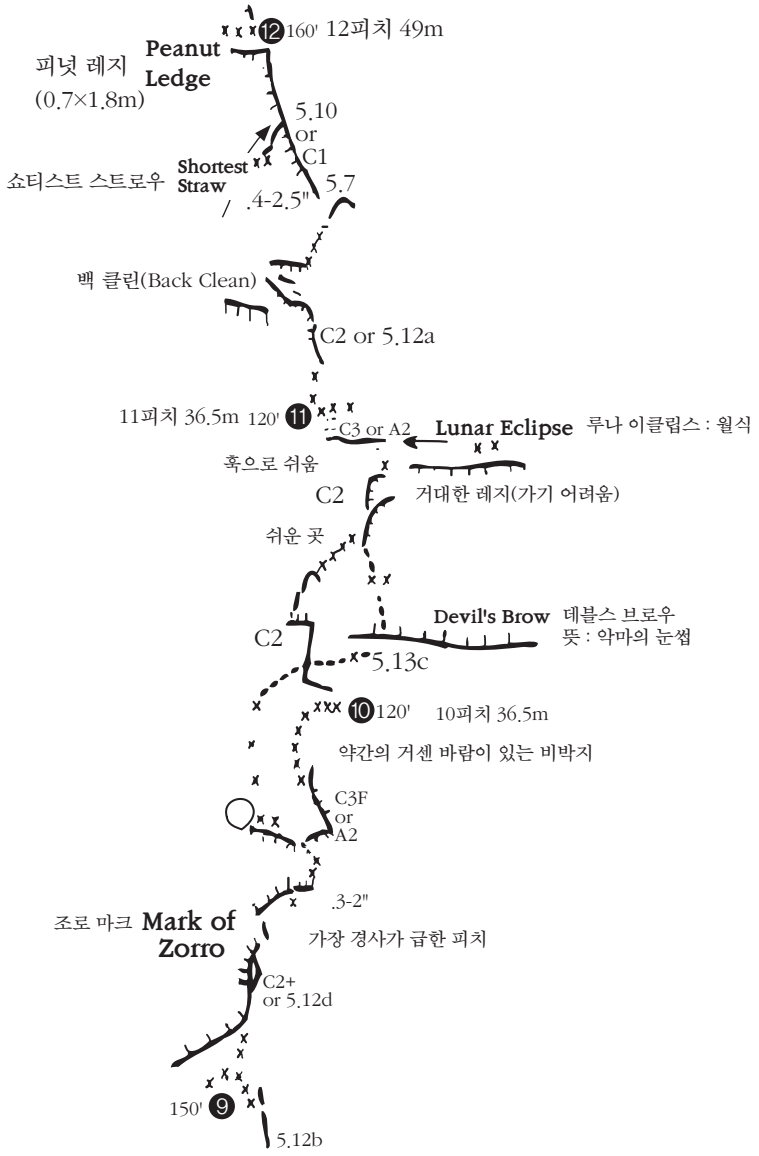
피치		길이	난이도	홀링	숙박	등반제원 및 참조 사항
5	5	27m	A3			Dead End Ledge 시작점에서 피쉬훅 사용, 몇 동작 트레버스 후 15미터 볼트길 직상 후 사선크랙 15미터(볼트 거리 김)
6		22m	A3+ 5.10	5피치 홀링		전 코스 통털어 가장 짧은 피치 중간쯤 캠 훅을 거꾸로 사용하면서 사선크랙으로 진입(테라스 좋음)
7	6	44m	A3	6피치 홀링 (트레버스)	1일차 숙박	Black Tower(중간) 셔우드앵글이 사용. 상단 마이크로 너트, 버드빅 사용(기본 캠은 다 사용), 5.8OW(덧장바위) 꺽이는 곳 백 크린(로프유통 신경) 테라스 좋음(이후 13피치까지 테라스 없음. 빌레이시트 필수)

※ 출처 : 익스트림라이더 31기 3.1만세팀(엄태홍, 장천달, 정옥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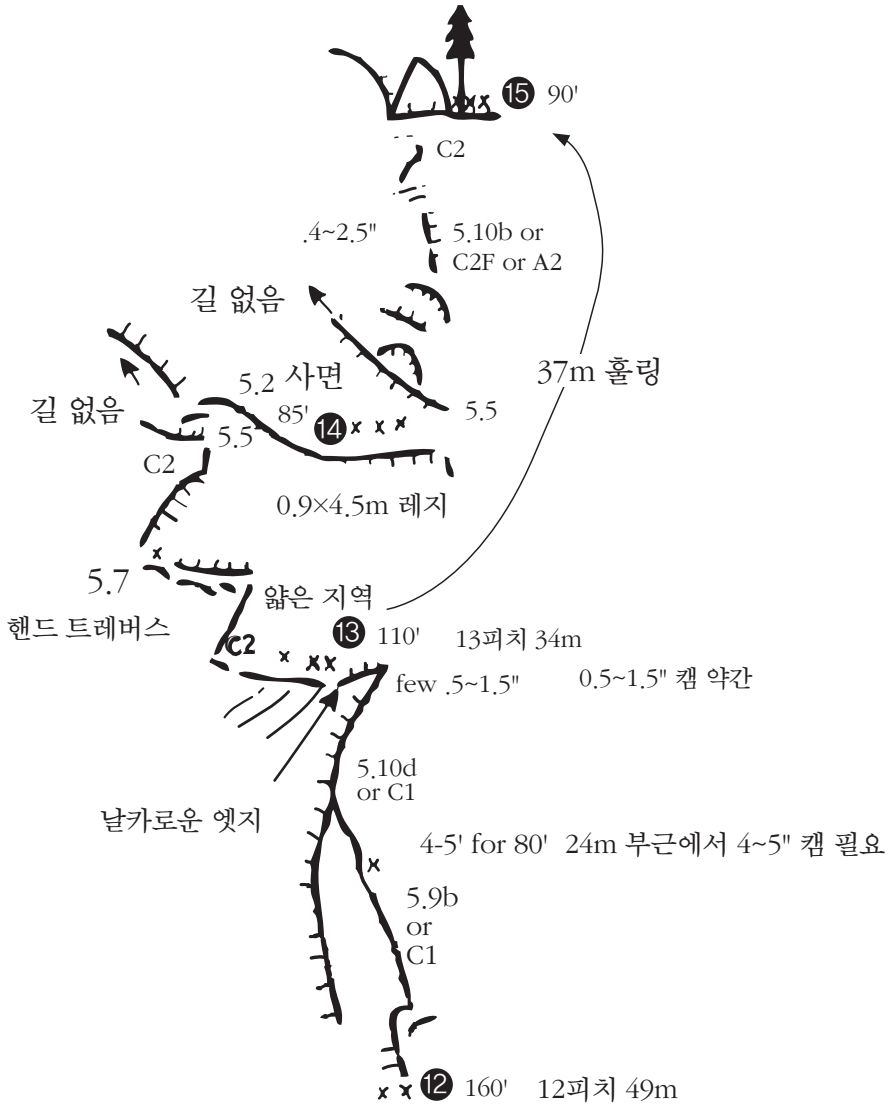
피치		길이	난이도	홀링	숙박	등반제원 및 참조 사항
8	7	34m	A4	7피치 홀링		Great Circle 너트, 헤드, 기본 캠(나이프 하켄, 러프, 마이크로 너트, 리벳, 하켄, 로우볼이 사용됨), 7피치 오버행 이후 후퇴 불가능
9	8	43m	A3	8피치 홀링		가장 어렵다는 구간(A3) 작은 캠(.5~1호) 많이 사용, 캠 훅, 너트, 러프, 카퍼 헤드도 필요
10	9	46m	A3	9피치 홀링	2일차 숙박	The Nipple(비박장소 좋음) 볼트 몇 개 직상 후 언더크랙에 하켄 자리에 캠, 너트 설치가 용이치 않음 그 이후 꼭지부분에서 5~6호 캠을 교대로 밀면서 넘어가야 한다(슬링짧게)

※ 출처 : 익스트림라이더 31기 3.1만세팀(엄태홍, 장천달, 정옥렬)



피치		길이	난이도	훌링	숙박	등반제원 및 참조 사항
11	10	37m	A3	10피치 훌링		Mark of Zorro(중간) 좌측 다른 루트 주의, 볼트, 고정 확보물 많음. .5~2호 캠 필요, 로프 유통에 신경. 긴 슬링이 필요(주마 필수 준비)
12	11	37m	A3	11피치 훌링		Devil's Brow 나이프 하켄, 소형 캠 등, 자일 유통 신경
13	12	49m	A2	12피치 훌링	3일차 숙박	Peanut Ledge(테라스 좋음) 좌측 출발, 중간 스카이훅(2개), 상단 20m 크랙. .6~2호 캠 많이 필요, 백클린 필수(주마 필요)

※ 출처 : 익스트림라이더 31기 3.1만세팀(엄태홍, 장천달, 정옥렬)



피치		길이	난이도	홀링	숙박	등반제원 및 참조 사항
14	13	33m	A2	13피치 홀링		0.5~1.5호 캠 필요, 상단 크랙에 4~5호 캠을 번갈아 사용, 천장 넘으면 확보지점
15	14	30m	A2			캠 훅, 피쉬 훅. .5~2호 캠, 자일 유통이 어려움(지그재그). 솔로 등반 유리. 피치 마지막 종료지점은 우측 아래쪽(좌측 하켄 ×—길 주의) 훅 트레버스 있음
16	15	27m	C1	14~15피치 홀링	4일차 하산	.6~1.5호 캠. 마지막 피치~ 정상으로

※ 출처 : 익스트림라이더 31기 3.1만세팀(엄태홍, 장천달, 정옥렬)

Zodiac 등반 피치별 특징

– 개념도 좌향 우향 크랙이 거의 정확하게 개념도와 일치함.
  튀어나온 돌등 모양이 개념도와 거의 일치
– 볼트를 x로 표현 하는데 그 갯수가 거의 정확하고 오히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다.
  볼트는 행거가 없는 헤드볼트도 있다. 와이어행거 필수. 헤드가 작아서 두꺼운 와이어는 걸리지 않는 것도 다수 있어서 없다면 요세미티 장비점에서 구매하면 되고, 우리는 10개 정도 구매 했다.

■ 1, 2 피치

한번에 끊었으며 변형루트로 올랐다.
변형루르로 가기로 했으면 무조건 GO! 중간에 확보지점은 오리지널 루트쪽에… 저멀리 왼쪽에 있다. 변형루트는 볼트, 해드볼트, 고정 해드로 올라간다. 중간에 훅을 몇동작 쓴다. 스카이 훅만 사용했다. 중간에 해드볼트 간격이 너무 멀어서 30분 이상 버텼다. 프로그 까지 쓰면서 겨우 성공, 1단에 서도 도저히 안닿는다. 1피치 끝쯤 오버행 진입시에 고정 하켄이 있다. 하켄을 만나면 오른쪽으로 언더 크랙에 확보물 설치하면서 이동. 캠을 쓰고 이동하다 턱위에 볼트가 보인다. (!) 적당히 설치되면 중간에 확보물을 빼주는 백클린 필수! 엄청나게 꺽인다. 볼트 따라가면 2피치 테라스에 서고 왼쪽으로이동해서 보이는 크랙을 조금 오르면 바로 쓰리볼트가 나오며 2피치 등반종료. 비슷한 크기의 캠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 블랙다이아몬드 C4캠, 에일리언.
–백클린 신경안쓰고 막가다가 결국 캠 3개 설치하고 하강해서 백클린 하였음 미리 하면 좋다.

■ 3피치

볼트를 따라서 직상, 훅을 여러번 써야함. 볼트간격 멀고, 어려운구간이다

■ 4피치

왼쪽에 보이는 5.6난이도에 진입한다. 장비가 앞으로 쏠려서 끼고 난리가 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후랜드 설치 후 잡고 이동하는게 더 빠를거라 생각된다. 쉽지만 엄두가 잘안났다. 그구간을 지나면 바로 크랙이 이어진다. 크지 않은 크기의 캠을 설치하면서 등반. 에일리언 사용, 개념도와 같이 좌측으로 휘어진 크랙을 따라서 이동한다. 캐머룻 2,3호가 위쪽에서 쓰였던걸로 기억한다. 언더크랙이 살짝 보인다. 캠만 잘설치하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거 같다. 마지막 쓰리볼트를 발견하고 나서는 크랙이 살짝 끊기는 느낌이다. 쓰리볼트가 멀다. 손을 더듬어보니 홀드가 엄청나게 좋지만 발이 없어서 일어나기가 무섭다. 그래서 훅걸고 래더 밟고 일어나서 확보지점에 도착. 등반종료

■ 5. 6(5피치) 피치

한번에 끊었음, 변형 루트로 등반하였다.
4피치에서 왼쪽으로 보면 가까운쪽에 볼트, 조금더 멀리 볼트가 보인다. 가까운쪽 볼트만 보고 이동하면된다. 핸드 트래버스 할 정도의 테라스가 보인다. 스카이 훅을 3동작 정도 써야한다. 초반에 바로 슬

링이 있는 하켄이 하나 있는데 튼튼하다 믿고 이용. 스카이 훅이 대,중이 있는데 선택을 잘해서 써야 한다. 막쓰다 안맞는수가 있다. 실제로 그래서 한스탭 더못가고 프로그로 해결해야했다. 일어날 때 2단에 섰고 벽이 기울어져 있어서 다리로 일어나면 바로 볼트에 닿는다. 살떨린다 고도감. 딱 개념도 만큼의 볼트를 올라가면 언더 크랙이 이어진다. 블랙다이아 몬드 휘면서 아주 잘먹힌다. 왼쪽으로 가다가 턱 일어나면 테라스가 이어지고 볼트가 있다. 볼트에서 하강해서 백클린 해야한다. 안하면 자일 유통이 전혀안된다.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우측 크랙타고 올라간다. 여기서 블래이드 하켄 망치질 한번함. 그 위로 올라가서 가다보면 왼쪽 테라스에 쓰리볼트가 나온다. 역시 꺽인다 슬링을 길게해서 유통이 잘되게 만들어줘야한다. 등반종료 지점도 외국인 키에 맞춰서 그런지 확보줄 걸어도 발이뜨고 테라스에 발이 잘 안닿는다.

■ 7피치 (6피치)

유명한 블랙타워. 생각보다 얇은 바위가 뾰족하게 타워처럼 생겼다.
쉬운 왼쪽 슬랩으로 출발 래더 안쓰고 캠설치후 잡고 다른 캠설치하였음. 블랙타워는 큰 크랙이라 설치가 거의 어렵고 오른쪽에 마이크로 캠 설치하면서 이동하였다. 고정해드, 하켄이 한두개 있다. 캠설치가 잘안되서 고정 하켄을 만나야 마음이 편하다. 블랙타워 위에 올라서면 길게 슬링으로 감겨있어서 하나더 통과하였음. 그리고 바로 위쪽에 크랙이 이어지는데 고정 해드, 피쉬훅, 헤드 등이 박혀 있다. 작은캠을 밑에서 쓰면 고정 확보물 중간이 안이어져서 살벌할 수도 있다. 안썼지만 캠훅도 쓰면 빨라질거 같음. 개념도에서도 마이크로 너트 쓰라고 나옴. 생각보다 크랙이작음. 등반종료 쓰리볼트 나옴. 좋은 테라스를 만남 오른쪽 볼트하나가 쌩뚱맞게 오른쪽 높이 있음 짜증남. 포타렛지 치기로 하였으면 홀링 위치와 회수자 위치 고려 잘해야한다.

■ 8피치

여기 등반하면 탈출 불가
개념도가 완전 정확하다 초반에 크랙이 가있는 약간의 턱들을 넘어선다. 자유등반으로 엄청쉬워 보이지만 엄두가 잘안나서 인공등반. 개념도와 똑같이 넘어서면 왼쪽으로 사선크랙이 쭉이어진다. 언더 크랙. 블랙다이아몬드 C4캠 자주사용 휘어지는게 일품 장비를 아끼려면 스카이 훅으로 캠절약하는게 좋다. 계속 따라 올라가면 크랙 끝나는 지점에 고정해드볼트가 있음. 해드볼트를 이용해서 왼쪽에 크랙으로 진입한다. 어렵다. 볼너트만 2-3개를 썼다. 다른건 잘먹지 않는다. 원래 볼너트 잘믿지 못해서 무서웠다. 어려운 구간이다. 볼트 두 개가 나오고 타고 올라가면 언더 크랙에 하나를 설치 해야한다. 0호 아니면 00호를 써줘야 먹힌다. 그리고 나면 바로 오른쪽에 쓰리볼트 등반완료. 90도 발닿는곳 없다. 빌레이 시트 필수, 확보 볼때 곤욕이다.
-마이크로캠을 위쪽에서 꼭 쓸거 같았다. 그래서 고정 해드 나오니까 하강해서 회수하고 좀 빼왔다. 피쉬훅 쓰고나서 정리하다가 떨어뜨렸다. 조심해야겠다.

■ 9피치(8피치)

가장 어렵다는 구간이다. 실크랙 길기도 길다. 블래이드 하켄, 버드빅 사용. 크랙이 생각보다 얕아서

잘 박히지도 않음. 하켄자국이 있으나 잘안먹음. 역시나 캠을 좀 아낄필요가 있음. 실크랙 위쪽에는 고정해드 고정 피쉬훅이 있다. 그러나 중간중간 멀고 또 설치하자면 어렵다. 실크랙이 끝나면 당황하지말고 오른쪽 크랙으로 갈아탄다. 넘어갈 때 좀 무섭다. 비슷한 크기의 캠을 쓰면서 쭉 올라간다. 저위에 볼트 및 확보지점이 보인다. 그런데 멀다. 고정 확보물 몇 개씩 이용하면서 올라간다.
-길고 어려웠다. 외국인들의 경우 캠훅을 유용하게 쓰면서 어려운데를 넘어갔다. 캠훅 을 많이 못써서 시간이 오래걸림.

■ 10피치 (9피치)

니플 구간 (여자 가슴모양의) 한국어로는 젖꼭지
볼트를 타고 4번정도 올라간다 고정 하켄 두 개정도 크랙에 있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쭉 언더 크랙을 타고 이동한다 비슷한 크기의 언더크랙이 계속 이어져서 블랙다이아몬드 C4캠을 자주 썼다. 그래서 중간 중간 확실하면 빼면서 다시 설치하곤 했다. 마이크로 캠 필수. 이구간에서 두세트가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했다. 한세트면 정말 힘들거같다. 에일리언도 사용 고정하켄을 하나 지나고 살짝 큰 0.5호 전후의 캠을 쓰고 가면 니플구간에 진입한다. 4,5 호를 한번 정도 쓴다 그리고 무조건 6호가 있어야 된다. 6호말고는 다빠진다. 6호 한번쓰고 볼트가 있다. 볼트에 걸고 밑에 6호를 빼서 돌려막기한다 크랙 안말고 래더를 밖으로 넘겨서 나오는게 편하다. 다음에 다시 크랙이 이어진다. 쉬운 크랙이지만 밑에서 캠을 많이 써서 쉬운데도 캠이 딸려서 힘들었다. 딱 싸이즈가 나오는데 캠이었다. 사이즈 안맞는데 반만 걸려도 어쩔수 없이 일어났다. 블래이드 하켄 한번 썼다. 확보지점 다도착해서 살짝 손이 안닿는다 오른쪽 크랙에 한번 설치하고 확보지점에 닿았다. 등반완료 개념도 역시 정확하다 볼트 4개 있다.

■ 11피치(10피치) 마크오브 조로

볼트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바로 마크오브조로 회수못한 너트 그리고 하켄이 있다. 간격이 좁아서 마이크로 캠을 쓰고 뽑아서 올라갔다. 전 피치에서 시달려서 그런듯. 볼트도 중간중간 있다 쉬웠다. 슬링으로 자일유통 신경서야한다. 개념도에 볼트 2개 지나면 바로 크랙. 정확하다 볼트 2개 지나면 바로 크랙이 보인다. 오른쪽으로 올라서면 된다. 크랙이 가늘다. 어려웠다. 거리는 짧아 보였는데 장비 선택이 잘안된다. 좀 올라가면 해드 볼트가 있다. 조금 간격이 멀다.
-가끔 헤드볼트에 머리(너트)가 없는게 있다, 외국인들은 걸리게 하는 너트를 빼던데 이해불가

■ 12피치 (11피치)

개념도에 지그재그로 나오는 크랙이 있는데 생긴 그대로 얇은 부근에 스카이훅이 아주 잘먹힌다. 그리고 오FMS쪽 위에보면 볼트가 개념도랑 같이 5개정도 있다.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오른쪽으로 이어진 볼트길이 아닐까하고 한참 고민했는데 맞다. 비교적 쉬운 크랙을 갈아타다보면 검은 슬링이 걸려진 볼트가 하나있다, 오른쪽 바위 가덜컥 거렸다. 무서워서 바로 뺐다. 이위쪽부터 엄청나게 막막하다. 크랙없고 블래이드 하켄 심지어 너프도 안들어간다. 자유등반 해야되나 고민. 그러나 중간에 확보물도 없고 약간 넘어갈거 같아서 불가능. 오른쪽으로 손을뻗어서 더듬더듬 해보면 누가 정으로 파놓은거 같이 스카이훅 걸리는 자리가 있음. 스카이훅 걸고 일어난다. 그리고 옆으로 스카이훅으로 트래버스 해야한다.

이때 자일 유통이 안되는데 스카이훅까지 써야되서 미칠거 같았다, 이구간 진입전에 백클린을 하던 슬링을 쓰던 무조건 유통 잘되게 하고 하면 좋겠다. 중간에 하켄이 하나 있다. 그전에 노란색 C4캠이 살짝 걸리지만 불안하다. 그리고도 스카이 훅으로 이동 4-5번 정도 한듯하다 어려운구간. 다음 위로 올라가서 확보지점에 도착. 멀다.

■ 13피치(12피치)

볼트를 타고 올라서서 캠설치하며 등반 다음 왼쪽으로 난 크랙으로 이동한다. 다음 개념도와 동일하게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해야한다. 회수못한 블랙다이아몬드 캠이 있다. 여기서 테라스에서 오른쪽 볼트쪽으로 트래버스 해야된다. 우리의 경우 멋도 모르고 테라스위를 걸어서 트래버스함. 아주 살짝 오버졌으나 뒤로 넘어갈까봐 너무 무서움 볼트에 도착하고 나서 자세히 보니 정으로 파놓은거같은 스카이훅 자국들이 있음. 래더로 트래버스 하는것도 방법일듯 그래도 무서울듯. 볼트 3개를 만남 여기서 하강해서 백클린 해줘야 한다. 볼트지나서 훅 두 번정도 쓰고 오른쪽에 크랙으로 붙음 큰사이즈의 캠을 사용, 한국팀이 회수못한 반가운 트랑고캠발견 ^^ 다음 올라서면 왼쪽 언더 크랙으로 이동 스카이훅과 마이크로캠 쓰며 트래버스. 다음 왼쪽에 c1 정도의 아주쉬운 크랙 등장. 하지만 방금 꺽였던 부근에서 자일이 꺽이는 현상이 발생, 쉬운크랙에서 자일이 안따라와서 미칠번 했음. 백클린해도 잘안됨. 슬링 미리미리 길게 하면 좋겠다. 긴 쉬운 크랙을 따라오르면 피넛렛지 등장 편하게 앉고 한명은 누울법한 테라스 등장, 엄청난 소변냄새. 등반완료
-홀백끌어 올려서 테라스 위에 올려놓으니까 편했고 땅위에서 포타렛지 치는 기분이라 좋았다,

■ 14 (13피치)

B.D. 캐머롯 4, 4.5, 5 호 필수 6호도 혹시 모르니 있으면 좋다.
캐머롯 1호 보다 작은 사이즈를 쓰고 올라가다 같은 크기의 4,5호 캠사용, 15미터 정도 올라가면 해드볼트 발견, 해드볼트 지나고도 위로 한참 가야 다른사이즈 캠 쓸수있다. 해드볼트 밑은 4호가 잘먹지만 해드볼트 지나서는 5호가 잘먹는다. 4호는 잘안걸린다. 무서움.
다음 위는 확보물 설치가 용이하다. 언더 크랙 부근에 파란슬링이 길게 걸린 하켄이 있다. 캠으로 해주지 않으면 회수자가 엄청 고생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설치, 아니면 선등자가 미리 회수, 천장 지나 올라서면 등반종료

■ 15피치

왼쪽언더로 설치하며 래더 안쓰고 트래버스, 쉽지만 조금 무서움
다음 바로 보이는 크랙으로 캠훅 쓰면서 등반, 고정 너트가 있어서 편함. 조금 올라서다 다음
언더크랙과 핸드트래버스 할수있는 바위들이 왼쪽으로 이어짐. 언더 크랙에 캠설치하면서 트래버스, 핸드 트래버스 할수있지만 무서워서 스카이훅 사용, 기분나쁠정도로 바위가 얇고 덧장바위 깨질거 같지만 믿을 수 밖에 없다. 스카이훅 자리가 푹푹 파여있음. 다음 위 크랙으로 직상 하켄이 있는데 거리가 좀멀다. 턱을 넘어서 오른족 !!!으로 가야한다 턱넘고 오른쪽 아래로 살짝걸어가면 엄청넓은 테라스가 나온다. 걸어 내려가면 된다. 쓰리볼트 발견.

-쉬웠지만 걸어서 오른쪽으로 선등자가 긴거리를 이동하다보니 회수자가 조금 막막하다 엄청난 거릴를 팬듈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황했다. 어떻게 할지 작전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이 경우 차라리 거기에 확보물 설치를 안하고 캠훅만써버려서 회수자 문제를 없애던데 어려울거 같다.

■ 16피치

넓은 테라스에서 시작

오른쪽으로 이동 길찾기가 어려웠다 딱히 눈에 띄는 크랙이 없어서 엄청 당황했음. 오른쪽으로 걸어 올라간 곳에서 바로 보이는 하켄? 쪽으로 이동하면 가는 크랙이 보인다. 하캔박은 자리에 설치해야하나 설치가 좀 용이하지 않음. 다음 위쪽크랙을 올라가면 또 막막하다. 고정 하켄에 슬링을 길게 걸어놓은게 있다. 오른쪽 으로 이동해야 된다. 천장 같은 오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슬링이 또있다. 그리고 캠하나만 설치하면 쓰리볼트 발견, 등반종료.

정상에 가면 편하게 잘수있다.

하산하려면 4시간은 잡아야한다. 3시까지 정상에 못가면 정상에서 비박 해야한다. 맥시멈 4시 정상 곳곳에 두고간 식량, 물들이 있음. 하지만 먹기에는 조금 꺼림직함, 물은 끓여 마시는걸 추천

■ 하산로

4시간 정도 소요

처음에는 케른을 따라서 등산로 같은 길을 쭉따라 내려간다. 숲길 돌길을 연속해서 지난다. 포타렛지 맨사람은 숲길에 걸려서 피곤하다. 계속 내려가면 왼쪽에 누가 일부러 그려놓은 듯한 흰 줄이 쭉쭉 그어진 바둑판, 그물 같은 바위가 보인다. 딱보면 그바위다. 약간 동굴 같이 그늘진곳에 있다. 생각보다 크다. 이바위를 만나면 홀백을 내려놓고 하산로를 찾는다.

맞은편으로 바위를 좀 내려가다 보면 큰 소나무가 보인다. 그쪽으로 가면 나무에 슬링이 있는데 주황색 아니면 빨간색, 여기는 정상 하산로가 아니다. 하강할 수는 있지만 비추천 한다. 이 나무쪽말고 아래로 조금 아찔할 수 있는 슬랩을 내려가면 오른쪽 절벽쪽에 하강 볼트가 있다. 여기가 하강 지점이다. 4번 정도 하강해야한다. 고정 루프가 다 있다. ATC로는 하강이 안된다 그리그리로 하강하니 잘되었다. 홀백은 빌래이 루프쪽에 슬링을 60센치 정도해서 달아줘서 하강하면서 같이 내려간다. 무게가 부담되서 홀백만 하강시킬수 있지만. 오히려 걸리는 데가 많아서 안하는게 좋겠다. 다음 자일로 갈아탈 때 홀백이 자일 사이에 들어가지 않게 발로 잘쳐주면서 내려가야된다. 자일이 두꺼워서 내려가는데 부담은 적다. 하강 포인트에 테라스도 있어서 홀백 때문에 자일 갈아타기 어려울 염려는 없다. 하강을 마치면 홀백을 다시 메고 하산하는데 선비바위 너덜지대 같은 구간이 나온다. 내려 걸어가기 좀 불편하다. 그렇게 40분 이상을 내려가면 흙길이 나온다. 월출산 같은 느낌 거기서도 꽤 걸어가야 한다. 하강길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아류 캠핑장이 나온다. 테이블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 통도 있다, 버스가 다닌다. 가능하다면 쓰레기도 여기에 버리고 화장실에 변도 던져버리고 가면 좋다.

3
운행기록



2013년 전남대학교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3-1. Zodiac 운행기록



기록자 | **강민준(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장)**

6월 16일

일곱시쯤 일어났다. 부담이 없다 장비만 데포 시키기로 한날이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기로 되어 있던 도균형이 캠프에 남아 도와주기로 하셨다.

교무님 차를 타고 엘캡브릿지로 이동 후 차에서 내려 조디악 어프로치를 시작했다. 노즈 때도 느꼈지만 어프로치하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다. 여기로가도 길, 저기로가도 길 이지만 조금 더 좋은 길을 찾아 따라가는 게 최선이다. 벽을 왼쪽에 두고 조디악 1피치를 기다리며 걸어간다. 짐을 3명이서 나누었는데도 상당히 무겁다. 솔직히 처음에 장비와 물을 데포 시키러 하루를 쓴다고 했을 때 하루를 버리는 것 같아서 불만이 있었었다. 그런데 어프로치가 생각보다 길고 초행임을 감안했을때 많은 체력소모가 있어 이 방법도 괜히 다른 팀들이 쓰는 작전이 아니구나라 느꼈다. 산길과 돌길을 반복해서 걸어간다. 그러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 서는 순간 시원하게 트인 전망이 나온다. 정말로 아름답다. 우와하고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어프로치만 했을뿐인데 상당히 높이 올라온거 같다. 노즈 1피치는 저기 아래에 보인다. 드디어 조디악에 도착했다. 예상보다 훨씬더 앨캠의 우측에 있는 코스였다. 가보니 외국인 솔로 클라이머가 1피치를 선등 중이었는데 요세미티 와서 등반한 이후로 처음 무릎보호대를 찬 등반가를 만났다.



솔로 등반중인 외국의 클라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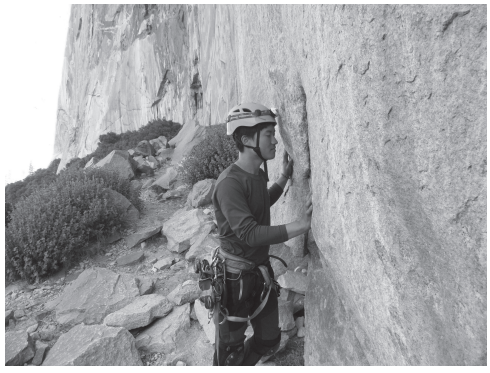


조디악 가는 길

여기가 정말 우리가 계획하던 그리고 구상했던 곳과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져온 짐을 구석에 잘 정리해서 두었다. 홀백 2개와 카고백 식량을 빼고 모든 장비와 물이 들었다. 돈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누가 가져갈 염려 하지 않고 내려 놓을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클라이머들만의 무언의 규율이라고나 할까. 존경스러웠다. 그러고 나서야 루트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가 오를 변형루트에는 볼트가 좁은 간견으로 박혀있는 것이 보였다. 코퍼 헤드도 아주 잘 박혀있는거 같았다. 그러자 속에서 빨리 올라가고 싶었다. 쉬울거 같았다. 짐을 데포해놓고 하산 교무님과 다시 앨캡브릿지에서 만

나서 루트를 익혔다. 멀리서 보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혼돈이 왔는데 그때 도균형이 카메라로 조디악 전체를 찍어서 사진을 통해 루트 설명을 들었다.

6월 17일
3피치 픽스하고 내려온날


조디악과의 첫 키스

기상 새벽 5시 도균형이 잠을 깨우신다. “샌드위치 다 만들었으니까 준비해…” 너희들 조디악 성공을 위해 모든걸 바치겠다는 농담같은 말은 정말 진심이였다. 기본적인 장비만 챙겨서 출발한다. 어제 많이 가져다 놓은거 같았지만 침낭이고 짐이 꽤 많다. 도균형은 끝까지 앨캡브릿지 까지 배웅을 나와주셨다. 그리곤 오늘 요세미티 주변을 한번 돌아 본다고 하셨다. 3명이서 하다가 2명이 되어서 조디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꽤나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이제는 앨캡이 월출산 시루봉 가는 길만큼이나 익숙하다. 별다른 일도 없이 가다가. 장비를 하나씩 줍는다. 석민형은 자일칼을 하나 줍고 비너도 몇 개 주웠다. 그때부터 나도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했다. 보물찾기하는 기분으로 갔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 그렇게 가다보니 금세 조디악에 도착했다. 가보니 1피치 첫 볼트에 장비가 걸어져 있고, 픽스로프가 2피치 정도까지 연결되어있었다. 어제 등반하던 솔로는 픽스하고 어딘가에서 비박을 하고 있었던거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우선 도균형이 만든 수제 샌드위치를 먹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맛은 정말 좋았다. 빠르게 먹고 바로 장비들을 정리해서 준비를 하였다. 어제 두고온 장비중에 다행히 없어진 장비는 아무것도 없었다. 별로 한것도 없는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갔다. 9시가 다되어서 등반시작. 조디악의 앨캡여신에게 키스하고 등반을 시작하였다. 멋지게 찍고 싶었는데 잘나오지 않았다. 1피치는 변형루트로 2피치 까지 한번에 끊기로 했다. 헤드볼트가 있고 딱보기에도 와어가 잘되있어서 쉽게 끝내려고 했다. 초반부는 볼트간격이 나름 촘촘해서 래더만 걸면 무리없이 잡을수 있었다. 하지만 해드를 실크랙에 두드려 놓은것은 믿기가 겁이났다. 무조건 안터진다고 생각하


1피치 등반중인 강민준 대원

고 갔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면 굉장히 아쉽다. 나름 어렵지 않게 등반을 하는데 밑에 익스트림 선배님들이 힘내라고 격려 해주신다. 왼편 코스는 또 따른 익스트림 팀에서 등반중이다. 드림팀이라고 하는데 다들 경력이 대단하시다. 힘을 얻고 가는데 위기에 봉착한다. 말도 안되게 멀리있는 볼트 때문이였다. 어제 익스트림 선배중에 한 분이 볼트가 너무 멀어서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렇다고해서 홐을 걸만한 틱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당황하여서 국내에서도 잘안서던 1단에도 서보았지만 어림도 없었다. 그때 어제 빌렸던 퀵드로우에 연결한 프로그가 생각이 났다. 치터스틱과 퀵드로우의 중간 이지만 치터스틱의 일종인거 같다. 최후의 보루를 벌써 쓰다니 아쉬웠지만 도리가 없었다. 와이어행거를 퀵드르와 확보줄에 연결하고 와이어 행거를 덕테이프로 살짝 스틱위에 고정하였다. 다음 스틱을 들고 헤드볼트에 걸고 쭉 당겨주면 테이프가 뜯어지면서 확보줄로부터 해서 확보물에 고정되는 방식이다.



등반 성공의
일등공신 프로그

이름 그대로 좀 비열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릴때가 아니였다. 이렇게 했는데도 쉽사리 닿지가 않았다. 거의 삼십분 이상을 한자리에서 바둥바둥 거린셈이였다. 결국에 래더 1단 그리고 덕테이프를 최대한 위까지 붙여본 다음에야 겨우 볼트에 닿을수 있었다. 욕이 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 모든 근육에 힘이 쭉빠지는 기분이였다. 그래도 걸고나니 뭔가 엄청난 성취감이 밀려왔다. 너무 지체된 탓에 바로 등반을 이어갔다. 다행히 다시 가까운 거리의 확보물들과 만날 수 있었다. 치터스틱이 한몫 도와주었다. 그러다 1피치에서 실수로 치터스틱을 떨어뜨려 버렸다. 맙소사 1피치여서 다행이지 저위에서 떨어뜨렸다면…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아찔하다. 등반 성공의 1등공신인데 말이다. 그당시는 '이번은 액땜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불행히도 신호탄인걸 몰랐다. 홀링자일에 치터스틱을 전달받고 다시 등반을 시작. 오버행 천장에 진입했다. 튼튼해보이는 하켄 하나를 발견하고 옳다구나 하고 자일을 걸었는데 이때부터 였던거 같다. 가로로 난 양호한 크랙에 캠을 설치하면서 트래버스 하다가 보니 바로 위에 다시 반짝거리는 볼트가 보였다. 기분이 좋아서 얼른 걸고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볼트 하나더, 작은 테라스만 넘어 좌측의 크랙을 타면 등반이 종료가 된다. 저멀리 쓰리볼트가 보인다. 1, 2피치가 나름 빨리끝나나 했는데 아니였다. 대충 감으로 봐도 알겠지만 자일이 지금 엄청나게 꺾였다. 작은 테라스는 크랙이 벌어져있고 홐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테라스로 트레바스 하는게 좋겠지만 자일이 유통이 안되는 것이였다. 두가지 경우의 수중 트레바스를 택했건만 자일이 유통안되자 불안한 캠과 함께 미칠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석민형에게 괜시리 자일 자일만 불렀지만 꺽인 자일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벌어진 크랙에 박힌 캠을 믿고 하강할 수가 없어서 꾸역꾸역 왼쪽 크렉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자일을 한번 쭉빼고 겨우겨우 걸어가서 3개의 캠을 연달아 설치하고 하강을 했다. 강심장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어쩔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모한 용기가 나온거 같다. 하강하여 꺾인 곳의 장비를 좀 빼내고 다시 올라갔다. 두 번정도 꺽였기에 몇 개만 빼내니 다행이 자일이 빠졌다. 하지만 회수



등반 중인 문석민 등반대장


혼자 노는 중인 강민준 대원

자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석민형은 고생을 하였고 와이어 행거 하나를 버려야 했다. 간단한 크랙을 타고 2피치 등반종료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 12시가 넘었다. 과연 4피치 갈수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주마로 석민형이 올라오고 3피치 등반을 서둘러 시작하였다. 볼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라 금방 할거 같았는데 역시 석민형도 처음이라 영 서툴러 보였다. 볼트길을 넘어서니 이제 형은 보이질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바닥을 보니 꽤 높이 올라온거 같다. 밑에는 어제 등반하던 솔로가 와있었다. 간단히 인사정도만 나누었다. 왼편에서는 익스트림 선배님들이 등반중이였는데 비록 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것 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석민형은 무언가 하고 있는지 이따금 비명 소리와 탄식이 흘러나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리그리를 잡고 있는것 뿐이였다. 30센치가 안되는 기울어진 테라스는 날 점점 힘들게 했다. 허리며 다리며 저리고 쑤셔왔다. 확보줄을 길게 해보고 짧게 해보고 별짓을 다했지만 아주 잠시 뿐이였다.

혼자서 으아아아! 라는 단말마의 비명만 계속해서 낼뿐이였다. 그러다가 2피치 높이에서 혼자만의 노래방을 가져보기로 하였다. 차마 친구들 앞에서도 부르기 민망하던 고음과 가성도 내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때 가창력이 더 좋아진거 같았다. 간식도 먹고 별짓을 다해도 등반 종료의 기미가 안보였다. 그렇게 어렵나…'차라리 내가 할까' 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접었다. 밑에 있는 솔로는 이제 넓은 돌 하나에 자리를 잡고 한숨 자기 시작했다. 그냥 돌아가지 정말 끈질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불편한건 적응이 될법도 하지만 이제 참을 수 없이 소변이 마려워지기 시작했다. 물도 많이 먹었고 해도 점점 기울어져서였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석민형에게 몇 분 간격으로 얼마나 남았나 물어보았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이였고 점점 하늘이 노래지는거 같았다. 벽에다가 처음 보는거기도 했고 중요한건 바로 밑에 솔로 클라이머가 누워있어 맞을까봐 미안했다. 좀만 더 참자참자 하면서 버텼다. 결국 발을 동동 굴렀고 솔로가 잠시 어디간 사이에 벽에 일을 보았다. 어디로 봐야할지 몰랐는데 바람쪽으로 봐서 신발에 조금 튀겨버렸다. 그러고 나니 이제 마음이 한결 놓이게 되었다. 확보줄도 최대한 늘려보니 테라스에 걸터 앉을수가 있어서 그렇게 앉았다. 안먹던 간식도 꺼내서 먹으니 이제좀 살만하였다. 솔로는 더 이상 기다리기 뭐했는지 나에게 픽스해놓은 2피치 까지만 가서 홀링해놔도 되겠냐고 물었고 나는 알겠다고 했다. 순식간에 쑥쑥 올라오더니 1대1 시스템으로 후딱 홀링하더니 내려갈준비를 하였다. 바람이 많이 불어 떨었더니 외국인이 홀링하면 따뜻해 진다고 했다. 석민형은 아직도 분투중이였고 '훅을 쓸테니 잘봐' 라는 말을 했다. 후등자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졌다. 그렇게 몇시간이 더지나 결국 등반완료! 라는 말이들렸고 기쁘게 주마를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는 거의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였다. 주마하면서 올라가보니 역시 쉽지 않은 코스였다. 맨든맨들한 구간을 올랐을 석민형을 생각하니 대단한 마음이 들었고 나까지 소름이 돋았다. 오랜만에 만난 석민형은 지쳐보였고 시간 관계상 하강하기로 결정하였다. 장비를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하니 무전이 왔고 도균형이 앨캡브릿지에 있다고했다. 그런데 마침 석민형이 랜턴도 안가져온 상태라 도균형이 가져다 주기로 하였다. 혹시나 해서 랜턴을 목에걸고 등반했는데 정말 다행이였다. 랜턴이 없는 석민형이 내려가게 비춰주고 내가 내려가기로 했다. 자일 2동을 연

결하니 바닥에 닿았고 하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길게 내려가는게 처음이라 정말 무서웠다. 마침 도균형이 도착하였고 밑에서도 비춰주었다. 이때 석민형이 도균형~하고 불렀는데 석민형도 조금 긴장한거 같았다. 드디어 내 차례가 돌아왔고 하강을 했다. 내려오는건 무난했지만 메듭지어놓은 자일을 갈아타는 과정이 힘들었다. 왜냐면 1피치 쯤에서 완전 오버행이라 벽에 닿지도 않아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조디악 1피치 전경



3피치 등반완료 후 하강

이였다. 허공에서 자일 하나에 의지하고 메달려있으니 겁이났다. 조금더 쉽게 할수 있었지만 꾸역꾸역 어렵게 한거같았다. 바둥바둥 하강 완료! 완전 어두워진 바닥에서 주저 앉아 버렸다. 갈수 있을까 의문이든다. 원래의 예상보다 한참 늦게 내려왔다. 어두운 길을 따라 하산을 시작하는데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어찌나 피곤하던지 자꾸 다 내려왔다고 착각을 하고 오분만 더가면 되겠지를 몇 번이나 생각하지만 아니였다. 결국 하산 교무님이 앨캡 브릿지에 차를 대로 기다리셨고, 익스트림 선배 한분도 같이 오셨다. 등반을 끝내서 그런지 술도 편하게 드신거 같다. 괜히 부럽다. 캠프에 도착하니 12시가 다되어갔다. 익스트림 팀에서 우리를 위해 돈을 걷어 고기도 사놓고 술도 준비 했다고 했는데 너무늦어 다들 주무셨다. 아! 고기하나 보고 힘내서 걸었는데 좀 아쉬웠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라면만 간단히 끓여 먹고 자기로 하였다.

6월 18일
원래 출발 하기로 한날 전날 간식 사고 옴 혼자, 유사담배… 소고기

늦게까지 잠을 잔다. 그것도 아주 오래 10시에 눈을 한번뜨고 또 잠들어서 12시가 다되어서야 깨어난다. 오늘은 정말로 여유로운 날이다. 점심도 그냥 간단하게 계란후라이에 간편 미역국으로 때웠다. 도균형이 직접해주셨다. 아침을 먹고부터의 일정은 자유로운 일정이였다. 형들은 빨래 및 샤워를 하러 가

신다고 하셨다. 나는 빨래 생각도 없고 씻을 생각도 없어서 그냥 텐트에 남기로 하였다. 석민형은 자꾸 옷을 빨아 갈아입기를 원했지만 조디악이 눈앞이라 아무것도 하기싫었다. 그리고 개운하게 하산해서 세레모니로 하고싶었다. 지금 상태로는 더러운 옷이 어울릴거 같았다. 세수도 안한지 오래였다. 형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앉아서 캠프의 그늘을 즐겼다. 신기하게도 그늘안에서는 파일을 입고있으면 포근하다. 반면 햇볕에만 나가면 따가울 정도이다. 텐트에서 조디악 피치별 사진과 루트맵을 가져와 읽었다. 영어라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이지홀링' 뿐이고 해석은 전혀 안된다. 16피치까지의 모든 루드를 머릿속에 담고싶지만 감이 오질않는다. 그저 수치로 어려울거 같다 쉬울거 같다를 기억하고 특징적인 포인트만 외우기로 했다. 도통 다른 생각이 나질 않는다. 조디악을 등반하고 내려온 다른 팀이 부러울뿐이고, 어서 올라가 버리고만 싶다. 하지만 데포를 해보고 오니 쉽지 않다는걸 알기에 괜히 공포스럽다. ' 잘할수 있다'를 몇 번이나 다짐한다. 루트파인딩을 여러차례 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남는다. 3시쯤 E 됐는데도 형들은 돌아올 기미가 안보여서 식량계산한것을 다시 검토하기로했다. 보면 볼수록 노즈는 터무니 없는 식량을 챙겼다는 생각이든다. 가장 중요한 먹는게 부실했으니 그랬을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갑자기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 식량을 다사놓고 포장하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작정 지갑과 리스트를 챙겨서 빌리지로 향했다. 왠지 기분이 정말 좋았다. 혼자만의 장보기 그것도 무계획이다. 어릴때 엄마 심부름을하러 처음 슈퍼에 가는 거 같았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리스트를 보고 체크할때는 냉정해 졌다. 빌리지에 도착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워 담았다. 빵도 10개 더사고 육포도 사고 중요한 후르츠까지 사고 최대한 배고프지 않게 샀다. 돈 생각 안하고 막담고 계산의 시간이 왔다. 허걱 100달러가 넘는 돈이 나와버렸다. 가진돈이 그정도였는데 50달러까지는 허용하려 했건만 등줄기가 시원해지는 기분이였지만 눈딱감고 샀다. 이정도 희생은해야 된다. 관광지라 비싼건 알겠지만 너무나도 비싼거 같다. 두 개의 종이백을 들고 버스를 기다려 캠프에 입성 아직도 형들은 오질 않았다. 지금 딱 식량까지 다 포장해놓고 짜잔 !하면서 형들을 놀래켜 줘야지 하고 생각했다. 마치 엄청난 등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진지한표정으로 식량을 쭉 나열해놓고 사진도 찍고 이리저리 배치해보았다. 정말 만화속의 모리분타로 같이 생각하면서 재밌게 논거 같다. 혼자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니… 새삼 놀라웠다. 조디악 계획은 3박 4일이라 그것만 준비하면 됐지만 최대 5일차 밤까지 버틸수있게 넉넉하게 식량을 준비했다. 어떤 변수라도 다 제거하고 싶었다. 식량을 다싸갈때쯤 형들이 돌아왔다. 솔직히 '오 대단한데' 라는 말을 기대했지만, '왜오늘 샀냐 내일사제 ' 라는 말정도만 듣고 싱겁게 끝이났다. 칭찬받기를 기다렸는데 조금 풀이 죽었다.

6월 19일
호성형 상규형 만나고 저녁에 비박하러 출발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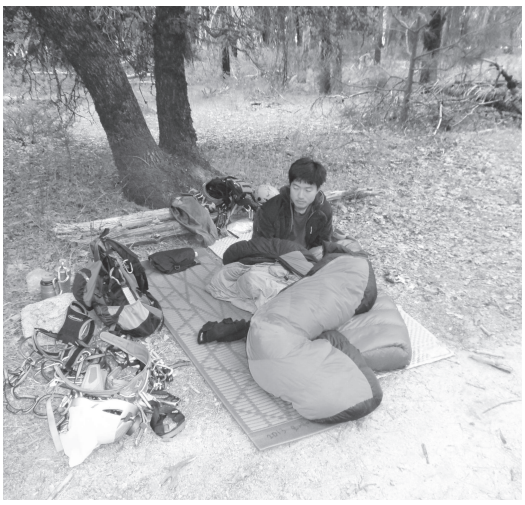
'민준아 호성형 오셨다' 라는 말로 아침을 맞았다. 석민형이 깨웠지만 무슨소린가 해서 그냥 텐트에서 잠들었다. 그러던 차에 텐트문이 열리고 호성형이 나타나셨다. 나이가 한참 많으실줄 알았는데 젊은 형이 오셔서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젊어보이셨다. 여러번의 대화를 들은후에야 호성형인걸 알수가 있었다. 8시간을 잠도 안주무시고 달려오셨다. 밤을

꼴딱 새고 오셨다는 말에 감동스러웠다. 전남대학교 산악회인것이 정말로 행복했다. 새로오신 호성형 가족의 새 텐트 자리를 받기위해 또다시 레인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였다. 이때 차안에서 호성형 형수님과 3명의 아이들이 함께 나왔다.
환이, 혜빈이, 하린이 였는데 정말 인형같이 귀여웠다. 특히 하린이가 방구 끼는 동작을 할때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 눈에도 하트가 보이는거 같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텐트 싸이트를 배정 받았다. 배정받은 장소로 호성형의 짐을 옮겼는데 정말 먹을게 풍족했다. 마침 먹을게 떨어졌는데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 배고플까봐 라면도 끓여주시고 만두도 쪄주셨다. 피곤하실텐데 아침부터 정말 감사했다. 이후에 호성형의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내었다. 아침먹은게 꺼지기도 전에 한국에서 써보고 두번째로 써보신다는 압력 밥솥에 닭을 삶아 주셨다. 미국에서 이런 몸보신을 하게 될줄은 몰랐다. 점심쯤에는 호성형은 가족분들과 잠시 관광을 하러 다녀오시기로 하셨고 석민형과 다시한번 짐정리를 하고 낮잠을 잤다. 금방 잠이들었다 깨었고 다시돌아오신 호성형이 갈비를 구워주셨다. 눈을 뜨고 만나뵌 순간부터 먹는것의 연속이 였다. 내일 등반을 위해 모든에너지를 위해서 모든걸 먹었다. 다음에 나도 선배가 되면 후배에게 꼭 해주고 싶었다. 숯불에 구워진 갈비의 맛을 잊을수가 없다.
아이들도 잘 먹었다. 그이후에 후식으로 딸기까지… 요근래에 이렇게 잘먹은 적이 있을까 싶었다. 배가 불러 더 이상 못먹을 때까지 먹었지만 행복했다.


요리 중인 류호성 회원

갈비를 다먹고 애들이 먹고 싶다는 마시멜로를 먹기위해서 캠프파이어를 했다. 요세미티캠프에서 생활한지 2주가 넘었지만 캠프파이어는 처음이였다. 내일 등반을 가는데 이런 여유를 누리니 좋았다. 하지만 자꾸 먼저 떠난 도균형이 너무나 아쉬웠다. 석민형도 자꾸 너무 아쉽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다. 한창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중 상규형이 오셨다. 두명의 아이들도 함께 왔는데 첫째는 딸인 소민이였고 둘째는 준호 였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지 한국말이 조금 서툴고 영어는 잘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와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 보여서 말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웠다. 원래계획은 조금더 일찍 앨캡으로 가려했는데 상규형을 뵙고 가고 싶어서 조금 기다린거라 시간이 많이 지나있었다. 서둘러 개인장비를 챙겨 떠나려고 하니 등반을 마친 익스트림 선배들이 와계셨고 잘다녀오라고 격려 해주셨다. 교무님은 사진 잘받으라고 형광색 익스트림라이더 티셔츠도 하나 주셨다. 비록 같은 소속은 아니였지만 끈끈한 정에 마음이 흔들렸고 기회가 된다면 꼭 익스트림라이더에 참여하고 싶었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된것 만으로도 행복이였다. 상규형과 호성형은 같이 앨캡 브릿지로 가기로 하였다. 차에서 내려 형들과 기념 촬영을 하였다. 대단하고 멋있다고 해주셨다. 이렇게 큰 환송을 받으며 간다는게 황송할 따름이였고 많은 힘이 되었다. 아쉽게 작별을 하고 어둠속의 앨캠으로 석민형과 걸어갔다.
이제 한시간정도의 어프로치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석민형이 초입쯤에서 멈추더니 자고 가자고 하였다. 나는 차라리 밤에 걷고 아침에 좀더 여유롭기를 원했으므로 가자고 했지만 형이 도저히 피곤해서 안되겠다고 하였다. 하긴 시간이 벌써 10시를 넘어 11시가 다되어가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고생이

지만 그래도 당장 쉰다니 나쁘지 않았다. 배낭속에는 내일 먹을 알파미와 참치캔 그리고 육포 같은게 있어서 곰의 습격이 걱정 됐지만 당장 여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메트를 깔고 누웠다. 둘이 도란도란 누워서 앨캡 초입에서 비박하는 건 세계 최초일거라고 또 한바탕 웃었다.



비박 후

석민형은 일찍 잠에 들었고 나는 8장의 엽서를 쓰기 시작했다. 일정상 하루에 한장 쓰면 8장은 쓸수 있겠다 싶어서 일학년 이학년 후배들에게 쓰기로 한것이였다. 왼쪽에는 짧은 편지, 오른쪽에는 하루분량의 등반기를 적어서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8장을 다쓰면 정상이고 내려가고 있겠지라는 생각이였다. 비싼 기념품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수 없는 처지에 공유할수있는 추억을 선물 하고싶었기 때문이였다. 게다가 8명이 모여야 조디악의 등반기가 완성되니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염원이였다. 엽서를 쓰고 침낭에 누웠다. '슈퍼문' 이였다. 앨캡이 빛을 받아 하얗게 빛이났다. 반짝반짝 거기에 야간등반을 하는 등반가들의 랜턴 불빛이 별처럼 수놓여져 있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되는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이런걸 보기위해 내가 여기 있는건가. 사진으로는 차마 담지 못하는게 너무나 아쉬웠고 나만 본다는게 조금 아쉬웠다. 말로 형용할수없는 기분에 오랜시간 잠들지 못하였다. 솔직히 풍경때문만은 아니였을거다. 내일부터 당장 이어질 등반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도 많은 작용을 했을거 같다.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6월 20일
주마하고 4피치

잠을 거의 못잔거 같다. 떨려서 였을까 아니면 전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오지 않았던 걸까. 너무나 피곤하다. 하지만 여전히 adle의 don't you remember가 울려 퍼진다. 기상예정시간은 4시반, 해뜨는 다섯시 반을 기점으로 바로 주마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석민형이 일어나질 않는다. 좀더 자자고 한다. 계속해서 솔로 클라이머랑 겹쳐서 일찍 가봤자라고 했다. 나역시 피곤해서 자자고 하니까 당장은 좋았지만 속으로 너무 걱정되고 불편했다. 하루에 뽑을 피치수를 소화 하지 못하면 다음 일정에 지장이 올게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가 다뜨고 나서야 침낭을 개고 출발하였다. 이때 출발하면서 알파미에 물을 부어놓고 갔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느낀것이 조디악에 도착하니 알맞게 밥이 되어있었다. 짐이 가벼우니 체력 소모가 거의 없다. 아무래도 장비와 물을 올려 놓은 것은 좋은 판단이였던거 같다. 벽아래 가보니 솔로가 5,6



주마링 중인 강민준 대원



포타렛지 위에서 확보중인 문석민 등반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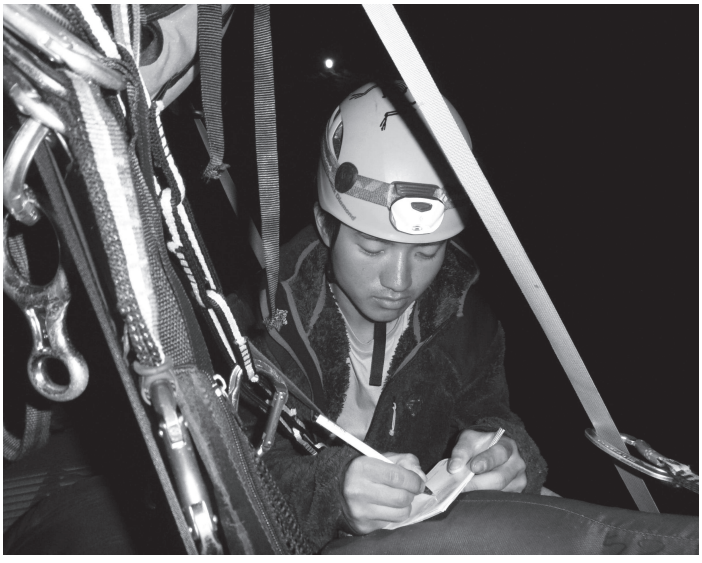
피치 정도에서 등반중이다.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석민형은 너무 여유로운거 같았다. 마음이 급했다. 결국 화장실까지 이용하고 알파미를 먹고 나서야 겨우 벽에 붙었는데 거의 8시는 족히 된거 같았다. 그리고 이때 화장실을 가려고 풀숲으로 갔는데 블랙다이아몬드의 ATC(일명 돼지코) 를 주웠다. 장비를 줍게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하지만 앞으로 장비 하나를 줍고 얼마나 많은 것을 떨어뜨릴지 생각도 못했다.

주마길이가 100여미터는 되었다. 게다가 하단부는 다이나믹 (동적)로프라서 늘어남도 굉장히 심하였다. 3피치 까지 주마라니. 쉽게 보았지만 몇 번해보고는 쉬운것이 아니라는걸 알았다. 완전 허공에서 하는 주마가 쉽지 않았고 팔에 무리가 오는거 같았다. 초반부터 다칠가봐 염려되어 조심스럽게 쉬면서 올라갔다. 저위에 3피치의 픽스는 잘되어 있는걸까 떨어지면 죽겠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올라갔다. 동적로프를 지나 스테틱 로프에 진입하니 그나마 주마가 한결나아졌다. 3피치에 이틀만에 다시 돌아오니 기분이 또 새로웠다. 다음 석민형이 주마를 할차례가 되었고 시작하였다. 그런데 형은 작은 배낭을 메고 그안에 여러 물건을 넣어둔 탓에 주마가 부담이 되었고 결국 자일에 배낭을 묶어 내가 끌어 올렸다. 배낭을 끌어올리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 다시 엽서 한 장을 썼다. 좁은 테라스에 서서 쓰는건 나름 곤욕이였지만 힘이나고 즐거울 따름이였다. 석민형이 올라왔다. 다음 4피치 등반시작. 왼쪽으로 걸어올라갈경사의 슬랩을 캠을 설치하며 올라가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전남슬랩 정도의 경사 쯤일텐데 살짝 기울어져 있는게 영향인듯 싶다. 앞으로 몸이쏠리니 장비고 래더며 모든게 앞으로 쏠려서 크랙에 끼이고 아주 난리이다. 짜증이 폭발한다. 아이씨가 자꾸나온다. 석민형은 무슨일인가 깜짝깜짝 놀랐지만 별일은 없었다. 구간을 지나니 바로 비교적 양호한 크랙이 나온다. 세로 크랙을 쉽게 지나 왼쪽으로 난 가로 크랙, 그리고 언더로된 크랙에 설치하며 이동한다. 별반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다. 물론 마지막 스텝에서 크랙이 끊겨, 피쉬훅을 한번 걸어서 겨우 일어나후 쓰리볼트 지점에 도착했다. 금세 끝난거 같았지만 벌써 시간이 3시가 넘었고 석민형이 오니 4시가 되었다. 캠 하나를 회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회수를 못하였다. 다음피치 진행을 하려 하지만 6시면 등반 종료하라는 선배들의 충고가 떠올랐다. 일단 포타렛지를 치고 생각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벽에서 처음 처보는 포타렛지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황을 하였다.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어

정쩡했다.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 변형루트로 10개정도의 헤트볼트와 볼트가 이어진 곳이였다. 볼트부분은 프로그가 있어 걱정이 없었지만 초반부의 트래버스가 짜릿하였다. 3미터 정도를 옆으로 가는데 볼트가 없었다. 바로옆에 고정된 하켄이 하나 있었는데 어쩔수없이 믿고 가기로 하였다. 하켄에 퀵드로우를 하나 통과시키고 스카이 훅을 연달아서 걸면서 갔다. 4스텝 정도를 갔는데 밑이 완전히 휑하여서 스릴을 넘어 공포가 밀려왔다. 하켄까지 빠지면 저밑에 데롱데롱 메달릴 생각을 하니 아찔하였다. 부들부들 떨면서 이동 결국에 첫 번째 볼트에 클립을 하였다. 살짝 오버진 곳이라 겁났는데 일어나보니 손이 닿아 정말 안도하였다. 볼트길은 쉽게 쉽게 올라갔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계속 진행해볼까 하였는데 접었다. 내려오며 포타렛지에 있는 형의 모습을 보니 새삼 신기하고 감동스러웠다. 카메라를 꺼내서 셔터를 눌렀다. 벽에 메달린 모습이라… 내려와서 처음으로 홀백에서 짐을꺼내어 저녁 준비를 하였다. 모든게 서툴렀다. 무엇을 꺼낼지 어떻게 잘 준비를 할지 등등. 하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없이 일단 하는것이 중요했다. 저녁메뉴는 알파미와 컵라면 이었다. 평소 라면을 좋아하지 않던 석민형도 국내에선 하나도 안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며 좋아했다. 첫끼 치고는 꽤 든든하고 맛있게 먹었다. 생각해보니 첫날에 4피치 까지 가고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게 식량 고갈의 시작이였던거 같다. 하지만 포타렛지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감게 무량했다. 휴대폰으로 음악까지틀어놓고 한참이나 요세미티의 전경을 바라보았고 밝게 떠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일정이 다소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기로 하였다.



힘든 등반 후 저녁식사 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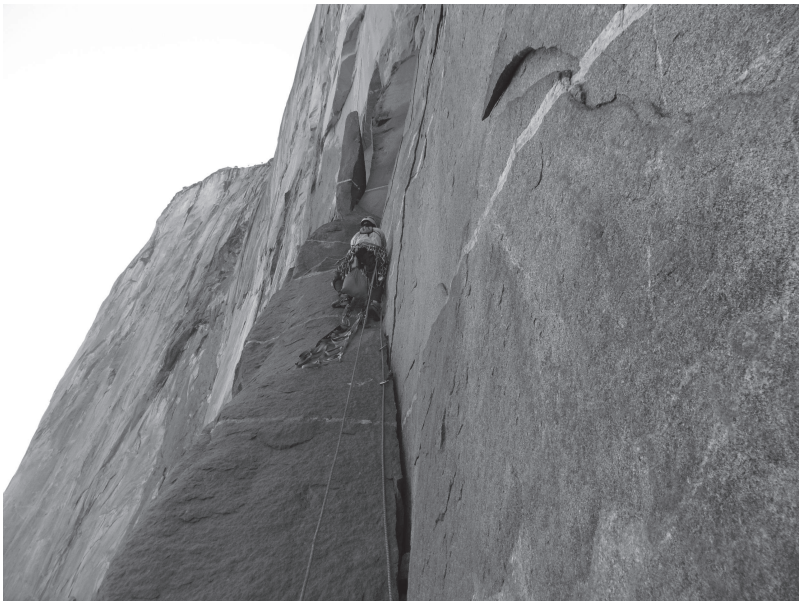


후배들에게 엽서 쓰는 강민준 대원

6월 21일
5, 6 피치 등반

포타렛지에서의 공식적인 첫날밤의 아침이 밝았다. (노즈에서 물론 한번 펴봤지만 잠을 잤다고 할 수가 없다.) 나쁘지 않은 숙면이였다. 5시에 일어나서 붙자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였다. 한번 일어나고 잠

시 누워있다 보니 시간은 흐르고 흘렀다. 결국 해가 밝은 6시에야 우리둘은 일어났다. 아침은 참치죽이다. 계획은 데워 먹는 것이였지만 그냥 먹기로 했다. 석민형은 '데울 수 없을까?'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차가운 상태의 죽을 마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금방 먹어치울수 있어 좋았다. 음식이라는 느낌이 안들었다. 그저 에너지일뿐… 아침을 다먹은 뒤에도 한참이나 굼뜨게 움직였다.
8시가 되어서야 등반을 시작할수 있었다. 오늘은 속도를 내서 3피치 이상 가는게 목표이다. 특히나 어제 볼트길을 미리 다 가서 어렵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다. 석민형이 등반을 시작한다. 주마해서 금방 올라갈듯 싶었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볼트길에서 시간이 지나 선등시작. 나까지 긴장이 된다. 그래도 오늘은 빌레이 시트가 있어서 마음이 꽤나 편하다. 밑에서 외국인 팀이 한팀 올라올것 같다. 등반준비를 하는데 10시가 다되가는데 오다니 여유가 부러울 따름이다. 빌레이 시트에 앉아서 호성이 형이주신 육포를 먹었다. 큰 한조각을 먹는데 7분정도 걸리는거 같다. 여러개를 먹었는데도 위쪽에서는 소식이 없다. 루트맵을 보니 쉽다고 나오는데 무슨일이지 ?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든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등의 마음을 후등자는 잠시 망각하는거 같다. 그렇게 두시간여를 지났을까 ? 석민형이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뭔가 잘되지 않거나 무서움이 찾아온거 같았다. 무슨일인지 알 수 없고 도와주고 싶지만 할수 있는게 없다. 그냥 기다리는것 뿐이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거 같다. 시계를 차고있지 않아 알수 없지만 어김없이 배가 고프다. 옆에 차고있던 행동식 주머니를 쓰리볼트에 걸어놓고 본격적으로 먹기시작했다. 물도 먹고 여유롭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심심한 마음에 목청껏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메들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커다란 벽이 노래방이고 나는 가수가 된다.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음정 가사 다틀려도 누구하나 듣는 사람이 없다. 아 한명있었다. 석민이형이 “야! 노래 부르지 말고 확보 제대로 봐야”. 라고 한다. 아쉽지만 노래방 종료, 똑같은상황이 다음엔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게될줄 이때는 몰랐다. 벌써 해가 중천이다 대충 보아하니 열두시를 넘긴것 같다. 한피치를 종료해야 되는데 초조하다. 밑에 외국인 친구들은 벌써 3피치 종료 지점에 도착해서 홀링할 준비를 하고있다. 끝났때가 된거 같지만 아직 소식이없다. 물을 마셨더니 소변이 마려웠다. 아까전부터 소변을 보고 싶지만 밑에서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맞을까봐 보지못하고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뒤늦게 소변을 보자니 바람이 세게 불어서 어느 방향으로 보던간에 3피치 외국인들에게 날아갈거 같았다. 그때부터 였던거 같다. “석민형 얼마나 남았어요?” 를 계속해서 물어봤다. 결국 참지못하고 반대방향으로 일을 보았다. 두명의 외국인들은 당황하며 헬멧을 벽에 한참이나 붙이고 있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고 다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괴성과 함께 들려온 등반완료! 주마를 하면서 올라갈 때는 선등자의 노고를 헤아리게 된다. '아 여기서는 어떻게 한거지' 라며 말이다. 많이 꺽인 코스 쉽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을 하며 회수를 했다. 오랜만의 조우, 아주 잠시만 만났다. 이때 상규형과 익스트림의 교무님에게 무전이 왔다. 우리는 농담처럼 상규형이 내려오라고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심이 묻어나오는 말이였던거 같다. 교무님께 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상규형의 응원을 받고 다시 출발. 다음은 유명한 블랙 타워로 진입을 한다. 밑에서 석민형에게 조금 답답함을 느껴서 였을까? 아니면 나는 잘할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 때문이였을까? 빨리 등반 해내고 싶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될거 같아서 슬립이고 뭐고 될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였다. 빨리빨리 가고싶었다. 아직 자일도 준비가 덜되었는데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될 것을 계속해서 석민형을 재촉했다. 왼쪽으로 이어진 쉬운 슬랩을 래더를 쓰지 않고 캠만 잡고 일어서면서 갔다. 역시나 홀링자일과 등반자일이 엉키었다. 좀 더 차분히 갔으면 좋았을 것을 싶다. 딱히 석민형의 잘못도 아니였는데 괜시



블랙타워 진입

리 선등자에게 신경을 안써주는거 같아 '석민형…' 이라고 풀죽은 목소리로 불렀던거 같다.
블랙타워는 정말 말그대로 뾰족한 탑같았다. 다만 생각보다 얇은 탑이였지만 말이다. 회수못한 볼트와 버드빅이 몇 개 있어 쉽게 갈수 있었다.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괜히 조디악이 초창기 가장 어려운 루트가 아니였나 싶다. 그래도 역시 중간 중간 연결해야 하는 스탭이 쉽지 않았다. 버드빅도 박고 볼트를 몇 번쓰고 이동하였다. 블랙 타워 위쯤 올라 가니 좌우로 뻥뚫려서 시야가 확보되면서 엄청난 고도감이 밀려왔다. 멀리서만 보던 블랙타워 위다. 바로 위쪽의 실크랙으로 진입했다. 캠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이동했고 더욱 가늘어진 크랙에는 버드빅 몇 개가 남아있었고 해드도 다져져 있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얼마나 오래된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일단 믿고 가기로 했다. 저멀리 등반 종료 지점으로 보이는 테라스가 보였다. 기쁜마음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3미터 정도가 캠설치가 어려운 벌어진 크랙이다. 게다가 가느다란 크랙도 중간 중간 섞여있다. 어떤 캠도 잘 설치가 안되고 블랙다이아몬드 캠도 맞는 사이즈는 고갈되어 에일리언을 쓰기로 하였다. 역시나 이리저리 잘돌려서 껴보니 설치가 되었다. 역시 에일리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체중을 실어보았다. '딱!' 소리와 함께 헬멧에 부딪힌다. 안쳐다봐서 다행이지 보고 있었으면 얼굴에 훈장이 하나 생길뻔 하였다. 믿음직한 장비가 빠지니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나마 사이즈가 맞던게 빠지니까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훅을 이용해서 넘어가기로 했다. 바로 위는 캠이 잘들어갈거 같아서였다. 훅을 걸자 바위가 바스락 거렸다. 역시 훅은 정말 무섭다. 다음 캠을 설치하니 이제 정말 등반이 종료 될거 같다. 이판사판 한번더 훅을 쓰고 일어나서 다시한번더 훅을쓴다. 사실상 테라스에 홀드를 잡고 일어나면 한동작이 줄지만 시도조차 어렵다. 테라스에 올라서서 밑을 보니 처음 훅을 쓴 곳부터 해서 깨끗하게 설치물이 없다. 석민형이보면 신통하다고 해줄거 같아서 괜히 으쓱해졌다. 쓰리볼트가 있고 가장 우측 상단에 볼트가 하나더 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등반이 무리일거같고 밑에서도 형이랑 이야기를 한상태라 바로 포타렛지를 칠수있게 홀링자와 슬링으로 이퀄라이징 하였다. 나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쳐야지 해서 한건데 석민형이 보기에는 별로였는가 보다. 보시고는 약간 아쉽다고 했다. 외국인들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2중 3중의 백업을 하는데 나는 왜이리 안되나 싶다. 해놓은 것을 보면 지저분할 따름이다. 오늘 잠을 잘곳은 나름 테라스가 좋았다. 한명정도는 포타렛지 없이도 잘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었다. 다만 유명한 비박지라 그런지 소변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앨캡특유의 냄새는 소변냄새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하다보니 벌써 6시가 넘어갔다. 포타랫지를 치고 짐 정리를 시작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조금은 나아진듯하다. 하지만 한명은 내려가고 한명은 위에서 치는데 여전히 맞게 하고있는가는 의문이 든다.

6월 22일
7, 8 피치 등

어제와 다를것 없는 기상풍경. 어젯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붙자고 다짐했건만 또 늦게 일어났다. 알람을 끄기를 수차례. 서로 일어나야 한다는걸 알지만 피곤한 몸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다. 이럴수록 벌떡 일어나야 하지만 침낭 밖으로 나와 움직이기가 귀찮다. 건너편 바위에 해가 드리우고서야 일어나 침낭을 개고 아침을 먹었다. 역시나 죽… 금세 먹기에는 최고인 듯하다. 먹기까지는 쉬운데 그다음 과정들이 너무 귀찮았다. 일단 어제 쓰레기 정리, 간식 봉지, 라면 쓰레기 등등 한봉지에 모은것을 다시 홀백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침낭이며 여러 취사도구들을 또 정리해야한다. 포타렛지 밑에 메달려있는 홀백이 손닿는 위치면 좋으련만 저아래라 하강한후 다시 주마로 올라와야한다. 그것도 이좁은 공간 안에서이다. 그리고 나면 대망의 포타렛지 접기가 남는다. 그래도 항상 느끼는거지만 치는것에 비하면 걷는것은 아주 많이 양호한 편인듯하다. 두 번째 접어보는거라 그런지 더 나아진기분이다. 출발을 하기위해 장비들 까지 정리하고 나니 새삼 또 오늘하루의 시작이 실감난다. 특히나 오늘 8피치는 가장 어렵다고 루트맵에도 나와있으니 부담스럽다. 7피치 등반시작, 보기에도 굉장히 쉬워보이고 개념도에도 그렇다고 나와있다. 만약 국내에서 이런길을 만났다면 순식간에 올랐을거다. 홀드도 엄청나게 좋은 이길을 캠을 설치하면서 올라가니 석민형은 그냥 자유등반을 해보라고 하지만 절대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렇게 인공등반으로 올라간다. 그러던중 중간에 자일이 돌부리에 걸려서 끼었다.
중반부에 가니 이제 조금은 대범해진것같다. 캠두개를 설치하고 하강하여서 걸린 자일을 빼고는 다시 올라갔다. 능숙하게 대처한거같아 우쭐감에 차있었다. 인생사 새옹지마. 역시나 너무 좋아하면 안좋은 일이 일어난다. 트레바스를 하기위해서 피쉬훅을 걸고 이동하고 있엇는데 다쓰고난 래더를 '훅' 하고 내리는데 피쉬훅을 뺀다는게 확보줄에서 빼버린 것이였다. 앗! 소리를 미쳐 내지도 못하였는데 바닥으로 팔랑 거리면서 떨어지는 것이였다. 한피치마다 장비를 떨군다고 석민형이 말하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웠다. 실수를 저지르고 나니 등반욕이 확떨어지는 순간이였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전진해야한다. C4캠 0호와 00호의 캠을 쓰면서 옆으로 이동하였다. 장비는 꼭 비싼것을 아니 제대로 된것을 구매해야함을 깨달았다. 명불허전 블랙다이아몬드. 거꾸로 집어 넣어도 휘어지면서 크랙에 정확히 설치가 된다. 물론 복원력도 굉장하다. 오버행쪽에 진입한다. 헤드볼트가 있고 작은 천장같은 벽이 있는데 이곳을 넘어서면 하강이 불가능 하다는 지점인듯했다. 위쪽으로 이어지는 가는 크랙이 불안해서 하강하여 든든한 소형캠들을 회수하고 다시 올라와 천장을 넘어섰다. 스틱스강을 건너는 기분이였다. 사이


7피치 실크랙 오르는 중


스탠스가 전혀 없는 7피치 확보지점

즈 안나오는 크랙이 이어졌다. 훅을 사용해서 가면 좋았을거란 생각을 이제야 하지만 그당시에는 도저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아 캠만 뒤적거렸다. 맞는거라곤 블랙다이아몬드 C4캠 000, 00 사이즈 정도만 들어가는데 도저히 아까워서 쓸 수가 없었다. 위에서 이게 필요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였다. 결국 볼너트를 이용하였는데 국내에서도 자주 터지곤 하여서 믿음이 안 가 미칠거 같았다. 게다가 세개 연속으로 설치하였더니 긴장감은 백 배가 되었다. 금방이라도 아래로 빠질것만 같았다. 거기에 볼너트 세 개가 빠진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지만 어쩔수가 없었다. 그나마 위에는 아까 회수한 소형캠들이 잘 들어 맞았다. 거기에 마지막까지 아꼈던 C4캠 000호 사이즈를 사용하여 피치 종료지점인 쓰리볼트에 도달 할 수 있었다.

6월 23일
9피치 /10피치 등반 니플구간 마크오브 조로



니플구간 넘어서는 중



마크 오브 조로

6월 24일
11피치 데빌블로우라는 (악마의눈썹) 곳을 지나쳐서 등반을 해야한다. 바로위에 천장이 보이고 좌측에 길이있다. 좌측길을 따라서 등반을 시작한다. 개념도 그대로이며 역시나 신기하다. 캠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들어가니 기분도 좋고 하루가 상쾌하다. 바위가 조금 덜컥 거려서 불안하지만 그러려니 했다. 스카이훅을 두번정도 쓰고 바로 오른쪽 볼트에 진입했다. 큰 어려움 없이 가느다란 크랙에 진입했다. 블랙다이아몬드 C4캠 000호가 들어갈만한 사이즈라 찔러넣었는데 너무 꽉 물린 기분이라 빼내려 했다. 그런데 너무 꽉끼어서 잘안빠지는 것이였다. 장비에게 '형님 한번 만 빠져주세요 제가 죄송했습니다…'라고 비굴하게 빌었다.
장비 분류도 원래 사이즈별 구분했었는데 몇피치 전부터 C4캠 000호는 비너 하나에 따로 끼어놓고 쓰면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캠이라기보다는 훅과같이 한번 걸고 일어나서 다음 캠설치후 회수하면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쓴탓이였다. 장비와 대화하다니 슬슬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몇분을 대화하고 어루고 달래길 아주 쌩쇼를 하다가 결국 회수를 하고 다음 2.5호 정도의 캠



바짝 추격하는 외국 등반팀



비가 와서 안개 자욱했던 날

을 설치하면서 위로 순조롭게 올라갔다. 캠을 설치하고 의지했더니 몸통만한 바위가 덜컹 거리면 빠질거 같이 흔들렸다. 한달전에 바위가 빠져서 죽었다는 클라이머가 생각나면서 아래 캠으로 내려와 옆에 다시 설치 하였다. 인상깊은 한포인트를 지나고 나니 볼트하나가 보였다. 검은 슬링이 짧게 걸려있는 색도 기억나는 볼트였는데 이때 잘생각해서 백클린 했어야 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나오기로한 볼트가 나오니 일단 좋아서 자일을 통과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길이 나온 것이였다. 설마 없겠어 하고 일어나서 보았는데 정말 없었다. 가로의 크랙이 하나 있었는데 닿으려면 적어도 두스탭은 일어나야 했다. 자유등반을 해야하나 엄청 오랜시간을 고민하였다. 에라 한번해보자 하고 일어나려는데 밑에서 뭔가가 쭉당기는 거였다. 쉽다고 생각한 크랙을 무작정 타고 왔더니 자일이 엄청나게 꺽인것이였다. 유통이 될리는 만무했다. 자유등반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 부드럽게 올라가도 모자랄판에 국내에서 훈련하다 매봉에서 자일이 걸려서 슬립을 먹었던 기억이 오버랩됐다. 게다가 여기는 몇백미터 위로 고도감이 최고였다. 다리가 슬슬 떨려왔다. 저걸 밟고, 저걸잡고 밸런스 잡고 일어나자 하고 계획을 세워봤지만 무리였다. 장비의 무게가 절로 느껴졌고 밑에 있는 볼트로부터도 올라온 상태라 떨어지면 저밑에 부딪힐게 뻔했다. 얼마나 오랜시간을 고민한지 모르겠다. '누군가 간길이다 해결법은 분명히 있다' 라는 마음으로 온바위를 더듬거리기를 수십차례… 럭키! 오른쪽 3시방향에 홈이 하나 있었다. 마치 누가 정으로 쪼아논거 같이 스카이 훅이 딱걸리는 틈이였다.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로 다행스러웠다. 석민형에게 훅을 쓴다고 외치고 스카이 훅을 걸고 일어나니 가로 크랙에 손이 닿을수 있었다. 지옥에서 불지옥으로 가는 순간이였다. 캠은 물론 심지어 너프도 안들어갈 정도의 얕은 크랙이였다. 망치질도 안되는 그냥 무늬만 크랙 이였다. 속은거같아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쩔수 없어 다시 훅을 썼다. 다음으로 벌어진 하켄 자국에 어거지로 C4캠 0호를 쑤셔넣었다. 캠이 반쯤만 걸렸지만 조금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 설치했다. 이게 잡아줄리 만무했다. 다시 왼쪽으로 훅 한번 더 쓰니 낡은 하켄을 만났다 하켄도 썩 튼튼해보이진 않았지만 그나마 조금 안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점점더 꺾이는 자일은 나를 미치게 만들어 버릴것 같았다. 하려면 아까 볼트에서 했어야 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어쩔수 없었다. 자일 자일!! 애타게 불러봤지만 될 리가 없었다. 괜히 너무 화가 났다. 나인지 석민형인지 아니면 조디악인지 알수 없었다. 아담온드라가 소리지르는거처럼 미친듯이 소리만 질렀다. 너무나 무서웠다. 하켄을 지나니 머리위로 2-3미터 위에 쓰리볼트가 보이는데 역시 크랙은 없었다. 입

이 바짝바짝 말랐다. 또다시 혹을 걸고 고정하켄 하나를 지나 확보지점에 닿을수 있었다. 조디악에서 가장 살떨리고 무서웠던 구간이라고 기억된다. 자일은 아마 거의 여섯 번은 꺽였을거다. 등반할 때 하늘이 어둡더니 정신없이 등반하고 보니 슬슬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줄도 모르고 등반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위는 젖지 않는다. 하지만 또 옆에 코스를 보니 폭포 처럼 물이 흘러떨어진다. 정말 신기 하다.

6월 25일
13,14,15

볼트하나 13피치 금방 끝난 14피치 길찾기 어려웠던 15피치

좋은 아침. 기대감에 일찍일어났다. 정상 혹은 하산까지도 할수있다는 생각이다. 비가 온다던 어젯밤은 걱정만큼 많은 비는 오지않았다. 조금의 이슬비만 뿌리고 지나간듯 하였다. 정말 다행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식량에 초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어제 나눠 놓은 알파미를 나눠서 먹었다. 넓은 테라스 덕에 해야하는 일이 줄어 쌍화차도 마셨다. 여느때와 다름 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울컥하였다. 청승맞게 괜시리 눈물이 날거 같았지만 참았다. 형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상에 간다고 생각해서 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게 사치라고 느껴져 이내 감정을 추스렀다. ' 아직 정상도 아닌데 김치국 마시자말자' 라고 혼자 되뇌이면서 준비를 하였다. 밑에 외국인팀도 우리의 소리를 들었는지 출발준비를 한다. 역시 넓은 테라스 덕분에 편하게 포타렛지를 걷고 출발 준비를 한다. 밑에 팀에게 미안한 감이 있어 서둘렀다. 장비를 착용하고 출발! 하려고 하였는데 석민형이 배가 아프다고 하였다. 벽상에서의 3번째 화장실 이였다. 시간 없는데 미리 가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화장실에 잘가는 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13피치 출발. 잊을수 없는 짜릿한 구간이였다. 초반부에는 무난하게 소형캠을 설치하고 2미터쯤 올랐다. 하지만 그위부터는 4호, 4.5호, 5호 캠만이 들어가는

조디악은 오버행이라 홀링이 대체로 쉽다



B.D. 4,5,6호로 돌려막기 식으로 등반



크기의 크랙이 이어졌다. 그것도 40미터쯤 이나 말이다. 개념도와 조디악 등반 보고서에서 익히 들어서 예상은 했건만 이 정도 일줄은 몰랐다. 생각하면 안되지만 자꾸 이게 빠지면 얼마나 떨어질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4호캠은 각각 블랙다이아몬드, 메톨리우스, 트랑고, 록테릭스가 있었는데 역시나 비싼 순으로 믿음직 스러웠다. 보통 캠 2개를 사용하여 교대로 밀고 올라가는게 정석적인 방식이지만 나는 3개를 이용해서 백업하면서 올라갔다. 하나를 설치하고 제일 밑에 있는걸 빼도 2개가 잡아주는 나만의 족보없는 등반 법이 였다. 초반 10미터는 그냥 그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갈수록 공포감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결국 자주 안쓰는 록테릭스를 아주 튼튼하게 설치하고는 올라갔다.

그나마 공포심이 줄어들었고 10미터를 더올라 20미터 중간의 헤트 볼트에 도착했다. 하나있는 볼트가 헤드볼트에 와이어라니… 이거 잡을수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께림찍해졌다. 볼트를 지나 그래도 안심하고 출발하려 했다. 하지만 그위에는 또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4호캠이 거의다 펴져도 잘 걸리지 않는 큰 크렉으로 바뀌는 것이였다. 5호만 튼튼하게 설치 되는 것이였다. 물론 5호도 2개였지만 그걸로는 믿음이 안가서 4호도 중간중간 사용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4호를 썼던게 더 위험했던거 같다. 조금만 흔들려도 덜컥 거리면서 캠이 뒤틀리는데 스릴 만점 너무나도 짜릿했다. 겨우겨우 공포심을 이겨내니 위쪽에는 중간 크기의 캠들이 맞는 크랙에 돌입했고 쉽게 지나칠수 있었다. 큰 천장을 만나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회수하는 형을 생각하지 않고 막 설치하여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등반완료! 이때 하늘이 파랗게 개였다. 정상에서의 멋진 풍경을 보여주려고 엘캡여신이 축복해주나 보다. 그리고 홀링에 돌입 가벼워진 홀백과 오버행의 벽은 홀링의 수고로움을 줄여주었다. 밑에 외국팀과 석민형은 많이 친해진거 같다. 다음 14피치등반. 어떻게 갈까 생각하는데 석민형이 진짜 쉬운데 뭐하냐고 했다. '미끄러지면 무서운데 거기다 여기는 14피치고 뒤는 완전한 절벽이라구요!'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다. 루트맵과 완전 일치하는 크랙 모양을 따라 등반 시작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 정말 정말 공포심이 많이 줄어 들었다. 부서질것 같은 얇은 덧장바위에 스카이훅을 걸고 트레바스를 해도 이제 그러려니 했다. 처음에 봤으면 금세 부서질까봐 겁먹었겠지만 '부서질테면 부서져라와 '이거 딱보니 안부서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반을 하였으면 피쉬훅, 스카이훅 쓸자리는 거의 딱딱 나있었다. 'ㄱ' 자의 크렉을 타고가다 다시 우측으로 한번 꺽어지는 크렉으로 이동하였다. 크렉이 끝나는 지점은 난이도 5.2의 넓은 테라스였다. 폭이 1미터가 넘는 석민형 말에 의하면 운동장이라는 곳이였다. 하지만 확보물 설치할 곳은 없는 곳이였다. 아 비참하게도 뛰어서도 갈만한곳을 벌벌 거리면서 트레바스 하였다. 솔직히 트레바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다. 등반 완료. 넓은 테라스라 홀링, 그리고 대기의 부담은 거의 제로였다. 반면 석민형은 이리저리 꺽어져 설치되어있는 확보물을 회수하느라 또 애를 먹었다. 거의 킹스윙에 가까운 팬듈럼을 해야만 했다. 생각이 있었으면 확실한 확보물에서 회수를 한번 했을텐데 등반을 깔끔하게 하고 뒤처리가 애매하다. 석민형 왈' 밑에 외국인들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좀 화가 난거 같다' 라고 했다. 아 정말로 엄청난 미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한피치 남은 시점에서 미안하다고 하기보다는 정상에서 먼저 말하기로 했다. 15피치 등반시작. 짧은 구간이여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출발했지만 길이 너무나 난해했다.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개념도를 봐도 도통 모르게 생긴 길이였다. 마지막이라고 자신감있게 우측으로 올라갔지만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이제까지는 딱보면 딱이였는데… 과감하게 가자 했던 마음 은 사라지고 어느새 캠두개를 설치하고 당황하고 있었다. 한발짝 물러나면 보인다고 했던가. 석민형이 오른쪽에 하켄이 있다고 가보라 하니 정말 있었다. 하켄 쪽으로 가니 정말 길이 있었다. 박을 만한 크랙은 아니라 예전에 하켄을 박았던자

리에 캠을 설치하며 올라갔다. 벌어진 홈이라 애를 먹었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짝 의지하고 올라갔다. 마지막 작은 천장을 만났는데 역시 좌측인지 우측인지 알수 가없었다. 우측에 낡은 슬링이 보여 가보니 역시나 럭키였다. 우측 턱에 먼저간 솔로가 자일 손상을 막기위해 붙여놓은 덕테이프 자국이 보였다.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다. 가로로 나있는 크랙에 캠을 하나 박고 나니 쓰리볼트가 보였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고, 이제까지의 모든 순간이 영상처럼 스쳤다. 말로 형용할수 없는 느낌이였다. 쓰리볼트에 확보줄을 걸고 머리를 팍하고 부딪혔다. 잠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순간을 오래 느끼고 싶었던거 같다. 한참을 지나 고개를 돌려 앨캡의 전경을 감격스럽게 바라보고는 등반완료! 라고 외쳤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일을 설치하고 정상을 밟았다. 더 이상 등반할일이 없기에 '장비를 풀고 홀링을 하자' 라는 생각에 평평한 곳까지 가서 장비를 벗었다. 걷는다는 느낌이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온몸에 힘이 다빠진거 같았다. 쓰러지듯이 기어랙을 풀고 무거운 장비를 해제했다. 풀고보니 무게가 사뭇 실감이 났다. 가벼운 몸만큼이나 마음도 그러했다. 너무 오래 지체 할 수 없어 바로 홀링을 시작했다.

어차피 마지막 피치니 석민형에게 부탁하고 그냥 누워 있을까 하고 잠시 생각했지만 서로 힘들거니 내가 마무리 하고 쉬기로 했다. 턱진 곳이라 자세가 영 안나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홀링이라 힘들지가 않았다. 곧이어 석민형이 올라오고 등반이 종료 되었다. 형도 역시 지쳐보였다. 똑같이 장비를 풀었다. 태연하게 서로 포옹을 했다. 역시 둘다 여러 감정이 교차 하는듯 싶었다. 하고싶은 말도 많았지만 아무말도 할수없었다. 눈빛으로 다 알겠다는 기분이였다. 모든게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순간이였다. 등반의 힘듬, 배고품, 서운했던 기분, 공포 등 한순간에 잊게 해주는 정상의 기쁨. 이거 하나를 보고 이 고생을 했나 보다. 아차! 엽서와 돌이 있었다. 조디악 밑에서부터 가져온 조그만 앨캡의 돌조각 8개와 8장의 엽서. 기어렉에 항상 가지고 올랐던 것들을 꺼내어 하프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비싼 선물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그것보다 더큰 마음이 전달 되었으면 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너무 오래 취해 있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아직 하산이 남았기에 긴장을 늦출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상 오늘 하루도 정상에서 머물러야 했다. 서둘러 짐정리를 했다. 종류별로 간략하게 분류를했다. 하산하면 정리할시간이 얼마 없으니 미리하자 라는게 이유였다. 얼마후 외국인 등반팀이 올라왔고 반갑게 인사했다. 수고했다고,그리고 미안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엄청나게 일정이 길어졌





정상등정 직후 하프돔을 배경으로

고 식량도 부족했을 것을 알기 때문이였다. 외국등반팀에게 부탁해서 사진도 찍었다. 장비도 정리하고 나서 정상을 한바퀴 뒤졌다. 물은 생각보다 마시지 않아 충분했지만 식량이 부족했다. 교무님과 무전에 의해 다른팀이 통조림 같은걸 두고 갔다고 들어서였다. 이곳저곳을 뒤졌는데 겉이 누렇게 녹슨 통조림들만 있을 뿐이였다. 석민형이 찾았다고 해서 가보니 역시 녹슨것을 찾은 것이였다. 절대 못먹을거 같았는데 형은 그걸 열어서 맛보는 것이였다. 내용물은 미트볼파스타 였다. 먹는 모습을 신기하게 처다봤더니 아직 배가 덜고팠다고 했다. 배고파도 저건 먹기 어려울거 같다. 형도 한수저만 먹고는 내려놓고 마지막 알파미 하나와 3분카레를 먹기로 하였다. 조금 비축해둔 덕분에 이나마 있는것 같아 다행이였다. 헌주형이 주신 쌍화차까지 먹고 석민형은 외국인팀이 준 말아피는 담배를 한까치 하고 저녁을 끝내게 됐다. 담배가 뭐길래 형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음악을 들으며 즐기는 정상에서의 밤은 환상이였다. 게다가 평평한 바닥에서 잘수있다는것에서부터 수만가지의 감사함이 있었다. 그래도 나름 고도가 있는곳이라 이슬이 축축하게 내렸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6월 26일
하산

아침해가 떴다. 7시가 다되도록 늦잠을 잤다. 얼마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자는건지 모르겠다. 더 이상 포타렛지가 흔들리는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더 늦게 잠을 자기로 한다. 아홉시쯤에 교무님과 무전하기로 하여서였다. 아침은 먹을게 없다. 행동식에서 조금 남은 빵과 된장국을 먹었다. 무말랭이도 함께 먹으니 나쁘지 않다. 식량이 정말 아슬아슬 했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하산이 매우 힘들었을것 같다. 햇살이 꽤나 따가워서 더 이상 정상에 있기가 그래서 짐을 챙겼다. 이것 저것 챙길것이 한짐이다. 홀링할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짐이 있었나 싶다. 더군다나 차고있던 장비까지 넣다보니 홀백이 위로 볼록 튀어나온다. 메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벌써 아찔해졌다. 잠시후 교무님과 무전이 되었고 하산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산로는 1시간 정도 케른을 따라 내려간뒤 4번의 하강을 하고 다시 3시간여를 걸어가야 하는 것이였다. 어디가 하강포인트고 주의사항들을 들었지만 크게 머리속에 각인되지 않았다. 조금 막연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였다. 쌍화차까지 한잔하고 내려가기로 하였다. 내려가려고 하니 기분이 색달랐다. 죽자고 올라온길을 내려간다고 생각해서였다.
우리와 거의 함께한 외국인 친구들도 일어나서 아침을 보내고있었다. 석민형은 이제 더친해져서 재학생후배 보다 더친할지도 모른다고 까지 하였는데 그럴법도 하였다 정말 오랜시간을 함께했다. 아쉬움에 메일주소도 주고 받고 사진도 함께 찍었다. 특히나 석민형이 담배를 하나 주라는 식으로 말아진 담배를 가르켰는데 노노노노라고하며 유사담배라고 하였다. 정상에서의 유사담배 나쁘지 않았다. 담배를 두 개 말아주고 조심히하라는 말과함께 헤어졌다. 이 두명의 등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는 의심스러웠다. 친구이상의 사이 같았다. 1시간 정도 계속 내려갔다. 흙길과 바위길을 연속해서 지나갔다. 생각보다 홀백은 무거웠고 길도 숲길이 아니라 걷는게 쉽지 않았다. 하강포인트에 거미줄 같이 된 바위가 있다고 하여 언제 나오나 벽만보고 갔는데 좀처럼 나오질 않았다. 걷다보니 정말로 딱 그렇게 생긴 벽이 나타났다. 홀백을 내리고 하강 포인트를 찾아 갔다. 슬링이 있는 하강포인트는 무시하고 쇠사슬을 찾았다. 약간 아슬아슬한 슬랩을 타고 내려가야 했는데 나름 안전 하다고 생각하여 홀백을 메고 그냥 걸어가는 것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석민형은 자일을 깔고 내려가자고 하였다. 번거롭고 하나도 위험할



하산길



홀백 무게로 하산이 만만치 않다

게 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랬다. 결국 나의 고집에 의하여 그냥 내려가기로 하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석민형 홀백은 흔들거리고 고정이 안돼서 균형이 잘안잡혔다. 만약 내가 저걸 들었다면 나도 감히 그냥 내려가자고 하지 못했을거 같다. 아슬한 슬랩을 내려가니 하강 쇠사슬이 나왔고 픽스된 스테틱 로프도 보였다. 여기서 또 홀백을 내리는 방식을 두고 석민형과 의견이 나뉘었다.

나는 그냥 벨트에 달고 하강 하자는 거였고 형은 홀백 먼저 내리고 사람은 따로 가자고하였다.

익스트림 선배님들이 달고 내려오라고 하여서 괜히 그렇게 말한게 아닐거라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자고 했다. 석민형이 안전같이 중요한 문제에서 왜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말했다. 나도 내가 무모한가 싶어 뜨끔했다. 형이 먼저 내려가고 내가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전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석민형이 내려갈수 있게 홀백을 밑으로 축처지게 해주었다. 형이 먼저 내려가고 내가 혼자 홀백을 내리는게 걱정되는지 괜찮겠냐고 물었다. 모리분타로니까 괜찮다고 말했다. 형이 한피치 씩 먼저가고 나도 홀백을 내렸다. 살짝 몸이 기우뚱 했지만 문제 없었다. 중간 중간 턱진부분이 있어서 발로 툭툭 차주면서 내려갔다. 이번에는 홀백하고 대화를 했다. 야이놈아 안내려가냐 그래 말로안되면 맞아야지 하면서 욕도 하면서 참 웃기게 내려갔다. 피치가 끝나는 지점마다 테라스가 있어서 자일 갈아타기가 매우 용이 하였다. 하강을 긴장했는데 오히려 더 편했다. 차라리 이런식으로 바닥까지 닿았으면 싶었다. 하강 4번을 하자 석민형이 바닥에 서있었고 이제 정말 하강까지 다한거 같다면서 포옹을 했고 수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치국을 마시기에는 일렀다. 무등산 너덜지대와 같은 지형이 이어졌고 오히려 걸어내려갈 때가 너무 곤혹스러웠다. 이미 지쳐있었고 홀백이 누르는 힘도 더 크게 느껴졌다. 처음에 교무님과 무전을 해서 5시간 정도일거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나 절망적이였으나 다시 무전이 와서 3시간 좀 안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행이다 싶었다.

3-2-1. 대원별 등반기



작성자 | **문석민**

6월 5일 – "인공등반은 수화물 패킹이다."



인천공항 수화물 접수

베이스 캠프인 도균이형 집에서 패킹 작업을 시작한다. 늘 그래왔듯이 하루만, 한주만 더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의 한숨 소리로. 우리 팀의 첫 번째 위기.

사실 항공권 예매를 하기 전에 각 항공사 별로 수화물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두달전에 항공료가 가장 저렴한 유나이티드 사로 예약하고 일주일 전쯤에서야 수화물 규정을 알아봤는데 아뿔사! 23kg 이상을 추가하면 100달러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항공 수화물 규정이 한사람당 23kg인데 기내 수화물 10kg을 뺀다 하더라도 적어도 23kg 가방 두 개는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껴보고자 최대한 홀백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는다. 결국엔 카고백을 하나 더 챙겨가는 것으로 결론 짓고 새벽 4시가 돼서야 잠을 청한다.

6월 6일 – "인공등반은 비행기 이륙시간이다."

12시 20분 인천공항에 도착. 특수화물인 포타렛지와 일반 수화물 카고백 두개의 추가 비용 200불을 쿨하게 지불하고 여자 친구를 기다린다. 고작 3주짜리 미국 암벽 원정인데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수험생인 여자친구가 몸소 배웅을 나온다길래, 굳이 된다고 했것만… 그래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나 보다. 2시간 정도 이륙시간 지연으로 저녁 식사권을 제공 받았다. 지연된 시간이 단지 여자 친구와 좀 더 함께 있을 수 있었던 보너스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아주 큰 오산이었던 것이다. 이 2시간의 지연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새벽 2시 30분에 늦게 캠프4 도착

일정이 빠듯하게 되었고 요세미테 캠프장 새벽 도착으로 다음날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피로감을 쌓아 둔채 추진하다 보니 등반 시작도 전에 퍼질 판이고 자칫하면 원정 일정 전체가 틀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 이면 비행기 이륙시간을 현지 도착일정과 비교하여 요세미테 캠프장에 적어도 10시전에는 도착하도록 잘 조절하여 예약 하는게 아주 중요하다.

6월 7일 – "인공등반은 Camp4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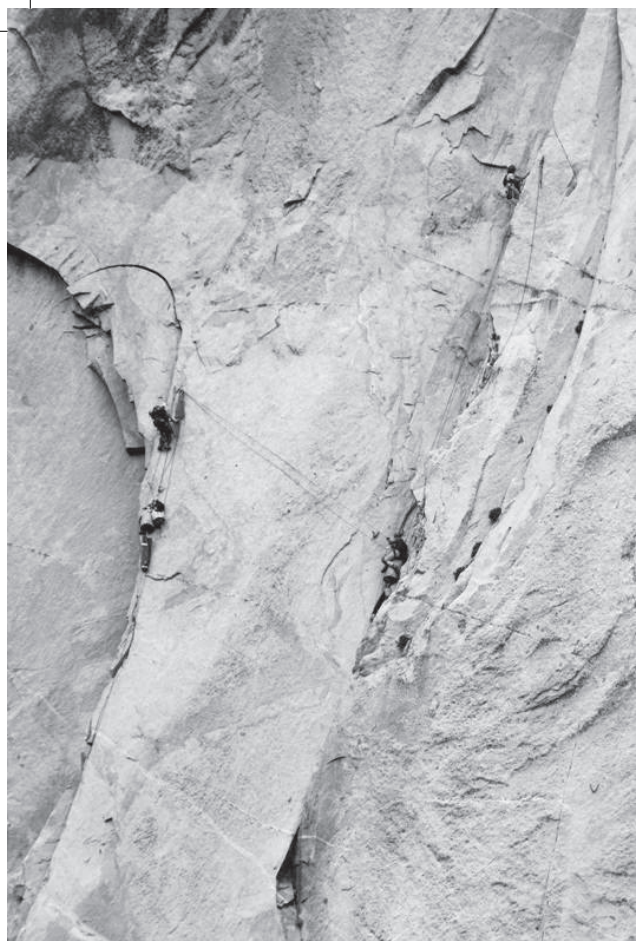
새벽 5시부터 사이트 배정표 대기중

02:20분 새벽에서야 캠프4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1년간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엘캡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기쁨과 설렘은 잠시뿐 익스트림 등산학교 교무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잠을 청하고자 조심스럽고 빠르게 식량과 장비를 한국팀 텐트 사이트 저장창고에 대포 시킨다. 자고 있는 옆집 등반팀에 방해가 될까봐 교무님은 거듭 우리들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며 충고 아닌 협박을 주신다. 요세미테에 와서 제일 먼저 구경 하는게 공중화장실 이라니! 생각보다 깔끔하다. 콘센트도 확인하자 무언가 성취한 듯 뿌듯해 한다. 3시 반이 되어서야 대충 짐정리가 끝나고 비박준비를 하지만 지금 내가 정말 미국 땅에 누워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침낭 속에서 뒤척거리다 4시 40분에 벌떡 일어난다. 등산객과 관광객이 많은 시즌기간이라서 캠프사이트를 배정 받을려면 5시 정도에 미리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 공기가 꽤 쌀쌀하다. 이른 시간에도 매표소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외국인이 8명 정도가 있다. 도균형도 매표소 앞에 매트리스를 깔고 이제야 안도가 되셨는지 침낭 속에서 주무신다. 5~9월 시즌 기간에는 한사람당 1주일만 캠프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침 8시부터 레인저가 순번표를 나누어 준다. 교무님이 저를 급히 부르시더니 너희는 등반 기간이 기니깐 이틀 후면 캠프장을 떠날 관광객 한분이대신 배정을 받고 너희는 최대한 머릿수를 아끼는게 어떻겠냐는 것이다. 우리로써는 무지 감사할 따름이다. 캠프장 배정부터 생활까지 요세미테 국립공원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캠프 란을 참조하기 바라며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 두가지만 언급 한다. 첫째 팀원 전부가 접수하면 안되고 반드시 한명만 접수해야 한다. 등반 일정이 길든 짧든 그렇게 하는게 좋다. 접수 받을 때 텐트 배정표와 주차증과 가방 개수에 맞게 가방텍을 주는데 한 3~4개정도 넉넉히 받아서(더 달라고 하면 준다.) 꼭 가방에 배정표를 달아야 한다. 레인저가 매일 순찰을 도는데 텐트 배정표하고 가방텍하고 음식물 관리는 꼭 확인하는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레인저가 순찰 돌때는 혹시라도 걸리면 하는 맘에 도망치 듯 뿔뿔이 흩어지기를 거의 매일 있었다. 두 번째는 텐트 사이트를 배정 받을 때는 화장실과 음식물 저장창고가 가까운 곳이 아주 좋다. 그래서 캠프장에 도착 했을때 다른 대원이 풍수지리학적인 위치를 여러 군데 물색하고 나서 배정을 대기하는 팀원에게 일러주면 될 것 같다.
음식물 저장창고 철제문에 하약색 페인트로 13A 이렇게 텐트사이트 주소가 적혀있다.
물을 길으러 화장실을 자주가고 다람쥐 때문에 저장창고에 수백번 들락거리다 보면 그것도 참 짜증날 노릇이었다.

6월 8일 – "인공등반은 물 2L이다."
– 앨캡과 첫 대면식, 식수 및 장비 데포시키는날


뙤약볕 아래 등반중인 외국 팀들

04:30분 기상. 06:20분 앨캡 브릿찌에서 반대편 차선(앨캡을 오른쪽에 끼고)을 따라 50여미터 걸어가다보면 오른 편에 잡풀사이로 등산로가 잘 보인다. 앨캡을 정면에 두고 등산로를 계속 따라가면 첫 바위 대면식이 있는데 그곳에서 왼편으로 돌아 올라서야 한다. 우리는 초입 부분이 만만하게 보였는지 별 의심도 없이 노즈 코스가 보이는 바로 밑에서 크랙을 따라 올랐다. 무거운 홀백을 메고 자유등반하는게 불가능함을 깨닫고 홀링을 하기로 결정한다. 비탈길에 크랙도 있어 초반부 홀링에 우리들은 하루치 훈련불량을 훨씬 능가하는 체력을 소진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른 아침이라 선선한 날씨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어 비오듯이 땀을 흘리며 홀링을 해도 행복 했었다. 그렇게 사진 속에서만 봐왔던, 재학생시절 한번쯤은 와보고 싶었던 열망의 대상 이었던 이 곳에 이렇게 두발로 서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행복 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1피치 등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24일간 생 지옥에 들어 섰다는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1피치 조금 사선으로 벌어진 크랙을 육안으로 파악해보고 작은 캠만을 준비하여 본격적인 스타트를 시작해 본다. 오른쪽 크랙을 10미터 올라서면 3명이 비박을 해도 될 정도로 넓은 테라스가 나오는데 일단 작은 캠만으론 등반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중간에 캐머롯 5,6호로 확보지점을 만든다. 다시 홀링. 선등자인 내가 위에서 댕기고 밑에선 민준이가 발로 차주며 밀어준다. 이곳에선 노즈 코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바로 우리위에 외국팀이 등반하고 있었고 그들은 홀링을 아주 쉽게 하는 듯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은 홀백 하나에 4피치까지만 줄을 깔고 그 다음날 크랙도 없는 평탄한 4피치 하강루트로 두 번째 홀백을 끌어 올리면서 체력과 시간을 아꼈던 것 같다. 물론 하루가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2피치 까지만 데포시키고 다음날 4피치까지 홀링 한 것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방법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적극 동감한다. 해가 중천에 떴을때,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번 원정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점이다. 한 삼일간 이 곳 낮 기온은 정말 요세미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찜통 더위였다고 한다. 섭씨 40도에, 달궈진 바위에, 출국 전날부터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하고 피로감은 쌓여 있는채, 하루치 식수가 1피치에서 바닥난 것이다.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숨만 쉬어도 입안이 바짝 타들어간다. 1피치 중간지점에서 슬립을 한방 먹고 갈증 때문일까 캠이 빠진 그 자리에 다시 캡을 설치 할려니 짜증이 솟구친다. 마무리 해결사 민준이로 선수 교체를 하고 2피치에서 하산하기로 결정, 홀백에서 물한통을 꺼내어 내일 채우기로 한다. 앨캡 맞은편에 흐르는 머세드 강에서 펜티까지 홀딱 벗고 미친듯이 수영을 했다. 정말 천국과 불구덩이 생지옥을 몇분사이에 왔다리갔다리 하는 것 같다. 더위는 식혀졌지만 첫날부터 완벽한 실패에 대한 좌절과 두려움은 쉽게 씻어 지지는 않는 것 같다. 과연 우리가 31피치까지 올라 갈수 있을까?… 정말 해낼 수 있을까?…



7피치 트래버스 홀링구간. 홀링이 핵심이다

6월 9일 – "인공 등반은 악마들의 유혹이다."
– 2피치에서 4피치로 데포시키는 날.

불구덩이 속 등반, 시작도 전에 두려움이 앞선다. 3피치 등반은 민준이가 시작한다. 이번 요세미테 원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다. 정말 힘든 날이었다. 아침 일찍 등반을 시작해 보지만 원체 느린 등반 속도에 스페인 팀에게 2피치 선등을 양보하고 3피치에서도 환갑축하 기념 등반팀에게도 또 다시 양보한다. 속도가 더디어서 밑에 팀에게 민폐 끼친다는 생각에 등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렇게 래더 한계단씩 오를 때마다 갈증은 2배가 되고 하켄 자국 구멍에 종이 한 장 차이로 캠이 걸리지 않을 때면 갈증은 정말 4배가 된다. 우리는 점심도 먹지 않고 간식도 먹지 않은채 물 3L만 연거푸 마셔 댔더니 빈속에 너무나 허기진다. 어느 누가 한명 밥 먹자는 말이 왜 없었을까? 극심한 갈증에 밥 생각이 완전 달아나 버린것이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했는데… 3피치 지점에선 정말 현기증이 나고 오바이트가 나올것 같았다. 퍼진다는게 이런 것일까? 덕테이프로 감은 날진 통 물이 더 시원하다며 민준이가 수통을 건네준다. 민준군은 힘들어도 항상 얼굴이 웃고 있는 상이다. 나도 패기와 활력 넘치는 20대였다면 웃으면서 홀링 했을까?. 민준군의 넘치는 에너지에 감탄할 따름이다. 그와 반면 도균형은 얼굴 절반만한 고글을 쓴채 이틀 동안 무표정으로 가만히 계신다. 무슨 생각을 그리도 곰곰이 하시는 듯 항상 먼 곳을 가만히 주시 하시는게 주무신 듯 하다.

내 후년이면 불혹의 나이라며 산에서 노인을 학대 하는게 가장 잔인한 범죄라고 하신다. 거의 물이 떨어졌지만 4피치만 가면 홀백에서 물을 꺼내 마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위안을 삼고 진정해 본다. 환갑 등반팀의 도움으로 4피치까지 등반자일을 픽스하고 도균형, 민준군 차례로 4피치까지 저깅

질 완료 후 마지막 주자인 내가 홀링 자일을 풀어 줄때이다. 홀링 여분의 자일이 하프클로브히치 매듭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너에 8자 매듭으로 픽스 되어 있었다. 홀백을 한손으로 댕기며 볼트에서 비너를 빼보려 하지만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비너 하나를 볼트에 걸고 홀링 여분의 자일을 통과 시킨 후 안전벨트에 반클로보히치 매듭을 한 후 확보줄에 연결한 주마를 홀링 자일에 걸고 두손으로 힘껏 댕겨본다. 젖먹던 힘까지 써서 겨우겨우 살짝 틱진 부분에 무게를 옮긴 뒤 픽스 된 비너를 한 손으로 재빠르게 뺀 순간 앗뿔싸!!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난 쌍볼트에 확보되지 않고 등반 자일에 주마와 그리그리로 확보되어 있었고 확보줄과 주마에 연결된 홀백 무게에 못 버티고 떨어진다면 20미터 정도 날라서 옆에 서있는 바위 벽에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판이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엄습한다. 발바닥 절반 만한 테라스에 미끄러지지 않을려고 확실히 자리를 잡아 보려 하지만 홀백이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떨어질 것 만 같다. 시커먼 홀백이 자꾸 나를 댕기는 것이 마치 앨캡의 악마 두 놈이 나를 불구덩이 생지옥으로 끌고 갈려는 듯 했다. 나의 확보줄에 연결된 주마 그리고 홀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주마 이빨이 홀백 무게에 자일 깊이 물려져 있고 주마는 매듭 끝까지 밀어져 있어서 도저히 주마를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찌 되었든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쌍볼트에 많은 비너와 슬링 얽혀져 있어 정리를 하다가 등반 자일에 확보도 할겸 저깅질 할 준비를 해놓고서 홀백을 내려줄 준비를 한 것이다. 직등이었다면 덜 위험 할수도 있었겠지만 3피치에서 4피치로 크게 트래버스 해야 하는 구간이라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다.

홀백을 서서히 풀어주고 나서 4피치 하강지점까지 팬듈럼으로 건너간다. 난 바로 바닥까지 하강. 4피치 까지 올라가서 물과 간식을 먹고 싶지만 50미터 주마질 하느니 차라리 아래에서 기달리는게 낫겟다 싶어 바로 하강한다. 기어렉과 헬멧을 벗어야 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린다. 너무도 허기지고 기진맥진하고 몸에서 열이 난다. 모기에 물리든 말든 나무 그늘 아래에 풀썩 주저 앉고 그들을 한 참 기다린다. 아마도 기절했던 것 같다. 인기척에 깨어나 보니 외국인 세명이 마라톤 복장으로 지나가는데 난 마치 좀비 처럼 “Water, Water." 를 비틀거리며 연신 외쳐 됐다. 쓴 웃음을 지으며 날진통 절반 가량을 채워주는데 그 물을 순간 비우고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헐떡거리며 다시 주저 앉는다.

다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자 팀원들과 간식을 먹는데 그렇게 허기지고 배고파 곧 죽는다 해도 쌀과자는 아무도 먹지 않았다. 교무님과 연락을 취하고 우리는 샤워장에서 몸을 말끔히 씻고 캠프장에 도착하여 앨캡 더위에 놀란 가슴 미국산 쇠고기로 달래어 보았다.

6월 10일 – “인공 등반은 정신력이다.”
– 휴식 하는 날, 소고기로 체력보충



휴식날 쇠고기로 체력보충하는 팀원들

6월 9일 밤, 우리는 교무님에게 조언을 얻고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9일날, 다른 외국 등반 3팀도 물 부족으로 결국엔 하산 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유례없는 기록적인 더위였나 보다. 나는 내일 하루를 현지 적응과 체력도 보충할 겸 하루 쉬어 보자고 제안했다. 도

균형은 아무말 없이 생각에 잠기시더니 민준이의 의견을 물어본다. 민준이 입장은 휴식을 가져도 어차피 힘든 것은 마찬가지 이니깐 당초 계획대로 등반을 하자는 것이다. 민준이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박해 본다. 오늘과 같은 등반이 내일 또다시 이어진다면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현지 사막기후에 좀 적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았다. 하루 쉰다고 적응이 되겠냐고 의문을 가질수 있다. 인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기에, 하루라도 더 건조한 기후에 적응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난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출국 전날부터 어제까지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피로감이 극에 달했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도균이형 귀국날짜도 3일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옆에서 찬찬히 듣고 계시던 교무님이 한말씀거두어 주셨다. “하루 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야간 등반도 감수하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등반 할려면 끝도 없다.” 결론은 “ 인공 등반은 정신력이다.” 라고 끝으로 말씀하시자 나는 “ 인공 등반은 물이다.” 라고 말씀 드리자 교무님이 웃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1년여 간을 준비해 오고 비싼 항공료 내고 미국땅 까지 어렵사리 왔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큰 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오히려 여유를 갖고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실질적인 방법이 휴식이고 등반을 잘하는 사람보다 체력이 좋지 않은 팀원에 운행속도를 맞추는게 맞고 사실 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은 아니었지만 언성이 높아지자 조금은 긴장감이 도는 듯 했다.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 챈듯 원정대장 도균형이 결론을 지으신다. “ 내일은 휴식이다. ”

휴식이라고 해서 아침 늦게 까지 잘 생각은 없었다. 잘 먹으면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아침에 된장국을 먹고 점심은 커리빌리지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저녁은 소고기와 체리로 영양 보충을 해본다. 내일 또 4시에 기상하여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찍 취침을 해야한다. 정말 하루 종일 삼시 세끼 챙겨 먹다보니 그렇게 하루가 가버렸다. 쉬어도 쉬는게 아닌 듯 했다. 아! 6시간 후면 또 다시 불구덩이 생지옥에 들어가야 하다니, 정말 해낼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불안감에서 인지 12시가 되어도 잠이 오질 않는다.

6월 11일 – “인공등반은 홀링이다.”
– 정상 공격날, 그리고 6피치에 데포 시키고 하산.

어제 휴식을 하였다는 기분 탓인지 아침 공기가 어느 때보다 상쾌한 듯 하다. 일찍 출발하기 위하여 아침식사를 분주하게 처리하고 곧장 4피치 하강지점으로 향한다. 4피치까지 저깅질 할 픽스 로프 보니 시작도 전에 주눅이 든다. 아! 200미터 주마질이라니… 하지만 앞으로 3번은 더 주마질 할 것이란걸 꿈에도 몰랐다. 우리는 서울 태능 팀의 픽스 로프 사용을 허락받고 포타렛지를 안전벨트에 걸고 등강기 두 개에 래더를 걸고 요세미테식 주마질을 새로이 시도해 본다. 완전 오버행이 아니고 양 발이 벽에 닿는다면 요세



4피치 하강 지점. 60m 자일 4개를 올라야한다

미테 식 저깅질을 하는게 훨씬 쉬웠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쉬엄쉬엄 한발짝씩 올라 4피치에 도착하니 숨도 고르기 전에 외국팀 홀백 6개가 먼저 나를 반긴다. 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앨캡에서 제일 인기 있는 노즈 코스라지만 이정도 일 줄이야. 수북이 쌓은 홀백 사이로 몸을 내 던지고 담배 한 개피를 물고 나서야 파란 하늘과 어울러진 요세미테 풍경이 내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달콤한 휴식도 잠시뿐, 앨캡에서 가장 쉬운 코스, 할머니도 걸어서 올라간다는 노즈 5,6피치를 도균형이 연달아 선등 서신다. 역시나 그는 한치에 망설임도 없이 매끄럽게 6피치 바로 밑까지 세계 최단기록으로 올라가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하강을 결정하고 마무리 해결사 민준군에게 양보 하신다. 너무 쉬어서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래더를 안가지고 간 것인지, 깜빡 한 것인지, 민준이 그 역시 세계 최초로 래더 없이 6피치 등반 완료를 외친다. 홀백을 트래버스로 조심히 내려주고 민준군이 미친 듯이 홀링을 시작하는데 한나절은 걸린듯 하다. 선수교대를 위해 장비 회수를 하며 석민군이 올라간다. 6피치 쌍볼트 바로 옆이 깊고 넓은 침니 구간이라 스탠스가 좁아 선수 교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민준군은 시간상 그냥 자기가 홀링을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수백번 일어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나서야 15미터 아래쯤에서 고개를 내민다. 홀백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반갑던지… 민준이를 도와주고자 홀링 자일을 구호에 맞쳐 같이 당겨보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그렇게 선등자 등반에 홀링까지 하고 나니 점심 시간이 훌쩍 넘어 버렸다. 홀링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등 따로 홀링 따로 시스템이 엉성하게 돌아가니 하루에 3피치를 나아가는 것이 절대 무리란걸 깨달았다. 우리는 무리라고 판단, 현지 적응기간이라 생각하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하강 완료 한다. 비록 오늘도 하산을 하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여유가 있다. 물론 날씨가 첫날에 비하면 많이 선선해 졌고 현지 환경에 적응도 되는 것 같고 홀링 시스템에도 익숙해 지는 것 같고 등등 나만의 착각일수 도 있겠지만 일정상 여유 날짜가 있어서 인지 이렇게 조금씩 올라서 보자. 이런 마인드 였나 보다. 머세드 강에서 샤워를 하고 내일 정상 공격을 위해 서둘러 캠프장으로 이동한다.

6월 12일 – "인공등반은 대기번호표이다." – 정상 공격날, 하지만 또 하산



4피치에서 대기중인 많은 해외 팀들

2013년 6월 시즌 최연소 등반자인 민준이가 04:00에 우리를 깨운다. 평소와는 좀 다르게 오늘따라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최대한 바위에 빨리 붙어서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맘에서 일것이다. 어젯밤 가스등불 아래에 담배를 피우며 '죽어도 4일만 버텨보자,' 이렇게 맘을 굳게 다지고 또 다졌건만… 왠지 모를 이 불안감은 뭘까?, 바로 대기 번호표가 없어서 이다. 4피치 시클릿찌에서 외국 다른 등반팀을 만났을 때 서로 일정이 겹치 않기 위해 서로 일정을 물어본다. 어제만 해도 3팀이 있었는데 오늘은 추가된 등반 팀이 없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는가. 서울 태능 팀은 우리보다 3일 늦게 캠프장에 왔는데 우리 일정에 맞춰서 공격날을 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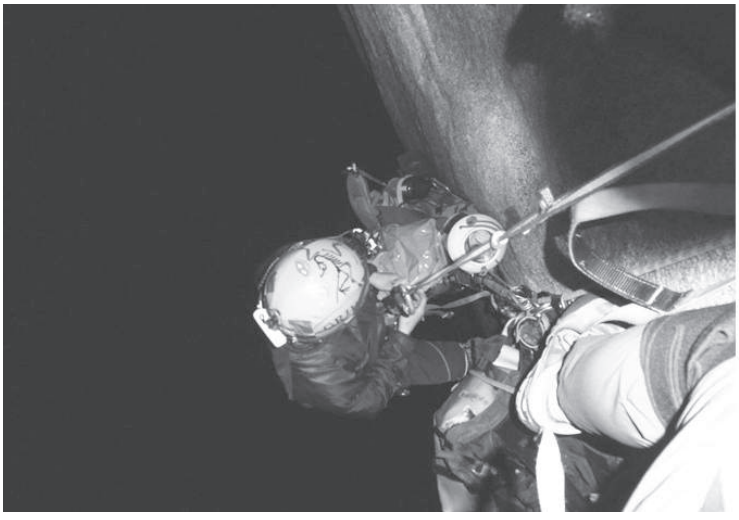
는 듯하다. 4피치 하강포인트 시작점에서 환갑기념 등반팀을 또다시 만났다. 둘째 날 함께 고생해서 인지 무지 반가웠다. 하지만 그들은 이른 새벽 아침인데 4피치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하산을 하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랬다. 그들은 새벽 3시부터 와서 4시간 대기하다가 다른 코스로 변경 했다. 이유는 먼저 선등을 시작한 또 다른 미국팀이 너무 등반이 느려서 과감히 코스변경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래도 이른 아침인데, 그들의 결단력에 감탄할 뿐이다. 환갑이시라던 어르신과 서울팀 박종관 형님은 세계 7대륙을 등정하셨고 앨캡을 10년 동안 해마다 오신다고 하셨다. 칼 같은 결단력이 나오실만 하다. 환갑이신 어르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요세미테 거벽 등반을 위해 젊은 시절에 이민을 오셨고 암질을 좀 더 이해하고자 뒤늦게 미국 지질학과도 졸업하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다. 박종관 형님과는 요세미테에서 첨으로 만나셨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환갑 잔치를 앨캡 노즈에서 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며 무조건 올라간다. 4피치에 올라서니 호주팀 5명 대기중이고 5피치에 가이드 미국팀 2명, 6피치에 한팀, 7피치에 한팀, 이렇게 진귀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다. 7피치에 있는 제일 선두 그룹이 100% 인공등반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의 8시간이 지나서야 9피치로 진입했다. 오후 3시가 되었고 우리는 또 다시 하산을 결정한다. 가이드 등반 팀만 제외하고 모두 하산했던 것 같다. 민준군은 아쉬워하며 야간등반으로 가자며 이대로 또 다시 하산 하면 내일도 또 하산하게 된다며 거듭 하산 명령을 거두어 주기를 간청한다. 하지만 난 무조건 하산 결정, 하루에 8피치를 올라가야 하는데 절대 무리라 판단, 절대 하산이다. 교무님이 마중 나오셨고 그는 캠프장 이용날짜가 넘어서 우리 텐트를 철수 하셨다고 한다. 젠장 막영지에서 쉬는 것도 맘대로 되지 않으니 짜증이 난다. 앨캡 브릿지 옆 공터에 앉아 대안책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잠시 후 서울 태능 팀이 현재 노즈 코스 상황을 파악하고자 브릿지 왔고 우연히 함께 논의 하게 되었다. 서울팀은 내일 모레 등반하기로 결정 된 듯 하고 우리는 내일 재시도를 하는데 어디서 잘 것인가? 몇 시 부터 등반을 시작할 것 이며 저녁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민준이와 나의 의견대립으로 소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내일 등반을 한다면 빨리 취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긴요한 시간대였던 것이다. 민준이는 '4피치 시클릿찌에서 자고 바로 등반하자,' 나는 '하강포인트 지점 바닥에서 비박하자, 4피치에서 새우잠을 자는 건 아닌 것 같다. 4시간을 자더라도 편하게 누워서 자자,' '그럼 몇시 부터 시작할 것인가?' 민준이는 '4시부터 주마질을 시작하자', 나는 '아니다. 일찍 가봐야 분명 호주팀이 등반 중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이드팀 이니깐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러니 6시에 시작하자' 이렇게 의견이 너무 분분하여 시간만 흐르고 있다. 갑자기 교무님 왈, 비박은 절대 안된다. 레인저가 순찰을 돌다가 걸리면 끝이고 무엇보다 한국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깐 잘려면 4피치에서 자라, 하우스 캠핑장에서 100불을 지불하더라도 거기서 자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신다. 나는 도균형의 결정을 기다린다. 저녁밥도 그렇고 일단 캠핑장으로 이동 하는게 좋겠다고 하신다. 이동 전 미국팀이 궁금하여 9피치를 보는데 아직도 9피치에 두팀이 있었다. 민준이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내일이라고 대기하지 말란 법도 없고 그는 하산하지 말고 야간등반을 해서라도 그냥 이 악물고 올라가자는 것인데, 사실 나는 9피치에 아직도 야간 등반을 하고 있는 미국팀을 보면서 우리라고 저런 꼴이 되지 말란 보장이 있는가. 100% 인공등반이면 분명 우리도 미국팀처럼 된다. 누구나 동감하듯이 미국팀은 비박지인 12피치까지 갈려면 새벽등반으로 이어진다. 미국팀은 다음날 12피치에서 하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노즈에 우리팀만 등반한다면 정말 하루에 8피치씩 올라갈수 있을까?…

노즈를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노즈 코스에 대한 등반 스타일을 완전 잘못 짚었다. 100% 인공 등반으

론, 무조건 래더를 걸고 등반하는 방식으론 무려 33피치나 되는 노즈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번지수 잘못 짚은 것이다. 우리식대로 라면 조디악 코스를 가야했다. 그렇게 우리는 캠핑장에서 태능팀이 준 햄버거와 스팸햄을 잔뜩 넣은 라면 밥을 먹고 내일을 위해 잠이 든다.

6월 13일 – "인공 등반은 개그콘서트이다."
– 마지막 정상 공격날, 새벽등반 후 하산

04:00기상, 05시 반에 4피치 하강 지점에 도착하니 어제 하산했던 호주팀 3명이 저깅질을 하고 있다. 우리 보다 등반이 먼저여서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한다. 가이드 팀인 그들이라면 대기 시간 없이 빠른 속도로 올라 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것만 완전 배신자들이었다. 그들은 8피치까지 넘어서는데 7시간이 소요 되었고 12시반 정도가 되었다. 호주팀은 가이드인 선등 속도는 빠른데 홀링이 오래 걸렸다. 4피치에서 8피치까지 연속 두 번 트래버스 구간이라 여간 성가신게 아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면 밤 9시에는 12피치에 도착할꺼야' ' 우리는 할수 있어' 완전히 예상과 빗나간다. 인공등반은 홀링 이다. 트래버스 두 구간을 홀링하고 8피치 직벽에 붙는데 오후 5시가 되고 일정한 크랙으로 이어진 직벽 8~9피치를 오르는데 밤 9시가 되었다. 배는 고프고 바람이 세차서 춥다. 8피치는 스탠스가 딱 손바닥 크기이고 확보지점은 볼트가 하나인데 그 볼트 하나에 옆 크랙에 캠 두 개를 박고 이 퀄라이징으로 연결한후 나와 도균형 확보만 하더라도 복잡한데 거기에 홀링 시스템까지 만들려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이날도 우리는 다이어트 등반이었다. 거벽등반에서 간식은 함께 먹을 시간이 없다. 각자 간식을 지니고서 틈나는 대로 알아서 먹어야 한다. 무슨 월출산 사자봉 릿찌 등반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훈련 한 것인가! 배고프고 추워도 좋으니 제발 새벽 전에는 끝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도균형은 대변을 한참을 참으셨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지 스탠스가 없는 벽상에서 밀어내기 한판 해야겠다며 대변봉투를 찾는다. 포타렛지에서도 아직 실전 연습이 없었는데 직벽에서 보신다 것 또한 세계 최초 일듯 하다. 위험 할것 같아 만류해 보지만 왠지 어떻게 자세를 취하실지 갑자기 궁금해 져서 두 번 묻지 않았다. 대변봉투를 튼 순간 민준이의 등반 완료 괴성을 질러댔다. 새벽 3시가 되었고 무조건 막영하기로 결정한다. 9피치에서 8피치 하강루트 중간쯤에 쓰리 볼트을 발견하고 민준이는 다시 그곳까지 하강하여 도균형과 포타렛지를 설치한다.


9피치 대변봉투 준비하는 임도균 원정대장의 모습

새벽 4시, 난 이때부터 계속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 모든 상황들이 어이가 없어 그냥 미쳐버린 것 같다. 조용해 질만하면 웃음이 터졌다. 도균형은 머가 그리도 웃기냐며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어이없어 하신다. 그래도 정신줄 놓고 웃다가도 밤하늘의 반짝거리는 별을

볼 때면 마음이 차분해 진다. 다행히 거센 바람은 멈추었고 간간히 찬 바람이 불어 올때면 앨캡의 녀신이 수고했노라고 턱 끝을 간질이며 나를 위로 한듯 하다. 우리는 라면 한봉지와 사과 하나씩을 먹고 벽에 기대어 앉아 1시간 반 정도 잠을 청한다. 그래도 비가 안온게 어디인가? ^^

6월 14일 – "인공 등반은 하산이다."
– 10피치에서 하산, 노즈 실패

06:00 기상, 포타렛지에서 잤다기 보다는 1시간 정도 앉아서 쉬었다. 민준이는 양쪽 형들 사이에 갇혀 옴짝딸싹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채 코를 골며 1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04:00부터 저 아래에서 랜턴 빛이 보였는데 날이 밝아오자 서울 태능팀 인걸 알수가 있었다. 포타렛지를 칠 자리가 아니라서 다음 등반자를 위해 빨리 접고나서 우리도 바로 등반을 준비 한다. 이미 난 등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다. 포기라기 보다는 실패인데 현실의 벽을 깨닫고 하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본다. 10피치 5미터를 오르니 태능팀이 어느새 도균형과 함께 계신다. 중간을 조금 지났을 때일까, 이번 시즌에 슬립 먹는 사람은 나뿐일 것이다. 상당히 오래 떨어진 듯 하다.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 마지막 노즈 등반이 될 수도 있으니깐 최선을 다해본다. 거즘 정오가 가까워졌고 기다리다 지친 태능팀은 할수 없다는 듯 줄을 깐다. 거의 동시에 둘다 10피치 등반 완료를 외쳤다. 원정대장 도균형은 "진지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철수한다. 이런 속도라면 절대 무리이니깐. 이대로 하산한다. " 난 그의 결정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최고의 판단이라 믿어 절대 의심치 않았다. 민준이가 많이 아쉬워 하는 듯 하다.
10피치에서 하강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 일단 홀백무게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수를 제거한다. 2L짜리 생수통을 하늘에 미치 듯이 후려 뿌린다. 배추 농부가 정성껏 길러놓은 배추 밭을 트랙터로 갈 때 이


하산 결정 후 홀백 무게를 줄이는 장면

런 기분이었을까… 이 홀백을 여기 까지 올리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수증기가 되어 버리다니… 아마도 도균형은 고글 속에서 울고 계셨을 것이다. 어찌나 바람은 또 세차게 불던지 자일이 위로 날려 끄집어 내려할 판이다. 땅바닥이 가까워 질수록 빨리 땅을 밝고 싶다는 조바심이 났다. 차근차근 한 피치 씩 하강완료가 되니 어느덧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어김없이 마중 나오신 교무님과 브릿찌에서 만난다. 교무님 왈 " 그래 니들은 최선을 다한거야, 그거면 됐어, 수고 했어. 난 그래도 니들이 어젯밤에 하산 할줄 알았는데 대견스럽구나." 라고 하신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캠프장 사용 만료로 텐트는 철수된 상태였다. 또다시 낙동강 오리 신세다. 하우스 캠프장은 만석이라 커리빌리지에서 16만원이라는 엄청난 숙박료를 지불하고 노즈 등반때 데포시킨 간식으로 저녁밥을 때운다. 커리빌리지에서는 샤워는 서비스다. 내일 아침 4시에 기상하여 5시부터 캠프장 배정표 받기위해 일찍 자야만 했다. 허탈함과 분노, 억울함, 아쉬움 등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리는게 소주한잔 진하게 마시고 퍼질러 자고 싶은 밤이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6월 15일 – " 인공 등반은 인공 등반이다."
– 조디악으로 결정,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아침 일찍 도균형은 캠프 사이트 배정을 받고 다시 모든 것을 재정비 해본다. 우리 대원들은 노즈 실패원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는 우리의 등반 스타일에 맞는 조디악 코스로 도전해보자고 의기투합 한다. 왠지 자신감은 정말 가득찼다. 거듭하는 말이지만 현지 기후에 충분히 적응도 되었고 조디악이라는 곳은 거의 99% 인공등반으로 올라가야하고 홀링도 오보형이라 노즈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익스트림라이더 두 팀이 정오쯤에 등정성공 파티를 한다. 불꽃이 터지는 거창한 파티는 아니고 정상 등정자 만이 마신다는 코브라 맥주를 쇠고리를 안주 삼아 마시는 건데 너무나도 부러웠다. 한코스 등정이야 말할 수 없이 기쁘겠지만 맘 놓고 맥주를 마시는 게 정말 부러웠고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는 그 모습만 봐도 왠지 답답했던 내 가슴 또한 녹아 내리는 듯했다. 도균형과 나는 점심을 먹고 자는 동안 민준이는 커리빌리지에서 조디악 등반때 먹을 간식을 사왔고 노즈때와는 완전 다른 눈빛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한다. 오후까지 휴식 및 장비를 정리하고 저녁은 쇠고기로 에너지를 보충하기로 한다. 내일은 물과 식량을 조디악 1피치에 데포 시키는 날이라 설사에 대한 부담없이 쇠고기를 왕창 먹어댔다. 부산 클라이밍 팀에서 돼지갈비 김치찌개를 주셨는데 꼭 어머님이 해주신 듯 아주 맛이 좋았다. 한 캠프사이트에 식탁 두개만 있어서 외국인들과 가끔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밀어내기 한판을 끝나고 식탁으로 왔는데 도균형은 마냥 호기심에 가득찬 소년처럼 어색하게 담배파이프를 물고 계셨다. 알고보니 유사담배였던 것이다. 외국 친구는 담배 한가



다른 한국팀과 친목의 시간과 정보교환

치 정도 되는 유사담배를 주는데 종이에 말아 깊이 4번 정도를 빨고 도균형에게 건네준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머리가 빙돌면서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완전히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매스꺼워 오바이트를 참아 볼려고 하지만 결국엔 저녁때 먹은 쇠고기와 돼지갈비를 몽땅 토해낸다. 민준이가 지퍼팩으로 아주 말끔히 토해낸 덩어리를 정리한다. 근데 도균형은 왜 아무런 증상이 없는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움 증상은 극에 달하고 심박수가 낮아지는 듯 했고 환각, 환청 증상도 있었다. 두 번 더 토하고 나서 이젠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해 온다. 심장이 뛰는 것 같지 않고 외국인 두명이 내 앞에서 속삭이는데, 유사담배가 불법이라 혹시 그들이 문제가 커질까봐 날 해치치 않을까? 별별 상상을 하게 된다. 부작용으로 심장이 멈추는 건 아닐까? 목이 부어올라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고 정말 무서웠다. 머릿속이 마치 박하사탕을 먹을때 혓바닥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거의 2시간을 식탁에서 민준이와 도균형의 보호아래 버티다가 텐트에서 쓰러진다. 그 다음날 11시까지 기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유사담배 사건을 보고서에 남겨도 되나 걱정이 된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위해 그들과 문화교류를 나눴을뿐 어떠한 오해도 없었으면 한다.

총평

" 인공등반은 Now or Never 이다. “

먼저 이번 원정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준 우주의 모든 신들에게 감사한다.

작년 여름 7월 쯤이었을까? 카톡으로 도균형에게 요세미테 함 가자는 제안을 받는다. 어느 술자리때마다 나왔던 말이기에 가벼운 농담조로 “함 갈까요?” 라고 답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이야, 도균형에게 무한 감사를 드린다. 전대 산악회를 입회하고 요세미테까지 포함하여 저에겐 3번의 원정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부모님 설득과 직장문제였다. 결국엔 부모님에게 말도 못 꺼냈고 직장은 그만두고 갔다. 결론 만 본다면 쉽게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출국 한달 전엔 요세미테를 포기할까? 라는 고민까지 했었다. 포기 결심을 내릴 수 있는 상황만 가지고 글을 써도 소설 책 한 권은 나올 것이다. 2년간 열심히 일한 당신 요세미테로 떠나라 이렇게 내 스스로 휴가를 준 것이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서울 익스트림 등산학교 수업이 끝나고 광주에 새벽 1시쯤 도착하여 진도 직장까지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졸음 운전을 했던 때다. 어찌나 졸리던지 이러다가 출국도 전에 교통사고로 죽겠다 싶었다. 또한 여수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여자친구도 신경쓰다 보니 거의 주말이면 운전하느라 월요일 아침은 죽을 맛 이었다. 인공등반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뚜렷했기 때문에 등반훈련 자체는 항상 즐거웠고 발전하는 등반실력에 보람을 느끼곤 했다.

이번 요세미테 거벽 등반을 통해 느낀 점은 훈련과정을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훈련등반을 할 때 캠을 박는 인공등반 자체에만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실제 거벽에

서는 인공등반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포타렛지에서의 생활, 홀링 시스템에 관한 모든 것들의 비중이 더 높았던 것 같다. 다른 팀의 등반 보고서를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소한 1박 2일로 포타렛지를 치고 등반을 해 보는 것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사실 나에게 있어 등정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인공등반이라는 분야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재학생 시절에 꿈 꿨던 요세미테에 가보게 된 자체가 행복이자 성공이기 때문이다. 등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대표라는 생각이 들 때면 부담감이 들었다. 개인적인 등반으로 왔더라면 분명 쉽게 포기했을 것이다. 이번 조디악 등정은 요세미테 원정대원들만이 아닌 전남대학교 산악회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 생각한다.

다소 무모했던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준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원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선후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2. 대원별 등반기



작성자 | **임도균**

6월5일

아침일찍 일어나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용욱이형, 영필이형, 우담이, 두리가 우리를 배웅해 주기 위해 먼저 터미널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8시10분에 인천공항 행 버스에 올랐다. 드디어 가는구나, 잘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밀려온다. 1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비행기가 연착되어 8시에야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탈수 있었다.



배웅해주려고 나온 선후배들과 함께

11시간의 비행이후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익스트림라이더 교무님(강인철)의 도움으로 렌트카에 탑승하여 샌프란시스코 내에 있는 한인마트를 들러서 캠프에서 먹을 식량을 구입했다. 대략 30만원 어치 정도 산 것 같은데 국내보다는 약 1.5배정도 비싼 것 같다. 가능한 무게가 허락된다면 국내에서 식료품도 미리 구입해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KFC할아버지를 닮은 익스트림라이더 강인철 교무님

30분정도 부랴부랴 장을 본후 등산 장비점(REI)으로 향했다. 기대 했던 것 만큼 규모 면에서 크지는 않았다. 장비도 생각보다 싸지는 않았다. 오히려 몇몇 장비는 국내보다 더 비싼것도 있었다. 나는 젯보일과 1.8L전용용기, 오스프리 배낭을 구입했다. 당초 계획은 좀 여유를 두고 장비점을 둘러보면서 도움주셨던 선후배님들 기념품이라도 살려고 했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어 당초 예정시간 보다 샌프란

시스코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기념품을 살 시간도 없었다. 오후 8시쯤에야 부랴부랴 장비점을 나와서 요세미티 Camp4를 향해 출발했다.

운전을 하시는 익스트림라이더 교무님(강인철)께서 무척 피곤하신 것 같았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셔서 고작 2~3시간 정도 밖에 못 주무시고 계속 운전을 하시니 피곤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심심하면 교무님께서 졸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말을 하다보니 이제는 딱히 할 이야기도 없어졌다. 어쩌다 보니 태백산맥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무님께서는 완전 태백산맥 광팬이셨다. 책에 나오는 인물은 물론이고 지명, 대사 등 많은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에 비해 대학교 다닐 때 딱 한번 태백산맥을 읽은 나로써는 모든게 희미할 뿐이었다. 아무튼, 태백산맥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하다가 요세미티 계곡에 접어들었다. 잠시 차를 대놓고 쉬는 틈에 하늘을 바라보니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까만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매일 보고 살 수 있는 미국녀석들이 처음으로 부러웠다. 노즈 등반하면서 비박지에서 바라보는 밤 하늘은 더욱더 멋있으리라 생각을 하며 남은 길을 향해 출발했다.

새벽2시경에야 요세미티 Camp4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모든게 조심스럽다. 소리나지 않게 신경쓰며 짐을 내려 어제 먼저 들어온 춘천클라이머스팀 식량창고를 빌려서 식량을 넣어놓고 우리는 춘천클라이머스 텐트옆에서 비박을 했다. 참고로, 요세미티 Camp4에서는 모든 식량은 지정된 철제박스에 보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박은 금지된다.)

6월6일

새벽5시에 일어났다. 텐트 사이트 배정을 받기 위해 레인저 사무실로 갔는데 이미 10명 정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이어서 그런지 꽤 쌀쌀했다. 처음에는 레인저 사무실 앞에 있는 긴 통나무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허리도 아프고 춥기도 해서 메트리스와 침낭을 가져와서 자리펴고 앉아 있었다. 먼저 와 있는 미국인은 집에서나 덮을 이불과 베게를 가지고 와서 메트리스를 깔아놓고 자고 있었다. 8



대기표를 받기 위해



차안에 먹을거 놔두면 이렇게 된다

시쯤되니 레인저가 출근해서 번호표를 나눠주었다. 이후 조금 있다가 텐트 사이트를 배정받았다. 춘천에서 오신 선배님의 도움으로 텐트 사이트 신청은 그 분 명의로 할수 있었다. 텐트를 친 이후 어제 사지 못한 스태틱로프를 사기 위해 버스를 타고 Curry Village내에 있는 등산장비점을 갔다. 몇가지 장비를 산 후 야영장으로 돌아와 장비정리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익스트림라이더 31기 1팀이 또 들어왔다. 이로써 Camp4에는 벌써 한국팀만 3팀이 있게 되었다. 간단하게 음주를 곁들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내일 등반을 위해 잠을 청했다.

6월7일

새벽4시30분에 기상해서 5시30분에 드디어 Nose를 향해 출발을 했다. 초입을 잘못 찾아 약간의 고생을 했다. 본격적으로 등반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가기위해서는 약간의 등반을 해야 하는데 자일을 깔지 않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1피치 출발지점까지 오르기도 전에 해는 이미 엘켑을 비추고 있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을 하루 온종일 받고 있으려니 너무나 목이 말랐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았다. 지금 상태라면 저 멀리 바라보이는 머세드강물도 다 마셔버릴 기세이다.



생명수를 마셔 보지만



확보지점에서

홀링도 3:1시스템으로 하다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위가 오버행이 아닌 슬랩형태다 보니 홀백 끌어올리기도 만만치가 않았다. 개념도상에는 1피치에는 작은 크기의 너트, 캠만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1피치를 선등한 석민이 말로는 실제로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이 골고루 쓰인다고 한다. 작은 크기의 장비만 쓰인다는 것은 아마도 자유등반으로 오를 때 인 것 같다. 아무튼, 하루종일 햇볕을 받고 등반하다 보니 시쳇말로 우리는 완전 뻗어버렸다. 간식도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 과일이나 젤리같은 수분이 있는 것을 빼고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 훈련할 때 즐겨먹었던 쌀과자는 최악이었다. 물도둑 이었다. 한 개 먹으면 엄청난 갈증을 느껴 물을 안먹고는 버틸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석민이는 더위에 완전 떡이 되어버린 초코렛 1개를 다 먹었다. 존경심이 밀려왔다. 대단한 녀석이다.

이날 결국에는 노즈 1피치에 홀백을 고정시키고 하강을 했다. 하강 이후에는 엘캡에서 저 멀리 바라보이는 머세드강에 가서 수영을 했다. 얼음물 마냥 굉장히 차가웠다. 하루종일 엘캡에 매달려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나와 민준이는 최소한의 속옷을 걸치고 강물에 들어갔건만, 석민이는 그마저도 벗어버리고 태고적 인간의 모습으로 강물에 들어갔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석민이의 알몸이란… 역시 보는 사람만 손해였다.

6월8일

오늘도 역시 새벽4시30분에 일어나서 5시30분에 출발을 했다. 우리가 노즈에 도착했을때는 1피치 등반 시작지점에서 외국인 한명은 비박중이었고, 한명은 등반준비중이었다. 1피치를 주마링해서 올라간 이후 2피치는 민준이가 선등을 섰다. 100퍼센트 인공등반으로만 등반을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에 비해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던 스페인팀은 자유등반으로 등반을 하기에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우리 때문에 마냥 기다리게 하는게 미안해서 먼저 가게끔 양보를 했다. 스페인팀을 먼저 보낸이후 아래를 보니 또 다른 한팀이 올라오고 있었다. 8명 정도 되는 한국팀(바름산악회)이었다. 그 팀또한 자유등반으로 올라오는데 우리팀을 또 추월할 기세였다. 3피치 올라가는 석민이를 확보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한국팀 선등자가 2피치 종료지점에 도착했다. 올해로 환갑을 맞는 교포분이셨다. 우리가 완전 헤메고 있는 노즈를 자유등반으로 올라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셨다. 그 분께서 말씀하시길 바위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처 짧은 클라이밍 코스에서 하루나 이틀정도 적응후에 등반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등반을 할 수 있을거라고하셨다. 어렵게 3피치 등반을 마치고 우리는 그 팀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를 했다.


자유등반으로 노즈를 오르는 60대 클라이머


4피치를 향해가는 문석민 등반대장

등반인원도 많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그 팀이 우리팀 자일을 4피치에 고정시켜 주었다. 고맙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했는데 어쩔수 없었다. 지금 속도로는 어두워져서야 4피치에 도착할수 있었고,

등반일정이 한정되어 있기에 마냥 느긋하게만 등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등반방식을 자유등반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돌처럼 미끄러운 바위에 암벽화를 신고 등반한다는 것은 섣불리 내키지가 않았다. 4피치까지 주마링을 한후에 홀링을 시작했다. 엄청 힘들게 당기는데 고작 몇센티씩만 올라오는 것 같다. 3:1 홀링시스템의 단점과 내 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다. 인공등반은 홀링이 70%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 듯 하다. 그래도, 민준이는 홀백을 잘 끌어올리는 편이다. 역시 20대는 다르다. 민준이와 교대로 홀링을 힘들게 4치피까지 완료하고 하강을 했다. 석민이는 3피치에서 홀백을 띄워준 후 하강을 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탈진상태에서 이제 막 벗어난 듯 하다. 뜨거운 햇볕아래 완전히 녹아버린 초콜렛을 먹던 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날은 요세미티의 더운 날씨에 모두가 뻗어버린 날이었다.

6월12일

새벽6시쯤 노즈 출발 지점에 도착했다. 이미 외국등반대 1팀이 먼저 와서 주마링할려고 대기중이었다. 외국등반대가 3피치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팀도 주마링으로 출발했다. 이날은 4피치까지는 등반팀도 적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팀 앞으로 외국팀 한팀밖에 없었고 그 팀의 속도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5피치를 넘어서면서부터 외국팀의 등반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엊그제처럼 또 등반도 못하고 대기만 하다 내려와야 하는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2시가 넘어가는데도 앞팀이 7피치에 매달려 있다. 결국엔 3시가 되어서야 6피치를 향해 출발할수 있었다. 8시쯤 되면 깜깜해지니 좀 서둘러서 등반을 하면 오늘 목표인 11피치까지 갈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 트레버스를 한후 7피치 종료지점에 도착했다. 8피치는 스토브릿지 크랙인데 일정한 크기의 크랙이 대략 50미터 정도 되는 구간이었다. 내가 선등서겠다고 했는데 민준이가 선등한다고 한다. 기특한 녀석. 역시 인공등반으로만 가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9시 무렵에야 8피치 종료지점에 도착했다. 그러나, 종료지점엔 볼트가 1개 뿐이었다. 캠으로 백업을 하기는 했으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엔 8피치 종료지점에서 약 10m정도 직상해서 하강포인트에서 포타렛지를 치기로 했다. 시간은 이미 새벽 2시가 넘어선다. 어둡다 보니 모든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포타렛지 치는것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건만 막상 치려고 하니 또 쉽게 되지가 않는다. 홀백도 두 개를 한꺼번에 자일에 직접연결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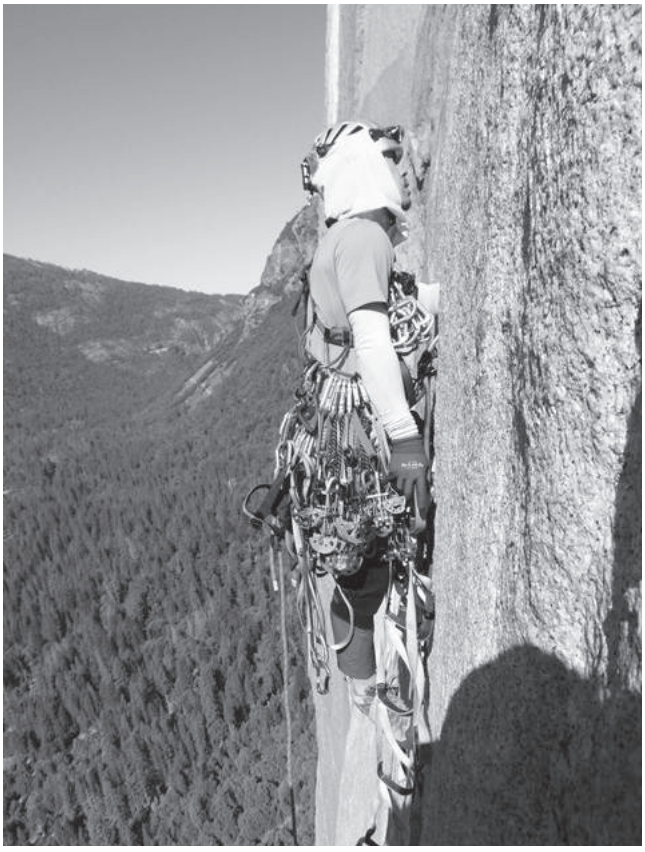
스토브릿지 크랙을 오르는 강민준 대원



6피치 확보지점에서 주먹밥 먹는 중

홀링하다 보니 두 개가 서로 겹치면서 홀백 입구를 압박하고 있어서, 홀백에서 물건을 꺼내기조차 힘들다. 그나마 석민이가 사과2개하고 생라면1개를 꺼내와서 그것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포타렛지에 걸터앉은 시간이 새벽3시쯤 되었다. 하루종일 등반하면서 먹은것이라고는 배낭에 짊어지고 온 주먹밥뿐이었다. 모두가 등반, 확보, 홀링하느라 쉬지않고 움직이는데도 속도가 느리다 보니 모든 것이 서서히 꼬이기 시작한다.

6월13일



2인용 포타렛지에서 3명이 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이었다. 밤을 새어서라도 비박지인 11피치까지 가서 비박을 했어야했다. 그러나, 밤에 등반을 하기에는 다들 너무도 지쳐 있었고 무리한 야간등반 강행은 안그래도 더딘속도를 배가시킬것이 뻔했기에 어쩔수 없이 8피치에서 비박을 강행했었다. 눈을 뜬 시간은 대략 6시쯤되었던 같다. 석민이는 한숨도 못자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민준이도 밤새 잠을 설쳤나 보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컨디션이 완전 제로다. 밑에서는 태릉암장팀(한국팀)도 올라오고 있고, 조금더 밑에는 또다른 외국인 등반대와 솔로클라이머까지 올라오고 있다. 자유등반으로 올라오다 보니 역시 속도가 빠르다. 서둘러 포타렛지를 걷고 등반준비를 시작했다. 석민이가 선등을 서기 시작했다. 등반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간만큼 올라갔을 무렵 슬립을 먹었다. 상당한 거리를 떨어진 것 같다. 태릉팀은 이미 8피치까지 올라왔다. 이런식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다. 어제부터 먹은것도 별로 없어서 체력도 바닥이고, 등반속도도 너무 느리다. 게다가 다른팀들이 계속 뒤에서 올라오고 있다. 완전 의욕상실이다. 어떻게 꾸역꾸역하면 몇피치는 더 올라갈수 있겠지만, 이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엔 하강을 결정했다. 하강결정에 민준이의 표정이 좋지않다.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더 의욕적으로 등반을 하였기에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더 이상의 등반은 무리라는 확신이 선 이상 하강을 늦출수는 없었다. 하강을 결정하니 하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생기는 것 같다. 홀링백도 가지고 하강해야 하기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일단은 홀백에 들어있는 물을 빼내서 벽에다 버리기 시작했다. 죽기살기로 끌어올렸는데… 진짜 미칠것만 같았다. 어찌됐건 물을 거의 다 버리고, 하강을 시작했다. 바람은 또 어찌나 세게 불던지 홀백도 자꾸 하강지점에서 옆으로 벗어난다. 홀백밑에 달린 보조자일을 당기면서 하강을 하는데 힘도없고 짜증도 나고 미치겠다. 결국엔, 몇피치 안내려와서 민준이에게

좀 짜증을 낸 것 같다. 내 몸이 힘들다보니 후배에게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을 보여버린 것 같다. 11시쯤부터 시작된 하강은 5시쯤이 되어서야 겨우 마무리를 할수 있었다. 하강중에 조디악을 오르고 있는 팀으로부터 잘 올라가고 있냐는 무전교신이 왔다. 하강하고 있다고 짧게 말하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할수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호기를 부리며 왔건만, 중도포기하고 내려오는 우리가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교무님과 교신후 렌트카를 타고 야영장으로 복귀하였으나, 우리텐트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잘곳이 없었다. 할수 없이 비싼돈을 지불하고 요세미티 벨리내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었다.

6월14일

텐트싸이트 신청을 위해 새벽5시에 일어나서 레인저 사무실 앞에서 줄을 섰다. 단 3일정도밖에 못씻었을 뿐인데 노숙자 풍모가 느껴진다. 줄 서면서 메트리스 깔고 침낭덮고 누워서 조금 잠을 잤다.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서 일어나보니 어떤 아저씨 한분이 텐트 싸이트 배정을 받기 위해 친구분과 이야기 중이었다. 알고보니 부산클라이머스 팀이었다. 노즈를 등반하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 홀링연습만 대략 2주 정도를 했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신다.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텐트 싸이트를 배정받고 서둘러 텐트를 치고 어제 비싼돈을 주고 잠을 잤던 캐빈에 가서 샤워하고 체크아웃을 했다. 11시까지 체크아웃을 하라고 했었는데 체크아웃한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말없이 그냥 받아주었다. 오후에는 내일 등반을 위해 장비정리하고 휴식을 취했다. 저녁에는 부산클라이머스팀에서 준 김치찌개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외국인 커플팀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다. 김치찌개에 관심을 보인건지 귀엽게 생긴 민준이한테 관심을 보인건지 모르겠다. 김치찌개를 조금 주니 그냥 먹으면 실텐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유의 제스처를 보이며 맛있다고 한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커플팀은 클라이밍 여행중이라고 했다. 돈이 떨어지면 일하고 번돈으로 클라이밍 여행한다고 했다. 부러웠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유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애네들에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일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 늦게서는 익스트림라이더 31기 선배님들께서 조디악을 마치고 하산해서 Camp4로 들어오셨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시다. 비박한다고 하시길래 라면과 코펠을 갖다 드렸다. 저녁식사 후 석민이 몸 상태가 갑자기 안좋아져서 밤 늦게서야 잠이 들었다.

6월15일

어제 석민이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져서 오늘 하루는 쉬기로 결정했다. 한팀한팀 성공한 팀들이 캠프장으로 들어오는걸 보고 있을려니 부럽기도 하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다. 오늘은 또 춘천클라이머스 팀들이 조디악 등반을 성공하고 들어오는 날이다. 등반중 물부족으로 등반을 포기하는줄 알았는데 하강해서 재정비하고 바로 벽에 붙어서 5일만에 결국은 성공하고 내려온다. 명색이 우리는 대학산악부인데 정신력이 너무 나약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저녁엔 성공한팀들을 위한 조촐한 자축연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내일 조디악 등반을 위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성공한팀에 끼여 같이 술을 마신다는게 내키지 않았다.

6월16일

조디악에 물과 장비를 데포시키는 날이다. 8시쯤 엘켑 하단에 도착했다. 포타렛지까지 메고 가려니 무게가 장난이 아니다. 등반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 놓으라는 차원에서 내가 선뜻 멘다고는 했는데, 석민 민준이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는다. 영필형이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마는… 1학년 장기등반때 멨던 배낭은 이것보다 무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시간 정도 걸릴거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이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어느순간 전망이 확 트이면서 너덜지대가 나타난다. 너덜지대를 약 5분정도 지나가니 조디악 코스가 나타났다. 1피치는 90도 정도의 경사도에 완전히 밋밋한 벽이었다. 볼트가 몇 개 박혀있고, 회수되지 않은 헤드가 여러개 설치되어 있었다. 바로 이런 코스가 우리가 준비해왔던 인공등반이었다. 노즈와는 완벽히 다르다. 석민이 민준이 표정도 밝고 하고자하는 의지가 넘치는 것 같다. 1피치 출발지점에 물과 장비를 데포시키고 내려왔다. 내려와서는 마지막으로 머세드강에 몸을 담그고, 온갖 근심 걱정을 씻어 버렸다. 냐야 이틀후면 떠나야 하지만 남아서 등반을 성공해야만 하는 석민, 민준이는 맘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엘켑브릿지에서 교무님을 만나 조디악 코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챙겨주시니 너무도 고마웠다. 캠프장으로 돌와와서 식사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익스트림라이더 29기 팀이 조디악 등정을 성공하고 내려왔다. 이로써 조디악 붙은 한국팀 3팀이 전부다 성공하고 내려왔다. 이제는 우리차례이다. 그런데, 석민이 민준이한테만 등정성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겨두고 나혼자만 가버리는 것 같아 날이 갈수록 여간 미안한게 아니다.



조디악 출발지점에서



삶의 무게만큼 이나 무거운 포타렛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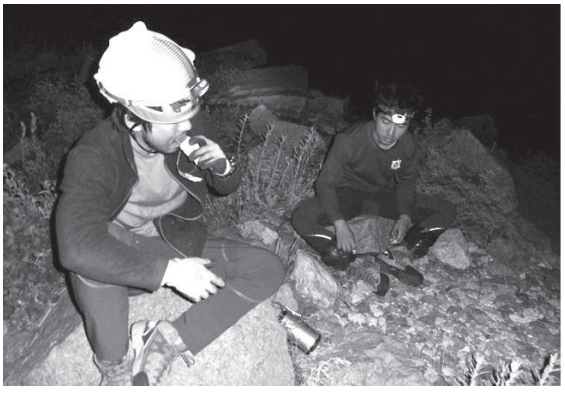
6월17일

오늘은 석민이, 민준이만 등반하러 가기로 하고 나는 남아있기로 했다. 애들 보내놓고 나니 등반은 안하더라고 밑에서 등반하는거라도 지켜봐야 하는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등반 성공한 팀들과 함께 글래이셔포인트에 가기로했다. 성공한 팀에 끼여서 괜히 같이 간다고 했

나 싶기도 했지만, 일단은 가기로 했다. 기대했던 것 만큼 엄청 멋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쯤은 가볼만한곳 같다. 내려오는 길에 엘켑브릿지에 들러서 석민이 민준이 등반하는 것을 망원경으로 봤다. 성공한 선배님들 말로는 잘올라가고 있는거라고 했다. 오후 8시쯤 엘켑브릿지로 다시 나갔다. 석민이가 3피치 거의 다 올라가고 있었다. 교무님과 무전교신결과 1시간여 후쯤에는 하강완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등반하신 선배님들 말로는 택도 없다고 하신다. 거기다가 석민이가 렌턴도 깜빡 잊고 안가져왔다고 한다. 옆팀 김은아선배님께서 샌달을 신고 있는 나를 보고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빌려주신다. 거기에 신고있던 양말까지 벗어주신다. 정색을 하고 안신으면 생긴것하고는 다르게 깔끔떤다고 하실 것 같아 아무런 내색을 하지않고 그냥 신었다. 따뜻하다. 축축하다. 아무튼, 렌턴을 가지고 조디악을 향해 올라갔다. 하강 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후배들에게 줄것이 하나도 없었다. 미처 생각지 못하고 부랴부랴 올라온 결과였다. 11시쯤 캠프장에 도착했는데 춘천클라이머스 안경수선배님께서 자지않고 우리를 맞아 주셨다. 이런게 같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정이나 보다. 내일새벽이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에게 있어 오늘이 캠프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고 석민이가 무지 아쉬워한다. 뭐 10일후면 볼수 있으련만 애들만 남겨두고 가려니 미안한 생각이 몰려든다.



조디악 1피치 등반중인 강민준 대원



3피치까지 등반 후 하강

6월18일

새벽5시에 일어났다. 텐트안에서 침낭싸고 옷가지를 챙기다 보니 석민이, 민준이가 일어났다. 나오지말고 그냥 자라고 해도 굳이 따라 나온다. 배낭까지 메주면서 배웅을 해준다. 역시 아무리 짧은 이별의 순간이라도 묘한 감정이 뒤따른다. 몸 조심히 등반 잘하라는 말을 하고 차에 올라탔다. TV에서 보면 이별의 순간에는 항상 차가 사라질때까지 남아서 손을 흔들어 주던데 이녀석들은 바로 들어가버린다. 현실과 드라마의 차이다. 4시간정도 차를 타고 가니 어느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 교무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들어갔다. 핸드폰을 켜보니 장마, 호의주의보, 전직원 정위치 근무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온다.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도 않았건만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온건가.

The Nose 등반실패의 변(辨)

1. 코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노즈는 100% 인공등반으로만 오르기에는 일정상 상당한 무리가 있다. 등산화가 아닌 암벽화를 신고 자유등반과 인공등반을 섞어가면서 올라야만 한다.
- 개념도상 아무리 쉬운 코스라 하더라도 등반길이가 길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된다. 따라서, 처음으로 요세미테를 찾는 경우라면 노즈처럼 등반길이가 긴 코스보다는 짧은 코스를 추천한다. 그렇다고 짧은 코스가 쉽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어디든 만만한 코스는 없다. 물론, 등반실력이 좋은 팀이라면 상관없다.

2. 홀링 기술 및 연습의 부족

- 홀링은 노즈등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3:1시스템으로 홀링을 하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그마한 턱에도 자주 걸리고 여러모로 좋지 않았다. 힘만 따라준다면 1:1시스템을 해야 한다. 실제로, 3:1시스템으로 홀링을 하는 팀은 우리팀 밖에 없었다.
- 홀백이 2개 이상일 때 연결방법, 홀백 트레버스, 홀백이 벽면에 닿는 슬라브에서 실제로 무거운 홀백을 끌어올리기 등 홀링과 관련된 훈련이 많이 부족했다. 홀링연습에 훈련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홀링기계가 되는 그 순간까지!

3. 체력조절 실패

- 6월의 요세미테는 우리나라의 한여름처럼 엄청나게 덥다. 물론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지만, 노즈코스는 아침6시경부터 저녁6시까지 하루종일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등반을 해야한다. 그에따른 갈증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참을때까지 참았다가가 물을 마시게 되면 많이 마셔도 마신것 같지가 않다. 갈증날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물을 씹어서 마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참고로, 우리가 만난 외국 등반팀은 1인당 하루에 1갤런(3.78리터)씩 계산해서 등반을 하고 있었다.
- 엄청난 더위, 목이 타들어 가는 듯한 갈증에 먹은것도 부실해서 체력이 저하 되었고, 이것은 곧바로 정신력의 부재로 연결된 듯 하다.
- 잘먹고, 잘마시고, 잘쌀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

4

분야별 보고



2013년 전남대학교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4-1. 행정

1) 전자여권 신청 – 시군구청에서 신청



전자여권 로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보통 발급소요 일수는 5일정도 소요가 되며, 수수료는 여권 유효기간 등에 따라 4만원~5만원 정도이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 인지여부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앞표지에 삽입되어 있고,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이 되면 전자여권이다.

2) 비자신청 –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서 신청

전자여권으로 미국 비자 신청시는 입국 목적이 90일간의 관광이나 상용목적이어야 하며 유학, 취업, 취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국전에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한국어" 서비스 버튼을 누른 후 화면내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면 된다.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16가지 필수 신상정보와 비행편, 출발도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 내 주소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최소한 출국 3일 전에 미리 전자허가를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 입국허가서는 별도로 출력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미국 입국 시 보여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한번 입국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므로 2년 동안 재신청 없이 언제든 입국할 수 있다.
단, 재입국시는 https://esta.cbp.dhs.gov 에 개인 신청번호를 입력하고 항공편 등 선택정보 몇가지를 수정하여 출입국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송 – 짐이 많다면 무조건 국내항공(아시아나)을 이용할 것

우리팀의 경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을 이용하였으나, 1인당 23kg 미만의 위탁수하물 규정에 따라, 무게가 초과되어 카고백 1개당(23kg) 100달러의 초과금액을 내야 했다. 국내 항공을 이용했더라면, 개인당 홀백 1개, 카고백 1개로 편안하게 짐을 쌀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참고로, 유나이티드 항공의 규정상 표준 수하물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탁 수하물 : 가로 + 세로 + 높이의 합 =157cm 미만/ 23kg 미만
기내 수하물 : 가로 + 세로 + 높이의 합 =114cm 미만/ **2개 합해 10kg 미만
(기내로는 기내용 캐리어와 개인 소지품을 포함하여 2개까지 허용되며, 2개의 합이 10kg가 초과될 경우 보안 검색대에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미주 구간을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1인당 20kg 수화물 2개까지는 무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항공료가 조금은 비싸더라도 국내항공(아시아나)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 기내로는 쇠 장비류, 부탄가스 등은 반입이 안됨
* 건전지 등 부피가 작고, 무거운 제품은 기내로 반입 가능

4) 비행기 티켓 구입 – 출국 최소 3개월전에 인터넷에서 구매

원정가기 약 4개월 전에 땡처리 항공권 등 저렴한 항공권을 사기 위해 인터넷 검색중 인터파크투어(www.interparktour.com)에서 1인당 약 125만원에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 경유 등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항공권도 있으니, 일정이 여유로운 팀의 경우에는 고려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다.

5) 총평(결론)

원정 대원이 3명 밖에 되지 않고, 다른 대상지에 비해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며, 비자또한 면제되기에 원정을 준비하면서 행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내 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외국항공을 이용하는 바람에 초과수화물에 대해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원정을 준비하는 팀은 항공권 발권전에 반드시 수화물 규정을 따져보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할 듯 싶다.

4-2. 회계

1) 자금 수입지출 총계

총 수입액(원)	총 지출액(원)	잔액(원)
14,300,000	14,300,000	0

2) 항목별 수입내역

연번	항 목	금 액(원)	비 고
1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지원금	3,000,000	본회 : 1,500,000원 서울지회 : 1,500,000원
2	산악회원 개인지원금	5,750,000	지원금 지원내역 첨부
3	대원 분담금	5,550,000	임도균 : 2,500,000원 문석민 : 2,500,000원 강민준 : 500,000원
합 계		14,300,000	

※ 지원금 상세 수입내역은 〈5-2장 원정에 도움주신 분〉 참조

3) 항목별 지출내역

연번	항 목	금 액(원)	비 고
1	항공료 및 교통비	4,550,000	
2	식량 구입비	1,000,000	
3	장비 구입비	5,250,000	
4	현지 체류비	500,000	
5	보고서(발행 및 발송)	3,000,000	
합 계		14,300,000	

4) 총평

(1) 자금의 조달

당초 문석민(등반대장)과 원정을 준비할 때부터 산악회의 도움없이 대원 개별 분담금만으로 원정을 추진 하였고, 중간에 원정 참여의사를 밝힌 재학생 강민준도 대원분담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자금조달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매달 문석민(등반대장)과 훈련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있어서 훈련비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더구나, 원정 훈련에만 참여를 했던 박지순 회원도 매달 훈련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자동이체 해줘서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중에, 2013년 2월에 있었던 정기총회때 OB산악회 정식사업계획에 포함되었고, 다음 달에 있었던 OB운영위원회에서 200만원 지원을 결의함에 따라 원정준비는 활기를 띄게 되었다.

또한, 원정 소식을 접한 여러 OB선배님께서 많은 찬조금을 지원해 주셔서 재정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원정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2) 자금의 지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료는 이미 2월달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현지에서는 등반에 필요한 추가경비, 장비구입, 식량구입비 등이 사용되었다.

(3) 환전

환전은 국내에서 약 100만원을 달러로 바꾸어 출국하였다. 요세미테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나, 부식구입 등 소액 결제를 할 때는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현금으로 결재하는 것이 여로모로 유리하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때는 국내에서 반드시 해외사용가능여부, 결재한도 등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우리 팀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장비점에서 개인장비 및 공동장비를 약 100만원가량 구매해서 신용카드로 결재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부되었다. 카드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단, 식료품 가게에서 소액결재는 가능하였다.

(4) 맺음말

원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선 · 후배님들께 감사드린다.

4-3. 장비

1) 개인장비

NO	품목	수량	특징 및 규격	비고
1	빅월용 안전벨트	1개	블랙다이아몬드	메톨리우스 제품도 평이 좋음
2	헬멧	1		랜턴걸이 있는게 아주 편리함
3	튜브하강기	1	ATC	8자 하강기도 지참했으나 사용안함.
4	그리그리	1		페츨
5	등강기	2개		페츨, 트랑고 제품
6	주마스텝	1	발을 고정 밴드 필수	트랑고-가격대비 저렴(단, 발 고정밴드가 없음)
7	이중확보줄	1set	단일확보줄 2개로 사용 이중확보줄 트랑고제품 사용	3중 확보줄을 추천
8	피피	1~2개	확보용	확보줄에 하나, 벨트에 하나 고정
9	등반장갑	1	페츨 가죽용, 3M장갑(노가대 장갑)	3M 장갑은 3일에 하나씩 썼음. 3천원/1개
10	잠금비너	5개	확보줄 3개, 벨트고리1개,주마2개	최소 반드시 6개는 있어야 함
11	카라비너	4개	0형	등반시 개인당 최소 4개는 있어야함
12	이중기어렉	1	트랑고	훈련시 모든 길이 조절해 두기
13	무릎보호대	1set	배구용, 인라인용, 보드용	플라스틱보호대 보다는 두꺼운 천이 좋을듯(배구용 추천)
14	데이지 체인	1		장비걸이용으로 개인 하나씩 있어도 좋을듯
15	해머	1		개인당 1개씩
16	너트회수기	1		
17	줄사다리	2개	4+5단 트랑고(삼각형)	사각형 사다리 추천
18	거벽화	1	evolv 맥시머스2	발앞꿈치 부분이 많이 닳음
19	배낭	1	25~35L	등반시에는 안 메는게 좋음
20	홀백	1	80~100L	
21	카고백	1	100L	캠프장에서 개인장비 정리시 편리
22	해드랜턴	1	시야 확보 장거리용으로 (마무트-루시도)	1개 여분정도는 필수(고장시)
23	침낭, 침낭커버	1	동계용	침낭커버는 쓰지 않았음
24	메트리스	1~2개	접이식은 등반시 편리	베이스용, 등반용
25	립스틱	1		등반시 사용
26	썬크림	1		개인 취향에 따라
27	카메라	1		건전지용 추천, 여분 배터리
28	모자	1		창모자 보다는 라운드
29	햇볕가리개	1	등반시 헬멧에 부착	산업 현장용으로 고무 밴드형

30	수통	1	1L, 슬링걸이 필수	날진수통 사용, 수통에 덕테이프 감음
31	기록구, 볼펜	1		
32	고글	1		개인취향에 따라
33	개인용품 백	4개	잡주머니, 지퍼백	
34	슬리퍼	1	캠프장에서 사용	요세미테 빌리지에서 구입 가능
35	암벽화	1	각자 준비했음	볼더링 및 짧은 코스를 위해서 준비
36	초크	1	공용	

※ 침낭은 베이스용, 등반용(300g)으로 각각 가져가는 것이 좋다

※ 밤이 되면 추우므로 방한의류는 필수, 한낮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여름용 등반바지는 안입는게 좋음

2) 공동장비

(1) 등반구

NO	품목	수량	특징 및 규격	비고
1	등반자일	2	60m 9.8mm, 60m 10mm	임도균 1동(빨), 문석민 1동(노)
2	홀링용 자일	1	70m 9.5mm, 보조자일 17m	홀링용 자일은 현지에서 구입
3	에어리언	1set	1~8호	특대 : 7개, B.D. 4,5,6호 필수(니플, 12피치) 특소 : 5개, C4 2개씩 있으면 좋음 소 : 25개, 주로 쓰임 중 : 10개 대 : 6개, 캠 크기별로 비너색 다르게 관리가 필요
4	블랙다이아몬드	1set	마이크로 000~4호	
5	록테릭스	1set	1~10호	
6	메톨리우스	1set	5~9호	
7	트랑고FLEX	1set	1~8호	
8	트랑고	1set	1~8호	
9	너트	1set	9개. 같은 크기 중복	등반시 거의 쓰지 않음,
10	마이크로너트	1set	12개. 같은 크기 중복	
11	볼너트	1set	1~4호	등반시 회수가 어려웠음
12	버드빅	9개	大 6개, 小 3개	작은 사이즈는 거의 쓰지 않음
13	러프	3개		등반시 필수
14	캠훅	2개	대, 소 하나씩	소는 쓰지 않음
15	스카이훅	2개	대, 소 하나씩	소는 쓰지 않음
16	포인트훅	1개		한번은 쓰는 장비임
17	탈론	1개		포인트훅을 주로 썼음
18	앵글하켄	4개	소: 2, 대: 2개	대 2개는 쓸일이 없었음, 작은거 위주로
19	나이프블레이드	2개	블랙다이아몬드	
20	와이어 행거	8개	와이어가 얇은걸로	등반시 필수, 프로그에 걸어서 썼음
21	피쉬훅	2개	대, 소 한개씩	등반시 필수
22	빌레이시트	1개	블랙다이아몬드	확보시 필수

23	무전기	3개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사야함	모토로라 추천
24	루프슬링	25개	60cm	얇은 슬링이 좋음, 선등자는 14개정도 (와일드컨트리–10개, 백마–10개)
25	루프슬링	4개	80cm	
26	데이지 체인	4개		장비걸이용으로 최소 4개는 있어야 함
27	프로트렉션	1개	페츨, 미니 트랙션 1개 추가	미니 트랙션은 자일 정리할 때 쓰기도함
28	도르레	4개	2개는 여분으로 챙겼음	
29	스위벨	1개		
30	오형비너	80개		
31	잠금비너	25개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음	최소 25개는 필수
32	퀵드로우	25개	최소 25개는 필수	등반시, 막영시 장비걸이로 많이 쓰임
33	장비회수기	2개		
34	쿨척	2개		
35	해머	2개	블랙다이아몬드, KONG	
36	장비걸이	1개	페츨 PAW M	여유분이 있다면 2개 챙기는게 좋음
37	PET병	14개	생수병(2L)	국내에서 PET병 가져감
38	개념도	3개	선등자, 후등자 한장씩	지퍼백에 보관
39	덕테이프	2개		현지구입(수통, 라이터에 여러겹 감아서 사용)
40	의약품세트	1set	압박붕대, 반창고, 근육통 파스	되도록 간단하게, 바르는 모기약 필수
41	아미나이프	1개		
42	라이타	4개		
43	똥통	1개		단백질보충제 플라스틱통으로 직접 제작
44	자일백	2개	백마, 3개정도가 좋은듯	자일통, 장비통 및 바구니로 좋음
45	제트보일	1개	등반시 필수장비(1.8L)	간편하고 화력 효율이 좋아 시간절약
46	자일보호대	1개	백마, 쓰지 않았음	자일 손상 방지용, 탈부착용

(2) 막영구

NO	품목	수량	특징 및 규격	비고
1	텐트	1동	5인용(3인 기준으로 적당)	
2	바닥비닐	1개	은박 매트리스 사용.	5~9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음
3	못팩	12개		여분으로 4 개 추가해야한다.
4	가스등	1개	현지에선 EPI가스가 비싸서	되도록 이면 아껴써야 함. 가스심지
5	매트리스	3개	개인당	포타렛지에 고정시킬 슬링을 미리 준비 베이스용, 등반용 따로 준비하면 편리
6	회기	1개		
7	판쵸우의	3개	장비정리할 때, 비올때	등반할 때 포타렛지 플라이 대체용

(3) 취사구

NO	품목	수량	특징 및 규격	비고
1	가스버너	2개	캠프용	등반시 제트보일만 사용
2	바람막이	2개	등반시에는 챙기지 않았음	
3	코펠	1set	코베아 코펠(5~6인용)	
4	딱갈이	5개		
5	수저, 젓가락	4개		
6	접시	4개		
7	국자	1개		
8	후라이팬	1개		소고기 굽기에는 작은 것도 괜찮음
9	가위	1개		작업용은 수선구에 따로 챙겼음
10	나이프	1개		캠핑용
11	도마	1개	플라스틱 얇은거	캠핑용
12	키친타월	3개	기름때제거 및 설거지용	현지구매
13	롤화장지	4개	등반시 1개 사용	현지구매
14	물티슈 (소)	2개	등반시 1개 정도	국내 구입
15	지퍼백	1set	제일 큰사이즈, 간식 포장	현지 구매
16	여분비닐(대)	30장	되도록 큰 사이즈가 좋음	간식포장 및 캠프장 쓰레기봉투
17	반찬통	4개	락앤락	남은 반찬 데포용, 등반시 1개 반찬용
18	수낭	1개	가벼우니 챙겨가는 것도 괜찮음	우리팀은 쓰지 않았음, 생수통 이용
19	수세미	1개		
20	퐁퐁(소)	1개	음료수 350ml병 재활용	캠프장에선 설거지 금지이지만 요령껏
21	조미료통	1set		
22	제트보일	1개	등반시 필수	1.8L 용기가 적당

(4) 수선구

NO	품목	수량	특징 및 규격	비고
1	잡끈	1동	녹색 잡끈 – 국내구입	빨랫줄용으로 필수
2	니퍼	1개		
3	라이타	1개		
4	청테이프	1개		
5	용수철저울	1개	공항 수화물 무게측정	
6	손톱깎기	1개	작은거	
7	면도칼	1개		

3) 장비 총평

장비 목록은 조디악 코스를 2인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이번 등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장비 전체를 언급할 수 없어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1) 확보줄 : 기본은 2중 확보줄이다. 하나짜리 확보줄 2개씩, 2중 확보줄 하나, 이렇게 개인별로 취향이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2중 확보줄을 주로 사용한다. 이번 등반시 느낌점은 3중 확보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적이고 편이상 용이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지 체인 1개를 현지에서 별도로 구입하여 3중으로 썼다. 항상 백업이 되어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요세미티 내의 장비점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2중 확보줄보다 훨씬 긴 3중 확보줄을 살 수 도있다.

(2) 하강기 : 그리그리, 튜뷰형ATC, 8자하강기. 이렇게 3개를 항상 지니고 등반했다. 각 장비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굳이 3개를 지닌 이유는 분실에 대비하기 위함도 있었다. 조디악 정상 등정후 하강루트에 자일이 픽스 되어 있는데 12mm 두꺼운 스테틱 자일이라 3가지 하강기에 맞는 장비를 택할 수도 있으므로 세 가지 전부 지니는게 좋을 듯하다.

(3) 잠금비너 : 안전벨트에서 확보고리에는 특별한 잠금비너를 썼으면 한다. 현지에서 구입한 블랙다이아몬드 제품인데 얼핏 8자 하강기처럼 생겼으며 비너가 돌아가지 않도록 작은 클립이 되어있는 제품이다. 홀링 할 때, 주마링 할 때 잠금비너 고정링에 하강기가 자주 걸려 불편했고 위험성이 있어 구입했는데 아주 좋았다.

(4) 줄사다리 : 우리는 삼각형으로 된 트랑고 5단을 썼는데 자꾸 꼬이고 발을 넣기가 불편하였다. 그래서 사각형 모델을 추천한다. 제일 상단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고정되어 있어 발 넣기가 용이하다. 플라스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각형으로 된 것이 좋다.

(5) 거벽화 : evolv 맥시머스2 제품을 협찬받아(배훈희, 김미경 익스트림클라이밍센터 관장님) 현지에서 처음으로 썼는데 아쉬웠던 점은 며칠 되지않아 발 앞꿈치에 구멍이 뚫리고, 발뒷꿈치 및 밑창이 뜯어졌다. 대부분의 등반자들이 5.10제품을 신는 걸 봐서 릿지화를 보통 신지만 주의 할 점은 밑창이 두껍고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써야한다. 래더에 오래 있다 보면 발바닥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6) 침낭 : 6월초에도 거의 여름 기온이라 얇은 걸 여름용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20 이상이고 밤과 새벽엔 상당히 쌀쌀 하기에 동계용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침낭 커버는 등반시 우천시에 필요한 장비이다.

(7) 캠 : 에일리언, 메톨리우스, 블랙다이아몬드 제품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가장 믿을만한 장비들이다. 조디악은 주로 작은 크랙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캠을 많이 준비해야한다. 캐머롯 4,5,6호는 반

드시 하나씩 있어야 한다. 조디악은 자일이 크게 꺾이는 부분이 많으므로, 캠 허리 부분이 와이어 한줄로 되어 있는 캐머롯이나 에일리언 같은 잘 휘는 제품을 쓰는게 좋다.

(8) 너트 : 한 세트에 1~12호 정도 구성된 너트 3개 세트를 가져갔지만 거의 쓰지 않았다. 블랙다이아몬드 제품사 한 세트 12개만 준비해도 될 것 같다. 트랑고 볼너트 1~4호는 작은 크랙에 용이하지만 회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9) 훅 : 조디악에서는 스카이 훅, 캠 훅, 포인트 훅, 피쉬 훅. 큰 것이 주로 쓰이며 반드시 챙겨야 할 장비이다.

(10) 하 켄 : 강도가 높은 1/2" 짜리 짧은 하켄을 5번 썼다. 회수 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4개 정도 챙기면 좋겠고 나이프블레이드가 쓰일 정도면 작은 사이즈도 충분히 믿을만 하기에 2개정도 챙기면 좋겠다. 버드빅은 중간 사이즈 정도 6개면 충분할 듯 싶고 너프는 3개 챙겼지만 쓰지 않았다.

(11) 자일 통 : 백마에서 구입하였는데 우리는 자일 통으로 쓰기 보단 장비 바구니로 거의 활용했다. 훈련할 때 최대한 실전처럼 연습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장비이다.

(12) 랜턴 : 피치별로 코스길이가 길다 보니 비싼 가격에 장거리용으로 준비했지만 그다지 유용하지는 않았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거의 막영을 했기 때문이다. 여분의 랜턴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13) 건전지 : 무전기를 우리가 예상했던 모토로라 제품으로 구입하지 못했다. 건전지 사이즈도 달라 국내에서 준비한 건전지가 많이 남은 아픈 사연이 있었다. 현지 건전지가 훨씬 비싸므로 국내구입을 해야 하지만 혹시 무전기를 현지에서 구입 할 예정이라면 건전지도 그때 맞추어 사는게 좋을 듯 싶다. 무전기는 역시 모토로라 제품이 좋다.

(14) 의류 :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는 걸 유념해서 준비해야 한다. 등반시 다운자켓을 챙겨야 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거세어 추위에 고생을 많이 했다. 하의는 봄, 가을 바지로 준비하고 방수바지도 챙기는게 좋겠다. 등반 중에는 선등자와 후등자는 반드시 파일과 고어자켓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훈련할 때에 잡주머니 등에 넣어서 항상 안전벨트에 걸고서 연습하여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4-4. 식량

20kg 오버차지 비용을 생각하여서 '거의 전량'을 현지에서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구매했던 물품의 일부만 가져갈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등반에 꼭 필요한 것들만 겨우 챙겼다.
식량구매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있다. 국내구매, 현지 한인마트, 현지대형마트, 요세미티 내의 마트이다. 국내구매의 경우 입맛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구매 할 수 있지만 비행기에 가져갈 수 없는 품목들과 무게를 고려해야한다. 한인마트의 경우 없는 것이 없이 다있지만 간혹 없는 것도 있고 소량만 필요한 품목도 어쩔수 없이 구매해야한다. 황당할정도로 비싸거나 하진 않지만 역시나 한국에 비해서 비싸다. 차량을 랜트해서 갔다면 충분히 가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보지 못해 정확히는 알지못하겠다. 공산품을 제외한 식량류는 쌀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요세미티 빌리지이다. 관광지 안의 마트라 비싸다. 나름 한국보다 싸다고 해서 자주 사먹었던 소고기나 육포도 현지가격과 비교하면 비싸고, 과일역시 다른팀들이 요세미티에 들어오는 길에 길가에서 샀던거보다 훨씬 비쌌다.

1) 국내에서 가져간 품목

품 명	특 징	비고
알파미	무게가 가볍다. 찬물로도 조리가 가능하다. 든든하다.	안선희 회원 찬조 (42기)
즉석된장국	담배갑 절반도 되지않는 크기에 국한그릇을 만들 수 있다. 가볍다.	
볶음고추장	혹시라도 현지음식이 맞지 않을 것을 고려 가져감.	

2) 등반식

무게 (등반식 + 행동식) = 18kg(무거운 편에 속한다고함)

(1) 식단표

일차	아 침	저 녁	비고(피치)
1		알파미, 컵라면	4피치
2	즉석 죽	즉석 비빔밥	7피치
3	즉석 죽	알파미, 컵라면	9피치
4	즉석 죽	알파미, 즉석카레	11피치
5	즉석 죽	알파미, 즉석 된장국	13피치
6	알파미, 볶음고추장	알파미, 즉석카레,즉석 된장국	정상
7	빵, 즉석 된장국		정상

(2) 목록 및 평가

3박 4일치 식량			예비식량		
품명	수량	평가	품명	수량	평가
즉석죽 (캔)	6	특별히 데울 필요없이 그냥 바로 먹을수 있어서 좋았다. 양도 부담없이 적당하였다. 개인에따라 배고플수 있다.	즉석카레	2	제트보일로 데워서 알파미에 먹으니 든든하다. 맛있다.
알파미	4	제트보일로 끓인물 넣으면 금방 조리가 되고 양도 한공기가 넘는것 같다. 배도 부르고 밥맛이 좋다. 찬물에는 1시간 정도인데 미리 넣어두면 물끓일 필요도 없다.	알파미	6	
컵라면	4	알파미랑 같이 먹었다. 작은컵이였는데 딱 좋았다. 되게 잘먹히고 힘도난다.	라면	1	초초 예비로 하나 챙겼다. 혹시나 해서.
즉석 비빔밥	2	양이 생각보다 꽤된다. 물도 별로 안들고 좋다. 간편하다. 장비랑 같이 넣었더니 찢어졌다. 테이프로 처리	즉석 된장국	4	블록식으로 된 일본식 된장국으로 부피도 작고 편하다.
소고기 볶음 고추장	2	알파미에 같이 먹으려고 챙겼다. 한국에서 만들어가면 좋을거같다.	육포	2	미국 육포 큰봉지로 2개 챙겼다. 밤에 출출한때 하나씩 먹었다.
무말랭이	1	라면에 먹기에도 좋고 카레 먹을때도 좋았다.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부피도 작고 괜찮다.			
참치캔	1	비빔밥이 너무 배고플가봐 챙겼는데 괜찮다.			
후르츠 칵테일	3	저녁에 하나씩 먹으려고 챙겼다. 달고 수분도 많아 물을 상대적으로 덜먹는다. 갈증해소도 된다.			
쌍화차	1	피로회복에 최고다. 밤에 쌀쌀한데 제트보일에 금방끓여 먹으면 아주 좋다.			

● 예비식량

모든 팀들이 3박4일만에 끝내길래 그렇게 계획하고 갔으나 불안해서 3끼분의 식량을 더챙기고 라면도 1개 챙겼다. 5일차 저녁까지 해결할수 있는 양이였다. 만약 없었다면 굶으면서 등반 했을지도 모른다. 6일차에는 결국 알파미를 덜어놓고 해서 줄여가며 먹었다. 그래도 예비가 있어서 가능했다.

● 저녁때 미리 다 꺼내두기

홀백에서 짐을 꺼내려면 자일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와야되서 번거롭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행동식, 물 을 다꺼내 두었다. 다음날 행동식도 미리 나누고 물도 수통에 체워두었다.

● 한끼식 봉지로 싸서 홀백에 집어 넣기

한봉지에 죽넣고 포장, 알파미 두 개 라면 넣고 포장, 즉석 비빔밥 참치캔 넣고 포장 이렇게 해서 겉에 아침 저녁 써놓았다. 아침은 다 똑같아서 꺼내기 편했고 저녁도 어차피 순서가 상관없으니 그냥 저녁이라고 써진 봉지 하나 꺼내면 됐다. 포장했던 봉지는 바로 쓰레기 봉지로 사용할 수 있어 좋았다. 잡주머니에 포장하는것도 좋은 방법같다. 터질수도 있다.

● 생각해 볼 문제

- 햇반은 캠프에서 미리 쪄서 가져가는 팀들도 있었는데 괜찮은 방법인거 같다. 하지만 무게를 고려 해봐야 한다.
-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녁에는 생각보다 밥이 잘들어간다. 특히나 라면이 잘먹힌다. 오죽하면 다른팀은 햇반,라면만 소비하고 다른 식량은 줄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 외국팀들은 거의 다 통조림 음식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우리 입맛에 맞을지는 의문. 옥수수 통조림 같은건 괜찮을거 같다.





3) 행동식

(1) 목록 및 평가

목록	수량	평 가	보 완
빵 (머핀)	1개	처음에는 반개로 하여서 나눠 먹을 생각이 였으나 먹어본 결과 너무나 배가고파서 개인당 1개로 결정 하였다. 퍽퍽하지 않은 빵으로 고르는게 좋을거 같다.	요세미티 빌리지에서 구매하여 같은종류를 사서 (맛은다름) 질렸다. 미국현지에서 사되 이동간에 대형마트 같은곳에 들러 다양한 빵으로 구매해보는게 좋겠다.
육포	반 봉지	생각보다 잘먹힌다. 짭짤하기도 하여 염분 보충에도 좋고 씹는맛이 괜찮다. 든든하고 체력보충에도 좋다.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요세미티 안에서는 비쌈. 이동간에 구매 하면좋겠다.
쁘띠젤 (미국식)	3개	상큼하고 후루룩 먹을 수 있어 좋다. 아무리 덥고 안먹힐때도 젤리는 편하게 먹을수 있어 부담이 제일 적을 것 같다.	먹어보고 몇 개더 넣을수 있으면 챙기는 것도 좋겠다.
파워젤	1개	맛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다. 끈적거리는 것도 있고 물엿을 먹는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힘이 빠지거나 지칠때 먹으면 조금은 힘이 나는거 같다. 카페인성분도 조금 있는듯하다. 다양한 맛이 있다.	
레모나	2개	인스턴트 섭취를 우려해 비타민을 넣었다. 시큼해서 입맛도 돋우고 괜찮은거 같다.	
후르츠 칵테일	반캔	2명이서 한캔을 준비해서 한명이 반정도를 먹고 만났을때 건내줘서 먹게하였다. 달고 수분기도 있어 더울때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물도 조금 덜먹히는 것도 있다.	사이즈가 여러 가지있는데 작은걸로 하는게 좋겠다.
견과류	한줌	날씨가 더울때는 정말로 먹지 못하겠다. 그래도 조금씩 먹어놓으면 힘이 된다.	
건과일	한줌	종합 건과일을 가지고 갔는데 건포도 건망고 외에도 다양한 맛이있어서 질리지 않고 먹을수 있었다. 개인취향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초코바	1개	스니커즈와 견과류 바를 가져갔었는데 더울때는 정말 먹기가 싫다. 그래도 먹으면 든든하다. 빵만으로는 조금 배고플수가 있다. 하나 챙겨도 좋을듯하다.	그냥 초코바는 입안이 텁텁해질수 있다. 다른팀이 가져온 닥터유 에너지바, 상큼하고 먹기에도 깔끔했다.
치즈	1개	찢어 먹는 미국식 치즈였다. 간식을 다양하게 하기위해서 사보았다. 한번 정도 먹을것을 제외하고 안먹었다고 봐도 된다. 맛도 없고 짜기도하고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추천하고싶지 않다.	안 사는게 좋다.

쌀과자	3개	국내에서 훈련할 때 잘먹어서 넣어보았는데 더울때는 하나도 먹지를 않았다. 먹는순간 입안이 마른다. 물이 엄청 먹힌다.	정먹고 싶다면 한국에서 만든것을 조금 챙겨가자.
사탕류	4–5개	하나정도 입에 넣고 등반하면 심심하지 않고 좋다.	마이쮸를 챙겨갔으면 했다. 미국에는 없다. 비슷한 종류가 있긴하다.

행동식에 관한 고찰

① 국내에서 구매하는게 좋은가 현지에서 구매하는게 좋은가?

● 비행기 무게만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사가는 걸 추천하고싶다.
먼저 가격이 절대로 싸지않다. 육포, 견과류 정도가 싼편이다. 미국에서 산것은 입에 맞지 않을수도 있다. 특히나 요세미티 내의 상점은 엄청나게 비싼거 같다. 환율로 계산해보았을때 스니커즈 초코바가 거의 2–3천원 하였다. 심지어 조디악 행동식을 보충하는데 100달러정도의 돈이 나왔다. 무게가 정안된다면 미국에서 이동간에 대형마트 (월마트 같은곳)에 들러 구입 후 이동하는게 좋을거 같다. 아니면 한인마트도 괜찮을 듯하다. 그러나 미국에 없는것도 있을수 있으니 체크해봐야한다.

② 등반중 행동식은 어떻게 섭취하였나?

● 작은 잡주머니를 메달고 등반하였다. 처음에는 하나의 간식주머니를 홀백 맨위에 올려놓고 꺼내먹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불가능. 차라리 벨트옆에 차고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꺼내 먹었다. 귀찮고 번거로워 먹지 않고 버티다가 한번에 공복감이 와서 등반에 지장이 온다. 저녁에 등반을 마치고 다시 채워 놓아 다음날도 계속 사용하였다. 주머니가 너무크면 불편 하다.

③ 행동식은 어떤걸로 골라야 하나?

● 국내에서 무조건 먹어보자. 매일저녁 행동식을 체워넣을때면 먹은것과 먹지 않고 남은것이 항상 같았다. 특히 치즈, 쌀과자. 이걸 빼고 잘먹는 것들을 조금더 넣었으면 어차피 무게도 같은거 배도 덜고팟을거 같다. 특히나 양조절.

④ 행동식 중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 수분기가 있는 것이 좋다. 아무리 맛있어도 수분기가 없는 것은 더울 때는 절대로 먹히질 않는다.

⑤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간식은?

● 천하장사 소시지

***짐을 데포 시키는 날의 행동식을 깜빡 할 수 있다 잘 챙기자!**

4) 물

현지 날씨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
24리터 챙겼음.

(1) 하루에 4리터 계산
개인물 1리터 + 공동물 2리터 (알파미물, 된장국, 라면 등)
5일 계산하여서 20리터 부족할거 같아서 4리터를 더 챙겼다.
노즈에서 외국인 등반팀은 1인당 하루에 1갤런(약 3.7리터)을 계산해서 가지고 간 팀도 있다.

(2) 조디악은 낮에만 잠깐 햇볕을 받아서 갈증이 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물이 많이 5리터 정도 남았다.

(3) 기타
– 1갤런짜리 물을 여러개 미국마트에서 샀으나 캠프 화장실 물을 먹으면 된다.
– 생수통은 한국에서 2리터 짜리를 찌그려 뜨려서 가지고 갔다. 잘 터지지도 않아 좋다. 하지만 다른 외국팀들은 1갤런(약3.7리터)짜리 큰거 미국생수통을 챙기는 팀도 많았다.
– 생수통 뚜껑에 덕테이프를 감아 놓으면 새거나 터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 해놓는 것이 좋다. 실제로, 덕테이프로 감아놓지 않아 등반중 물통이 샌 팀도 있다.
– 물이 없으면 등반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겁더라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좋겠다. 그렇다고 너무 챙기면 홀링이 어렵다.

5) 캠프식

식단표를 계획하여서 식량구매를 하였으나, 등반일정의 변경으로 많은 수정이 있었고 즉흥적이였다.

주로 먹은 식단.
미역국,김치찌개,북어국, 소고기 스테이크, 계란후라이 등
특히 캠프내 마트에서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비해 아주 저렴하고 맛도 좋았다.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도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와 같은것인지는 모르겠다.

6) 그 외 참고사항

(1)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몰하여서 꼭 식량박스(소위 '곰통')에 집어 넣어 두어야 한다.
특히나 청설모같은 동물이 사람도 겁내지 않고 캠프를 배회한다. 등반을 마치고 피곤해서 잠시 벨트를 벗어두었는데 간식주머니에 쓰레기를 보고 달려들어 완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식량 박스는 곰이 열지 못하게 걸쇠를 잡고 위로 쇠봉을 올리면 열수있게 되어있다. 특히나 야간에 주의할것은 이문이 잘잠기지 않았을시 형광물질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 경우 경고장을 받을수 있다. 요세미티 곰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렇다고 한다. 크기는 아이스 박스 두 개정도는 충분히 들어갈정도의 큰크기이다. 날씨가 건조하

여서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고 습기가 없어 부패의 염려는 많이 없다. 그렇다고해서 아무데나 두었다가는 레인저에게 경고장을 받을수 있다.

(2) 설거지는 따로 하는 장소는 없다.
화장실 사이에 물을 뜨는 식수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다간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키친타올이나 휴지로 건더기는 일차로 처리하고 물을 받아와서 한번 행군후에 다시 닦으면 좋다. 하지만 세제를 쓰며 막 설거지 하는 사람도 있다.

(3) 요세미티 빌리지의 이용
국립공원 내를 계속해서 도는 셔틀버스가 있다. 금방 오기 때문에 버스를이용하여서 접근이용의하다. 왠만한 물건이 없이 거의다 있는편이다. 지퍼락이 없다고 국내에서 사가라고 했는데 있을 정도였다. 공산품은 역시나 비싸다. 과일이나 육류도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과일이나 야채는 써진가격은 무게당 가격이기 때문에 멋모르고 샀다가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매식을 하고싶어서 여러군데를 찾아보았지만 마땅한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있는거라곤 햄버거나 피자,핫도그 정도였다.

7) 총평

원정 거벽등반 식량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가 너무 적었다. 식량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두가지 포인트는 '해외등반' 이라는 것과 '거벽등반' 이였다. 먼저 해외등반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훈련을 하면서 먹을 것을 챙겨보았지만 막상 그것을 무게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였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면 더 싸고 입맛에 맞는 것을 구비해 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다음으로는 거벽등반식의 준비였다. 새로운 방식의 식량 준비라서 너무나 막연하여 힘들었다. 가볍고, 간편한 음식으로 준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등반식에 집중하라. 물론 캠프식이 안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둘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겠다면 중요한 등반식에 좀더 힘을 실었으면 한다. 등반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식량의 역활이 크다. 어느 정도 먹고 마셔야 수월할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캠프에서의 식사는 한인마트에서 사온 쌀과 김치 그리고 빌리지에서 파는 값싼 소고기로 얼마든지 때울수 있다. 실제로 노즈에서의 여러차례의 후퇴로 캠프에서 먹는날이 늘었음에도 큰 걱정은 없었다.

결론은 연습량의 부족이였던걸로 판단된다. 이번 등반에서는 '노즈' '조디악' 두코스를 했다. 하지만 식량에 대한 정리는 조디악 것만을 하였다. 노즈에서의 먹는 것은 우후죽순 식이였고 뚜렷한 계획도 없이 이것 저것을 먹었다. 그래서 정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 이후에 노즈 코스를 후퇴하고 나서 다시 조디악에 붙음으로써 조금더 체계가 잡혔다. 아무리 행동식이라지만 터무니 없이 3명이서 머핀하나를 나눠먹을 생각을 했었다. 또한 식량주머니 하나에 다 담아두어 몇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노즈에서 며칠밤을 데이고 나서 조디악을 시도하면서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의 식량훈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실전처럼 먹어보고 시달려 봐야한다.

5
부 록



2013년 전남대학교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5-1. 원정에 도움주신 분

1) 후원금 지원

연 번	이 름	금액(원)	소 속
1	전남대학교OB산악회	1,5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	전남대학교OB산악회	1,500,000	서울지회
3	오성개	2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회장
4	이은수	2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총무
5	김태중	500,000	전남대학교산악회 지도교수
6	제갈호일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7	신한봉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8	송희태	2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9	김인주	2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0	장 희	2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1	이연근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2	정권희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3	이명숙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4	정숭룡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5	윤성룡(강미라)	3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6	이종호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7	조기성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8	박헌주	1,0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19	김용욱	5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0	김길봉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1	김영필	3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2	김연정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3	방경환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4	이형관	2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5	안선희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6	박지순	5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7	정효준, 임성근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28	이재국	50,000	전남대학교산악회
29	강은미(윤현식)	1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
30	노경미	60,000(50달러)	전남대학교OB산악회
31	이현조기념사업회	300,000	이현조기념사업회
32	서상진	50,000	조선대학교산악회OB
33	정오승	100,000	혜초여행사 대표
34	구철수	50,000	우암산악회
35	주현숙	50,000	우암산악회
36	안민희	70,000	안선희 회원(42기) 여동생

*** 서울지회 후원자 명단**

김나연, 김선지, 김성석, 김수근, 김용석, 김재우, 김현성, 김현준, 문준연, 박근영, 박진영, 박　현, 서정연, 양형렬, 원정일, 유명희, 이광호, 임준철, 조규상, 최지환, 한규성, 한석천, 함경준

2) 기타후원

이 름	소　속	내　용
송형근	조선이공대학교 산악회 OB	거벽등반용 장비 임대
이완선	전남대학교치과대학 산악회 OB	거벽등반용 장비 임대
김창진	전남대학교의과대학 산악회 OB	거벽등반용 장비 임대
이보현	여수향암산악회	거벽등반용 장비 임대
배훈희, 김미경	익스트림라이더 클라이밍센터	거벽등반용 신발 3켤레 지원(45만원 상당)
		귀국 후 식사제공(15만원 상당)
김유미	익스트림라이더 클라이밍센터	홍어 제공(설악산 훈련시)
이　인	익스트림라이더 클라이밍센터	귀국 후 식사제공(15만원 상당)
박상규	전남대학교OB산악회(미주지회)	미국현지 지원(식사, 장비 등)
류호성	전남대학교OB산악회(미주지회)	미국현지 지원(식사, 장비 등)
신한봉	전남대학교OB산악회	훈련등반 후 식사 제공(20만원 상당)
		천연양봉 제공(10만원 상당)
		여행용 의류, 혁띠, 지갑 등 제공

오성개	전남대학교OB산악회	7차훈련 등반 후 식사제공(20만원 상당)
신갑웅	전남대학교OB산악회	의류 3벌(15만원 상당)
박지순	전남대학교OB산악회	매 훈련시 마다 부식류 등 제공(7만원 상당)
김정국	전남대학교OB산악회	8차훈련 등반 후 식사제공(5만원 상당)
김현준, 이형관	전남대학교OB산악회	6차훈련등반 후 식사제공(30만원 상당) –김현준(2012. 12. 23 저녁식사 제공/10만원 상당)
전남대학교OB산악회	전남대학교OB산악회	발대식 후 환송연 식사제공(70만원 상당)
김태중	전남대학교산악회 지도교수	귀국 후 식사제공(30만원 상당)
		등정성공 자축연 식사제공(50만원 상당)
강은미, 윤현식	전남대학교OB산악회 전남대학교의과대학산악회 OB	등정성공 자축연 식사제공(20만원 상당)
송희태, 박헌주	전남대학교OB산악회	귀국 후 식사제공(30만원 상당) –박헌주(쌍화탕 1통, 한방파스 3개)
안선희	전남대학교OB산악회	알파미, 즉석된장국–30만원 상당
한규성, 조규상	전남대학교OB산악회	귀국 직후 을왕리에서 식사제공(20만원 상당)

3) 장비기증 (기증자 – 요세미테 원정대)

연번	내 용	수 량	가격(원)	기 증 처
1	무전기	4대	200,000	전남대학교OB산악회에 기증
2	무전기	2대	100,000	전남대학교YB산악회에 기증
3	블랙다이아몬드 캠	1조(8개)	1,000,000	
4	스테틱로프	1동(70M)	300,000	
계				

물심양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2. 편집후기

1995년도에 산악회에 들어온 이후로 요세미티는 줄곧 나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수직의 암벽에 매달려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등반을 하고, 밤에는 포타렛지에 누워서 어두운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다.

늘 마음속에만 품고 있다가, 작년 여름에 석민이와 우연찮은 술자리에서 한번 가보자고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거벽등반을 배우기 위해 서울에 있는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에 등록하고, 5주동안 매 주말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교육을 마치고 광주에 도착하면 보통 새벽 1시가 넘었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해야했기에 몸은 무척 피곤했지만, 요세미티에 한발더 다가가고 있다는 즐거움은 몸의 피곤함 따위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었다.

등산학교 수료이후 몇 번의 훈련을 거치니 어느덧 출국날짜가 훌쩍 다가오고 있었다. 분에 넘치는 여러 선후배님들의 환송속에 요세미티에 도착하여 등반을 시작하였으나, 국내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 초반에는 많은 애를 먹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선후배님들의 격려와 관심의 글이 큰 힘이되어 석민이와 민준이가 조디악(Zodiac)등반을 성공리에 무사히 마루리 할 수 있었다. 힘든 과정을 극복한 석민이 민준이가 참으로 고맙고 대견스럽다.

아울러, 이번 원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써주신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오성개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담당 임도균(원정대장)

2013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Yosemite 원정등반 보고서

발행일 | 2013년 11월

발행처 | 전남대학교 산악회

편집인 | 2013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Yosemite 원정대 대장 임도균

인 쇄 | 남도기업사